

[요약보고서]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 (2023~2027)

2023. 9.

전라북도

■ 제목 차례 ■

I. 계획의 개요	3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3
가. 계획수립 배경	3
나. 계획수립 목적	4
2. 계획의 범위	5
가. 시간적 범위	5
나. 공간적 범위	5
다. 내용적 범위	5
3. 계획수립 체계	6
가.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6
나.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반영	7
II. 현황 및 여건 분석	11
1. 지역 현황	11
가. 일반 현황	11
나. 지역경제 현황	12
다. 혁신자원 현황	14
2. 혁신도시 현황	22
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경과	22
나. 용지 분양현황	22
다. 이전공공기관 현황	23
라. 기업 유치 현황	24
마. 산학연 연계	26
바. 생활여건 현황	26
사. 주민의견	33
3. 상위·유관계획 검토	43
가. 상위계획 검토	43
나. 유관계획 검토	45
4. 환경변화 분석	50
5. 1차 계획 검토	52
가. 주요 내용	52
나. 사업추진 실적	53
III. 비전 및 목표	57
1. 비전	57
가. 비전 설정	57
나. 비전의 의미	57

2. 목표 및 전략	58
가. 목표	58
나. 전략	59
IV.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 확산 전략	63
1.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 방향	63
가. 혁신도시 거점 역량 강화	63
나.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혁신자원 연계	67
2. 공간구조 구상	68
가. 공간구조 구상 전략	68
나. 발전거점의 연계와 성과확산	70
V. 분야별 계획	75
1. 지역경제 활성화	75
가. 여건 및 잠재력	75
나. 기본방향 및 전략	85
다. 사업계획	87
2. 정주환경 조성	115
가. 여건 및 잠재력	115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16
다. 사업계획	119
3. 지역인재 양성	133
가. 여건 및 잠재력	133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34
다. 사업계획	136
4. 주변지역 상생발전	144
가. 여건 및 잠재력	144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45
다. 사업계획	147
5. 스마트시티 구축	154
가. 여건 및 잠재력	154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57
다. 사업계획	159

VI. 협력적·효과적 계획추진 방안	165
1.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165
가. 사업추진 계획	165
나. 자원조달계획	167
2. 계획추진 체계	169
가. 추진체계 구축	169
나.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분담	171
3. 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174
4. 성과관리 계획	175

■ 표 차례 ■

[표 2-1]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14
[표 2-2] 공공기관 현황	14
[표 2-3] 농생명산업 관련 대학 현황	15
[표 2-4] 금융산업 관련 대학 현황	16
[표 2-5] 공간·문화·지식서비스산업 관련 대학 현황	16
[표 2-6]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17
[표 2-7] 전라북도 특구 현황	20
[표 2-8] 특구 내 주요 입주기관 현황	21
[표 2-9]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현황	23
[표 2-10]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24
[표 2-11] 종전소재지별 기업현황	24
[표 2-12] 고용규모별 기업현황	25
[표 2-13] 업종별 기업현황	25
[표 2-14]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현황	25
[표 2-15]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인원 및 이주 형태 현황	26
[표 2-16] 연령 인구 분포(단위 : %)	27
[표 2-17] 교사당 학생수 현황	28
[표 2-18] 교사당 원생수 현황	28
[표 2-19]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29
[표 2-20] 전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현황	30
[표 2-21] 대중교통 현황	31
[표 2-22] 전북혁신도시 간이터미널 현황	31
[표 2-23] 전북혁신도시 시내버스 시설물 현황	31
[표 2-24] 혁신공동연합체 주요 활동 내역	32
[표 2-25] 설문조사 개요	33
[표 2-26]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지정 범위	46
[표 2-27] SWOT 분석	50
[표 2-28] 주요사업 추진실적(2022.10 현재)	53
[표 3-1] 필수지표	58
[표 3-2] 자율지표	58
[표 5-1] 전북 농생명산업 여건분석 방법	75
[표 5-2]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구성산업별 LQ 지수	76
[표 5-3] 전라북도 내 농생명산업 성장가능성 분석	76
[표 5-4]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지수 분석결과	77
[표 5-5] 지역별 농생명산업 생산유발계수	78
[표 5-6] 지역별 농생명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79
[표 5-7] 지역별 농생명산업과 지역내외 유발효과 발생 비중	79

[표 5-8]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감응도 및 영향력 계수	80
[표 5-9]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거래량 차이	80
[표 5-10]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생산유발계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	81
[표 5-11]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협력기관 선호도	156
[표 5-12]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협력기관 선호도	156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내용 및 체계	6
[그림 1-2] 협력체계 및 의견 수렴	7
[그림 2-1] 혁신도시 연령별 비율(%)	27
[그림 2-2] 전북혁신도시 어린이집 개원 현황(%)	29
[그림 2-3] 편의시설 현황(부산 제외)	29
[그림 2-4] 혁신공동연합체 주요 활동	32
[그림 2-5] 혁신도시 발전의 핵심방향	34
[그림 2-6] 혁신도시 발전의 핵심 분야	34
[그림 2-7] 전북혁신도시 교육·보육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35
[그림 2-8] 전북혁신도시 의료·복지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35
[그림 2-9] 전북혁신도시 문화·체육·여가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36
[그림 2-10] 전북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전략	36
[그림 2-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전략	37
[그림 2-12]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특화된 분야	37
[그림 2-13]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특화발전 분야	38
[그림 2-14]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	38
[그림 2-15]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	39
[그림 2-16] 전북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39
[그림 2-17]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우선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40
[그림 2-18] 전라북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방안	40
[그림 2-19]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요 전략	41
[그림 2-20]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41
[그림 2-2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42
[그림 2-2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42
[그림 4-1] 전라북도 혁신자원 특화분야	63
[그림 4-2] 발전거점 연계와 성과 확산	71
[그림 5-1] 전라북도 기준 전체산업 내 농생명산업 성장가능성 분석결과	77
[그림 5-2] 농생명산업수도 비전 및 전략	82
[그림 5-3] 정주여건 중 가장 취약 혹은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118
[그림 5-4] 차원별 포트폴리오 분석	118
[그림 5-5] 전주-익산-군산 셔틀열차사업 노선	129
[그림 5-6]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연금분야 지역인재육성 교육과정	132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수립 체계

I.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수립 배경

1) 혁신도시 발전계획 재정비 기간 도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시·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2018년 최초의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후 계획내용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

2) 1차 계획의 평가를 토대로 2차 계획 사업 방향 설정

- 목표연도 2022년도인 1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추진기간 종료됨
- 1차 계획의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게 됨

3) 이전공공기관의 상생발전 확대 필요

- 전북혁신도시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협력, 재화등 우선구매, 기타사업 등 지표 중 유관기관 협력이 가장 활발함
- 유관기관 협력건수는 77건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0,715백만원으로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미진한 주민지원·지역공헌에서 가장 미진한데, 미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 확대가 필요함

4) 정부의 지속적인 혁신도시 특화발전 추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혁신도시의 기능 확산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됨
- 올해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위한 전략 지원'과제에서 여전히 혁신도시 특화를 주요내용을 제시함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시·도 공약 정책과제에 '전북 금융 중심 지정'이 주요 공약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금융 인프라 육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5) 여건변화에 대응한 계획수립 필요

- 제1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후에 변화한 다양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간 혁신도시법의 개정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기여 확대를 위해 지역 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업체 우대 등의 확대를 제시함
- 국민연금 제2사옥(글로벌 기금관)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준공, 전북금융센터의 건립 확정, 그리고 BNY Mellon, SSBT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SK증권, 우리은행, 하나펀드 서비스 등 국내 금융관련 기관의 전주사무소 개설 등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있음
- 또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금융 정보 및 분석환경 제공 등 소프트웨어 기반이 조성됨

나. 계획수립 목적

- 제1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검토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계획기간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전략 설정과 사업 발굴
- 1차 계획 수립 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5년 기간 혁신도시 발전 비전 및 방향 설정
-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비전에 따른 발전 전략 및 분야별 계획과 사업 발굴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2년
- 목표연도(계획기간) : 2023년 ~ 2027년(계획 수립시점으로부터 5년)

나.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북혁신도시
- 2차적 범위 :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전북혁신도시 현황 및 여건분석
 - 혁신도시 및 지역의 현황 및 여건분석
 - 상위·유관계획 및 1차 계획 검토
 - 여건변화 전망
- 비전·목표·발전전략
 - (비전) 전북혁신도시가 나아가야할 중장기적 발전상
 - (목표)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발전전략 설정
-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 확산 전략
 -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내 혁신자원과 연계를 통한 거점화
 - 혁신자원과의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한 성과확산 공간 구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 플랫폼 구축
- 정주환경 조성 방안
 - 우수인재의 거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테마가 있는 정주환경 조성 방안
- 지역인재 양성 방안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간 교류·협력을 하여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

조적 인재 양성체제 구축 방안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주변지역 및 지역 전체와 상생발전 방안

○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술 및 R&D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 발굴

○ 협력적·효과적 계획 추진 방안

- 부분별 전략에서 제시한 핵심사업들을 협력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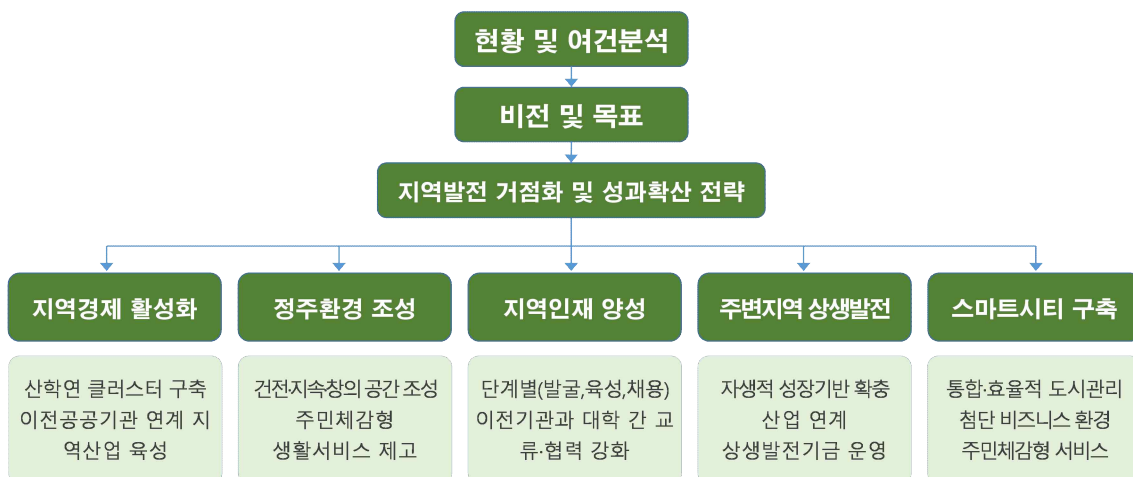
3. 계획수립 체계

가.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과업에 참여

- 지역경제 활성화(농생명, 금융 특화),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주변지역 상생발전, 스마트시티 구축 각 분야에 연구진으로 참여

○ 분야별 현황 파악과 과제를 도출하고, 혁신도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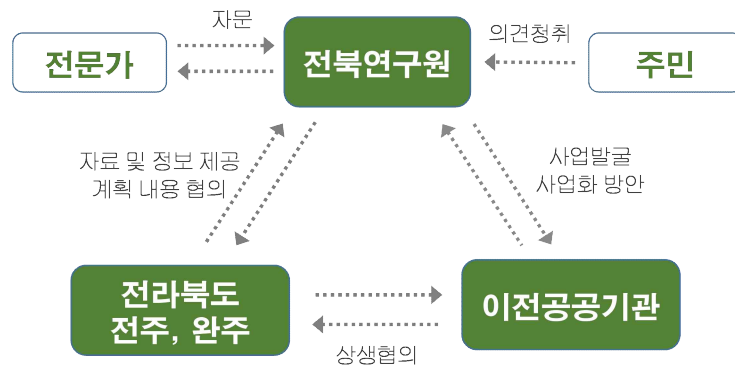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내용 및 체계

나.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인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등 혁신도시 관계 기관 간 협력 구조 구축

- 기관 간 회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 발전방안 논의

- 혁신도시 주민 및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도시 발전방향 및 정주환경 개선방향 설정



[그림 1-2] 협력체계 및 의견 수렴

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반영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계획수립 전반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분야별 발굴된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및 실행방안 자문
- 혁신도시 정주환경의 직접적 대상인 혁신도시 거주 주민들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주환경에 대한 의견조사 및 의견수렴

/ II /

현황 및 여건 분석

1. 지역 현황
2. 혁신도시 주요 현황
3. 상위·유관계획 검토
3. 환경변화 분석
4. 1차 계획 검토

II. 현황 및 여건 분석

1. 지역 현황

가. 일반 현황

1) 지리적 위치

- 전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전라북도는 세계 두 번째 경제규모를 갖는 중국의 환황해권 주요도시들과 해외교류가 용이한 서해안 중앙에 위치함
- 또한, 전라북도는 국내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나 이동거리가 유사한 장점을 가짐
- 전북지역 내부적으로는 서쪽에는 평야지대로서 서해안에 이르고, 동쪽에는 지리산과 덕유산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훌륭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2) 인구

- 전북의 인구는 2022.10월 말 주민등록 현재 1,771,776명으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가짐
 - 전북의 인구는 1965년 2,516,528명에서 2022.10월 현재 1,771,776명으로 57년 동안 744,752명이 감소하여 -29.6% 변화율을 나타냄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중심의 국가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주변 대도시로 많은 인구이동이 있었고, 전국적인 경향이었음

3) 교통

가) 전라북도 고속도로 현황

- 전라북도 관할 행정구역을 7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데, 광주대구선, 서해안선, 익산포항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고창담양선, 중부선이 해당함
- 대부분의 고속도로 4개 차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호남선은 삼례IC ~ 익산JCT 구간 6개 차로, 익산JCT ~ 익산IC 구간 8개 차로, 익산IC ~ 논산JCT 구간은 8개 차로임

나) 전라북도 도로연장 현황

- 일반국도와 시·군도는 증가하였고, 고속도로와 지방도는 감소함
 - 전라북도의 일반국도는 1,436km(2012)에서 1,488km(2021)로 3.7%, 시·군도는 4,260km(2012)에서 4,766km(2021)로 11.9% 증가함
 - 전라북도 도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6.7% 증가함

다) 전라북도 버스, 항공 및 철도 현황

- 전라북도 교통시설로서 버스터미널 33개(공영 2, 공용 31, 2020)¹⁾, 철도역 10개, 공항 1개, 여객터미널 2개(해운)²⁾를 보유함
- 항공분야에서는 군산공항에 활주로 2개, 여객터미널 1개,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전라북도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시종착역이 서울 용산역인 KTX 호남선 및 KTX 전라선과 서울 수서역인 SRT가 있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북전주선이 있음

나. 지역경제 현황

1) 주요 경제지표

-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은 491천억 원(2021)으로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은 규모 순으로 세종(116천억 원), 제주(180천억 원), 광주(395천억 원), 대전(412천억 원) 강원도(448천억 원)에 이어 12번째임
- 1인당 GRDP는, 전북은 29,252천만 원으로서 전국 평균 37,515천만 원의 78.8%이고, 대구(23,910천만 원), 부산(27,204천만 원), 광주(28,433천만 원)에 이어 14번째임
- 고용률은 63.3.6%로서 전국 평균 6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는 총 225,964개로 전국에서 10번째 순위를 차지함

2) 산업구조

가) 산업별 생산

- 2021년 전라북도 총 생산량의 산업 구성은 1차 7.2%(3,359,457백만 원), 2차 33.6%(15,607,875백만 원), 3차 59.3%(27,561,503백만 원)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약 60% 가량을 차지함

1)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대중교통 버스터미널 현황

2) 자료 : 한국해운조합, 2021, 2021 연안해운 통계연보

- 2015년 총 생산과 비교하였을 때 1차 농림·어업과 2차 광업·제조업의 비중은 감소, 3차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나) 산업별 취업자 현황

- 2017년부터 2021년 취업자 수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93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증가함
 - 2021년 취업자 수는 972천 명으로 2017년 대비 37천 명이 늘어남
- 취업자수가 증가한 산업은 농업·임업·어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임
- 반면 취업자가 줄어든 산업은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임

3) 지역특화산업

- 2019년 기준 전라북도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가장 특화된 지역산업으로 나타났으며 LQ 지수는 2.82를 나타냄
 - 다음으로 광업(2.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4)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019년과 동일하게 농업, 임업, 및 어업(01~03)이 LQ지수 3.09로 가장 특화되어 있고, 전년에 비해 특화도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광업(1.8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4) 순으로 특화된 것으로 분석됨

4) 전라북도 산업의 구성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사업체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6.0%), ‘숙박 및 음식점업’(1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2.0%) 순으로 높음
- 종사자 수 비중은 ‘제조업’(1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5%), ‘도매 및 소매업’(13.1%), ‘숙박 및 음식점업’(9.8%) 순으로 높음

5) 산업단지 현황

- 2022년 기준 전라북도에는 총 90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일반산업단지는 전주, 농공단지는 정읍, 김제, 남원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음

[표 2-1] 전라북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산업단지
국가(6)	(군산)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구:군장), 새만금지구, (익산)익산국가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탄소소재(미개발)	
일반(23)	(고창)고창일반산업단지, (군산)군산일반산업단지, (김제)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김제백구일반산업단지, (남원)남원일반산업단지, (부안)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2단계), (익산)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전주)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1단계),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단계),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정읍)정읍제1일반산업단지,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첨단(1)	(전주)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60)	(고창)고수농공단지, 복분자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흥덕농공단지, (군산)서수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옥구농공단지, 임피농공단지, (김제)대동전문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 백구농공단지, 봉향농공단지, 서흥농공단지, 월촌농공단지, 황산농공단지, (남원)광치1농공단지, 광치2농공단지, 노암농공단지, 노암제2농공단지, 노암제3농공단지, 어현농공단지, 인월농공단지, (무주)안성농공단지, 무주농공단지, 무주제2농공단지, (부안)줄포농공단지, 부안농공단지, 부안제2농공단지, 부안제3농공단지, (순창)가남농공단지, 쌍암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 풍산제2농공단지, (완주)이서특별농공단지, 남산농공단지, (익산)삼기농공단지, 왕궁농공단지, 함열농공단지, 황등농공단지, 남산농공단지, (임실)신평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 임실농공단지, 임실제2농공단지, 오수제2농공단지, (장수)장계농공단지, 천천농공단지, 장수농공단지, (정읍)고부농공단지, 농소농공단지, 북면농공단지, 신용전문농공단지, 신태인농공단지, 태인농공단지, 소성특화농공단지, 철도산업농공단지(조성중), (진안)진안연장농공단지, 진안제2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기타	(자유무역)군산, 김제 (외국인투자)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2022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

다. 혁신자원 현황

1) 공공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포함한 중앙공공기관이 14개, 전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7개, 농협은행 전북본부 등 금융기관이 2개로서 총 23개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표 2-2]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중앙 공공기관 및 전북본부 (지사)(14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7개)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예고융합섬유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금융 (2개)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

자료 : 전라북도청 내부자료(2022)

2) 대학

가) 농생명산업

- 전북도 내 농생명과 관련된 대학 학과는 전북대 86개, 군산대 30개, 원광대 33개, 전주대 10개, 우석대 12개가 있음

[표 2-3] 농생명산업 관련 대학 현황

대학	관련 학과
전북대 (86)	대학(29) (본부)스마트팜학과, (공과대학)기계설계공학부-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전공, 바이오메디컬공학부, 환경공학과,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농생명과학대학)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전공,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전공, 농생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목재응용공학과, 산림환경공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환경화학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작물생명공학과, 조경학과,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수의과대학)수의학과, (약학대학)약학과, (과학대학)과학학과, 물리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지구환경공학과, 화학과자연, (환경생명자원대학)생명공학부, 한약자원학과 일반대학원 (56) (공학계열)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융합기술공학과, 재료공학과, 자원에너지공학과, 환경공학과, (의학계열)수의학과, 의공학과, (자연과학계열)과학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농업경제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물리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학과, 생활과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조경학과, 지구환경공학과, 축산학과, 한약자원학과, 화학과, (학과간협동과정)나노과학기술학과, 바이오나노시스템공학과, 방사선과학기술학과, 생리활성소재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물공정공학과, 생물산업정밀기계공학과, 유기신물질공학과, 의학영양치료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농축산식품융합학과, (학연간협동과정)고분자나노공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농업경제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학과, 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 생물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유기신물질공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재료공학과 특수대학원(1) (생명자원과학대학원)생명자원과학학과(지역자원개발학, 식품산업학, 원예치료학, 생명자원경제학)
군산대 (30)	대학(12) (자연과학대학)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해양과학대학)해양산업 운송과학기술학부(해양생산시스템), 해양생명과학과(해양생명과학, 해양생물공학), 식품생명과학부(식품생명공학, 식품영양학), (공과대학)조선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나노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일반대학원(13) (자연과학계열)생물학과, 해양학과, 수산과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물리학과, (공학계열)해양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학연협동과정)물리학과, 생물학과, 플리즈마융합공학과 특수대학원(5) (산업대학원)해양산업공학과, 수산과학과, 환경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공학과
원광대 (33)	대학(17) (농식품융합대학)원예산업학부(원예학전공, 종자산업학전공), 산림조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생물환경화학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대학)약학과, 한약학과, (자연과학대학)바이오나노화학부, 생명과학부, (한의학대학)한의학과, 한의학과,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공과대학)화학융합공학과, (자연과학대학)화학과, 생명과학부 대학원(13) (자연과학계열)농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원예학과, 의공학과, 한약학과, 화학과, (의학계열)한의학과 특수대학원(3) (한의학전문대학원)한약자원개발학과, 한의정보학과, 제3의학과
전주대 (10)	대학(5) (의과대학)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문화관광대학)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공과대학)토목환경공학과 일반대학원(3) (자연과학계열)농생명융합학과, 조리식품산업학과, 환경생명식품과학과 특수대학원(2) (경영행정대학)농생명융합과, (문화산업대학원)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우석대 (12)	대학(6) (보건복지대학)제약공학과, (식품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약학대학)약학과, 한약학과, (한의과대학)한의학과 대학원(6) (자연과학계열)생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공학계열)제약공학과, (의학계열)한의학과

자료 : 각 대학교 홈페이지, 22년 12월 19일 접속

나) 금융산업

- 전북 소재 금융 관련 대학 학과는 전북대학교 31개, 군산대학교 25개, 원광대학교 19개, 전주대학교 21개, 우석대학교 7개가 있음

[표 2-4] 금융산업 관련 대학 현황

대학	관련 학과
전북 대 (31)	대학(10) (상과대학)경영학부, 경제학부, 무역학과, 회계학과, (사회과학대학)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통계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전공)
	일반대학원(11) (인문사회계열)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자연과학계열)통계정보학과, 수학과, (학과간협동과정)사이버무역지역학과, 농업경제학과, 연금관리학과
	특수대학원(10) (경영대학원)경영학과, 산업경제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창업경영학과, (공공정책대학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방자치학과, (정보과학대학원)경영정보, 통계정보
군산 대 (25)	대학(9) (사회과학대학)행정경제학부(행정학전공, 경제학전공),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류학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통계컴퓨터학과
	일반대학원(10) (인문사회계열)법학, 경영, 회계, 무역, 경제, 사회복지, 행정, (자연과학계열)통계컴퓨터학과, (학과간협동과정)경제통상학과
	특수대학원(6) (경영행정대학원)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부동산법학과, 행정학과, (산업대학원)정보통계학과
원광 대 (19)	대학(8) (경영대학)경영학부, 회계사무학과, 경제금융학과, (사회과학대학)복지보건학부(사회복지학전공, 보건행정학전공), 행정언론학부(행정학전공), (자연과학대학)응용수학부,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대학원(10) (인문사회계열)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보건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자연과학계열)정보통계학과, 수학과
	특수대학원(1) (경영대학원)경영학과
전주 대 (21)	대학(9) (경영대학)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물류무역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회계사무학과, (사회과학대학)법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미래융합대학)창업경영금융학과
	일반대학원(7) (인문사회계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금융보험학과, 사회복지학과, 통계학과
	특수대학원(5) (경영행정대학원)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 연기금융학과, 창업학과, 행정학과
우석 대 (7)	대학(3) (보건복지대학)아동복지학과, 실버복지학과, (문화사회대학)경영학부
	일반대학원(3) (인문사회계열)경영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대학원(1) (경영행정문화대학원)ESG경영학과

자료 : 각 대학교 홈페이지, 2022년 12월 19일 접속

다) 공간·문화 지식서비스산업

- 전북의 대학에 공간·문화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교육되고 있는 학과는 전북대 31개, 군산대 17개, 원광대 17개, 전주대 25개, 우석대 11개 학과가 있음

[표 2-5] 공간·문화·지식서비스산업 관련 대학 현황

대학	관련 학과
전북 대 (31)	대학(10)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사회과학대학)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문대학)고고문화인류학과, 문헌정보학과, (생활과학대학)주거환경학과
	일반대학원(16) (공학계열)IT응용시스템공학, 건축·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전자정보공학부, (인문사회계열)고고문화인류학과, 문헌정보학과, (자연과학계열)주거환경학과, (학과간협동과정)과학기술문화학과, 기록관리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영상공학과, 정보보호공학과, 무형유산정보학과, (학연간협동과정)영상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조경학과
	특수대학원(5) (산업기술대학원)산업기술학과(토목공학), 정보기술학과(전기및시스템공학), (공공정책대학원)

대학	관련 학과
군산 대 (17)	미디어PR학과, (정보과학대학원)문화정보, 컴퓨터전공
	(인문대학)미디어문화학과, (공과대학)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부, IT정보 제어공학부, (산학융합공과대학)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인문사회계열)지역문화콘텐츠, 미디어문화학과, 다문화, 사회정책제과, 글로벌창업과, (공학계열)전자정보공학부, 토목환경공학부, (자연과학계열)주거 및 실내계획학과
원광 대 (17)	특수대학원(4) (산업대학원)전기전자제어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인문대학)문예창작학과, (조형예술디자인대학)디자인학부(공간환경산업디자인전공), (창의공과대학)전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부(도시계획 설계전공, 경관문화공학전공), 건축학과
	대학원(5) (인문사회계열)문예창작과, 한국문화학과, (공학계열)전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전주 대 (25)	특수대학원(3) (양학대학원)동양학과, 서예문화학과, 예문화와다도학과
	대학(14) (사회과학대학)문화정보학과, (인문대학)역사문화콘텐츠학과, (공과대학)토목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게임콘텐츠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영화방송학과, (미래융합대학)문화콘텐츠학과, 농식품경영학, 기술경영학과
	일반대학원(8) (인문사회계열)문화정보학과, 사학과, 한중고전문화학과, (자연과학)문화기술학과, (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과, 건설공학과, 인공지능학과, Agro AI학과
우석 대 (11)	특수대학원(3) (문화산업대학원)한지문화산업과, 공연영상사진과, 융합디자인과
	대학(3) (문화사회대학)미디어영상학과, (과학기술대학)게임콘텐츠학과, 조경학과,
	대학원(3) (인문사회계열)교육 및 문화콘텐츠개발학과, (공학계열)건설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특수대학원(5) (경영행정문화대학원)문예창작학과, 가족복지학과, 다문화학과, 건축도시조경부동산학과

자료 : 각 대학교 홈페이지, 22년 12월 19일 접속

3) 연구기관

- 전라북도에 본원을 두고 있는 국가혁신기관은 총 9개소이며 혁신도시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 축산, 식품관련 기관이 입주하고 있음
- 농생명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업연구소 갯벌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이 있음
- 전라북도가 출현한 혁신기관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이 있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순창군장류사업소, 진안홍삼연구소 등 시군혁신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6]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국가혁신기관 본원(9)	(전주)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군산)국가해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익산)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완주)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가혁신기관 분원(11)	(전주)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군산)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업연구소 갯벌연구센터, (정읍)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완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부안)한국기계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시스템협력센터, (고창)한국전력고창전력시험센터
전라북도 혁신기관(7)	(전주)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연구원, (군산)자동차융합기술원, (익산)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군	(전주)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순창)순창군건강장

혁신기관(9)	수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고창)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남원)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임실)임실치즈&식품연구소, (진안)진안홍삼연구소
기타혁신기관 본원(9)	(전주)캠텍종합기술원, FITI시험연구원 전주사무소, (군산)건설기계부품연구원, 군산대 기술혁신센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익산)ECO융합섬유연구원, (완주)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읍)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타혁신기관 분원(5)	(전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군산)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익산)한국조명ICT연구원, (부안)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자료 : 전북테크노파크(<https://rnd.jbtp.or.kr>) - 전북혁신자원

4) 지역혁신센터

■ 전북대 지역혁신센터³⁾

- 전북대 지역혁신센터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을 주로 지원함
- 전라북도 소재 혁신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텍사스 주립대학교 IC2 연구소 등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으로의 수출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기술을 세계수준으로 견인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주대 지역혁신센터⁴⁾

- 대학과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가 양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함
- 리빙랩 프로그램과 소셜벤처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년 1회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금융보험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 중임

■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⁵⁾

-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기술, 수소저장기술, BOP 및 신뢰성확보기술을 특화하여 가정용, 발전용 및 수송용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시킴
- 창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소연료전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교수 인력풀을 구축하여 산학 연구개발과 기술지도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서비스 실시

3) 전북대 지역혁신센터(<http://jbnucri.com>) 참조

4) 전주대 지역혁신센터(www.nc.jj.kr) 참조

5)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http://www.h2fuelcell.re.kr>)

■ 원광대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⁶⁾

- 방사선 산업기술 장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화·융합화·글로벌화를 추진하고, 방사선 산업분야의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수행함
-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이전·지도 등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기술·경영지도 등을 제공하하고 신기술 제품 판로 지원함

5) 전북테크노파크(TP)⁷⁾

- 기업 및 대학, 연구소, 타 유관기관 등과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고 지역의 성장동력산업과 R&BD를 새롭게 기획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며 지역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양성 등을 추진함
- 신사업기획 및 국책사업 발굴과 기술산업화

6) 창업보육센터

- 전북의 장점과 특색을 반영하고 기술을 활용한 창업보육을 위하여 대학 중심으로 운영
- 농생명 분야와 관련하여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관련하여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신소재 관련 분야에서는 탄소융합부품소재창업보육센터와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인쇄전자 분야에서는 에코인쇄전자창업보육센터와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을 지원함

7) R&D 및 기업지원기관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융자, 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함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단체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운영함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는 준 정부기관임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6) 지역혁신센터(www.ric.re.kr) > 사업단소개, 2023.1.26. 접속

7)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33, 전북테크노파크(<https://www.jbtp.or.kr>) 참조

8)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인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임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으로 기업금융 지원, 국제·투자 금융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공공기관임
 -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경제단체로 경영지원, 디지털혁신, 글로벌 협력, 연수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함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담보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운영과,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임
 -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특수법인 단체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함

8) 특구

■ 지정현황

- 사업화촉진지구 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 특구가 지정됨

[표 2-7] 전라북도 특구 현황

구분	전주시·혁신도시	전북 완주군	정읍시	총계
	사업화촉진지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	
면적(km ²)	10.039	4.499	1.551	16.089

출처 : 전북연구개발특구(jb.innopolis.or.kr). 2022. 12. 19. 접속

가) 특구 지구별 기능 및 기관

- 전주시와 혁신도시의 사업화촉진지구 연구개발특구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고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연계하여 벤처창업, 탄소소재 연구 및 생산거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기관이 입주함

- 완주군의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에는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등 융복합 소재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을 수행하는 전주과학연구단지 등이 입주함
- 정읍시의 농생명융합거점지구에는 농생명 융합 분야에서 연구와 생산의 거점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이 입주하고 있음

[표 2-8] 특구 내 주요 입주기관 현황

구분	기능	면적(k㎡)	행정구역	관련시설 및 기관
사업화 촉진지구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거점 ·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연계한 벤처창업, 기술사업화, 지식서비스 거점 기능 · 탄소소재 연구 및 생산거점	10.039	전주시 완주군	·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장동연구단지 · 전북혁신도시 · 국립 농업/식량/축산/원예특작 과학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북센터, · 도시첨단산업단지 · 전북대, 전주대, 한국농수산대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 자동차, 농기계 부품 등 ·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 연구/생산	4.499	완주군	·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 우석대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 농생명 융합 분야 연구/생산 거점	1.551	정읍시	· 첨단과학산업단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 안전성 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자료 : 전북연구개발특구(jb.innopolis.or.kr)

9) 주요 기업체

- 전북혁신도시 내 산학클러스터 부지에는 총 49개, 클러스터 외부에는 209개로서 총 258개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음
 - 산학클러스터 내에 가장 많이 입지한 기업체는 연구개발업 분야의 21개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축산과학원과 관련됨
 - 산학클러스터 외부에 가장 많이 입지한 기업체는 전문기술업 분야 104개 기업체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농촌진흥청(4개 과학원 포함)과 관련이 있음
- 혁신도시 외 지역에는 총 230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제조업이 19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4개 과학원 포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임

2. 혁신도시 현황

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경과

1) 혁신도시 개요

- 위치 : 전주시 혁신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규모 : 9,852천m²
- 계획인구 : 28,837명(10,299세대)
- 사업비 : 1조 5,229억 원(용지비 9,283억 원, 조성비 5,946억 원)
- 사업기간 : 2007.4.16.~2016.12.31.

2) 혁신도시 사업추진 경과

- 2003. 06.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 2005. 06. 24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 2007. 04. 16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8. 03. 18 : 조성공사 착공
- 2011. 12. : 이전대상공공기관 선도기관 이전
- 2013. 12. 31 : 1단계 조성 완료(도시용지)
- 2016. 12. 31 : 2단계 조성 완료(농업연구단지 등)
- 2017. 9 : 한국식품연구원 입주를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완료
- 2018 :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나. 용지 분양현황

1) 용지 분양 현황

- 주거용지와 업무용지는 모두 분양되었고, 클러스터 3부지의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됨(매입계획 사전협의 완료 포함)
- 클러스터용지의 분양은 227천m² 중 198천m²가 분양되어 87.2% 분양률을 나타냄
 - 분양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부지까지 포함하면 96.1%가 분양됨

2) 클러스터 분양 현황

- 클러스터 3부지의 3-2와 3-5필지가 미분양 상태이며, 클러스터 7과 클러스터 12부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국민연금공단과 매입하기로 사전 협의됨

[표 2-9]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현황

단위 : m²

부 지	분양 대상 면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비고
전체	229,678.4	220,722.2	8,956.2	분양률 96.1%
클러스터1	9,563.2	9,563.2	-	전북개발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클러스터2	20,889.0	20,889.0	-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삼락로컬마켓
클러스터3	23,182.6	14,226	8,956.2	소방안전원전북지부, 엘지산전, 에스케이엔지 등 일부 입주
클러스터4	32,373.8	32,373.8	-	한국식품연구원
클러스터5	19,302.9	19,302.9	-	완주군 매입 완료
클러스터6	25,652.4	25,652.4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클러스터7	12,071.3	12,071.3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매입계획 사전협의 완료)
클러스터8	29,252.5	29,252.5	-	LX(공간정보연구원)
클러스터9	20,957.4	20,957.4	-	전북금융타운
클러스터10	15,495.7	15,495.7	-	전북테크비즈센터
클러스터11	10,003.7	10,003.7	-	전북국제금융센터
클러스터12	10,933.9	10,933.9	-	국민연금공단(매입계획 사전협의 완료)

출처: 전북혁신도시(innocity.jeonbuk.go.kr) > 추진상황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편집

다. 이전공공기관 현황

-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농생명분야, 금융분야, 공간·문화·지식서비스분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농생명분야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 금융분야 : 국민연금공단
 - 공간·문화·지식서비스분야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이전이 승인된 인원은 총 5,300명이고, 현재는 12개 공공기관에 6,267명이 근무하고 있음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2023~2027)

[표 2-10]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기관명	부지면적	청사면적	이전시기	현원
농생명	농촌진흥청	334	65	2017. 7	575
	국립농업과학원	1,622	110	2014. 7	1,350
	국립식량과학원	1,043	42	2015. 3	35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995	55	2015. 3	495
	국립축산과학원	1,316	43	2015. 3	305
	한국식품연구원	116	59	2015. 2	311
	한국농수산대학	424	61	2017. 9	208
금융	국민연금공단	55	32	2015. 5	929
	(기금운용본부)	-	19	2017. 2	342
공간·문화· 지식서비스	한국국토정보공사	30	13	2013.11	435
	한국전기안전공사	52	20	2014. 6	4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차	임차	2015. 7	8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82	47	2013. 8	105
계	12개 기관	7,169	566	-	5,951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혁신도시 통계자료, 2022.6월 기준)

라. 기업 유치 현황

가) 입주기업 종전소재지별

- 입주한 기업 중 기존의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131개로서 가장 많음
- 창업한 기업 83개 중, 클러스터 내에 3개, 클러스터 외에 80개가 입주함
-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이 25개로서 전체의 약 10%를 나타냄
- 전북혁신도시의 클러스터는 주로 이전공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기업들은 클러스터 외부에 입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종전소재지별 기업현황

구 분		계	수도권	타시도	동일시도	창업
기업수	계	253	25	14	131	83
	클러스터 내	45	6	4	32	3
	클러스터 외	208	19	10	99	80

출처 : 전북도청 내부자료

나) 고용규모별

- 전북혁신도시에는 고용인원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주로 입주함
- 고용인원 총 1,996명 중, 클러스터 내에 306명이고 클러스터 밖에서 1,690명임

[표 2-12] 고용규모별 기업현황

구 분	고용규모 (명)	입주기업수(개사)			
		계	30인미만	30~299인	300인 이상
계	1,996	253	245	8	0
클러스터 내	306	45	44	1	0
클러스터 외	1,690	208	201	7	0

출처 : 전북도청 내부자료

다) 업종별

○ 혁신도시에 가장 많은 입주가 이루어진 업종은 전문기술업종으로 108개임

[표 2-13] 업종별 기업현황

구분	계	제조 (10~34)	전기가스 (35)	정보통신 (58~63)	금융보험 (64~66)	전문기술 (70~73)	보건복지 (86~87)	기타
계	253	59	6	35	6	108	1	38
클러스터 내	45	-	-	17	1	5	1	21
클러스터 외	208	59	6	18	5	103		17

출처 : 전북도청 내부자료

라)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별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되는 입주기업은 총 99개이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과 관련된 기관이 54개로서 가장 많음

[표 2-14]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현황

이전공공기관	연관 기업수			기타 (혁신 외)
	계	클러스터 내	클러스터 외	
계	253	45	208	229
농촌진흥청	6	2	4	9
한국전기안전공사	10	2	8	6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0	1	24
한국국토정보공사	6	1	5	4
한국식품연구원	6	0	6	1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	0	3	3
국민연금공단	4	2	2	7
한국농수산대학	9	2	7	0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4개 과학원 포함)	54	2	52	1
해당없음	154	34	120	0

출처 : 전북도청 내부자료

마. 산학연 연계

- 이전공공기관은 기관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업무 및 보유기술을 활용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관련 기술을 상담하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오픈캠퍼스를 설치하여 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도 시행하고 있음

바. 생활여건 현황

1) 이주 및 인구 현황

가) 이전기관 이주 및 근무형태⁹⁾

- 전북혁신도시 이주율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전 승인 인원인 5,300명 대비 현원은 5,951명으로 10개 혁신도시 평균(108.8%) 보다 높은 112.3%를 나타냄
- 전북혁신도시는 미혼 및 독신 포함 가족동반(75.6%) - 가족동반(53.0%) - 단신이주(23.2%) - 미혼 및 독신(22.6%) - 출퇴근(1.22%) 순으로 나타남
- 전북혁신도시는 미혼 및 독신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전체 혁신도시 평균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을 동반한 이주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2-15]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인원 및 이주 형태 현황

단위 : 명, %

구분	승인 인원	이주 인원					이주비율					
		전체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출퇴 근	승인인원 대비 이주율	가족 동반	가족 동반 ¹⁾	단신 이주	미혼 독신	출퇴 근
총계	41,942	45,629	17,749	11,908	13,155	2,814	108.8	38.9	67.7	26.1	28.8	6.2
부산	3,457	3,745	1,983	701	1,059	2	108.3	53.0	81.2	18.7	28.3	0.1
대구	3,262	3,356	1,184	1,030	1,122	20	102.9	35.3	68.7	30.7	33.4	0.6
광주전남	6,923	7,802	3,139	2,293	2,350	20	112.7	40.2	70.4	29.4	30.1	0.3
울산	3,143	3,976	1,785	1,007	1,053	131	126.5	44.9	71.4	25.3	26.5	3.3
강원	6,179	7,198	2,385	1,713	2,443	657	116.5	33.1	67.1	23.8	33.9	9.1
충북	3,116	3,699	901	644	925	1,229	118.7	24.4	49.4	17.4	25.0	33.2
전북	5,300	5,951	3,154	1,378	1,344	72	112.3	53.0	75.6	23.2	22.6	1.2
경북	5,561	4,515	1,170	1,498	1,174	673	81.2	25.9	51.9	33.2	26.0	14.9
경남	4,249	4,577	1,630	1,473	1,464	10	107.7	35.6	67.6	32.2	32.0	0.2
제주	752	810	418	171	221	-	107.7	51.6	78.9	21.1	27.3	0.0

주1) 미혼, 독신 포함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9) 전라북도 내부자료(2022.6월 기준)

나) 혁신도시 내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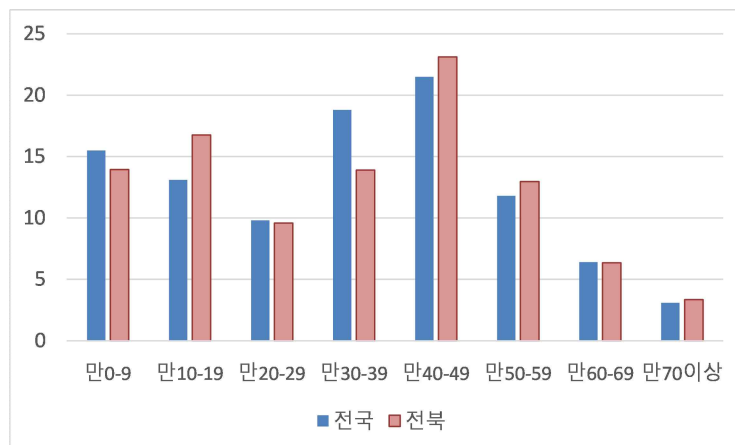
■ 인구 분포 현황

- 나이별로는 만 40세~49세가 전체의 23.1%(6,76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10세~만 19세 16.8%(4,901명)로 나타나 청소년층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음
 - 50세 미만 비교적 젊은 층의 비율은 전체의 77.3%(22,620명)에 달하고 있음
- 평균연령은 36.9세로 나타나 우리나라 평균 나이인 43.3세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10개 혁신도시 평균연령 34.7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전북혁신도시는 전체 혁신도시에 비해 10대와 40대 인구가 많음
 - 반면, 30대 인구는 타 혁신도시 평균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표 2-16] 연령 인구 분포(단위 :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국	15.5	13.1	9.8	18.8	21.5	11.8	6.4	3.1
전북	14.0	16.8	9.6	13.9	23.1	13.0	6.4	3.4

자료: 국토부.(2022).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보도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전북도청 내부자료)



[그림 2-1] 혁신도시 연령별 비율(%)

2) 주택현황

- 전북혁신도시 공공주택은 2013년 LH 공공분양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급되었고 2020년 8월 대방주택의 민간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를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완료됨
- 2022년 6월 기준 미분양 세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 9,236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됨

10) 국토부.(2022).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보도자료

3) 보육 및 교육

가) 학교 운영 현황

- 전북혁신도시 조성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총 4개 학교시설이 계획되었으며 2016년에 개교 완료함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중고등학생 수가 많아졌고, 특히 중학생의 수요가 증가하여 2019년 만성중학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됨
- 교사 당 학생수는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교사 당 학생 수 비율은 가장 높아(20.6명) 상대적으로 과밀상태로 볼 수 있음

[표 2-17] 교사당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 교사명 당

구분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초교	17.6	17.1	16.8	16.5	19.1	20.6	18.7	16.9
중교	15.3	11.1	12.4	13.9	13.3	13.2	10.4	15.9
고교	4.8	7.3	9.8	11.5	9.1	11.9	7.2	9.4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나) 유치원 운영 현황

- 전북혁신도시는 국공립 유치원 3개소, 사립 유치원 3개소로서 총 6개소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2022년 6월 기준 4개 공립유치원 3개 사립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음
- 교사당 원생수는 전국 혁신도시인 평균 12.2명 보다 낮은 11.6명으로 나타남

[표 2-18] 교사당 원생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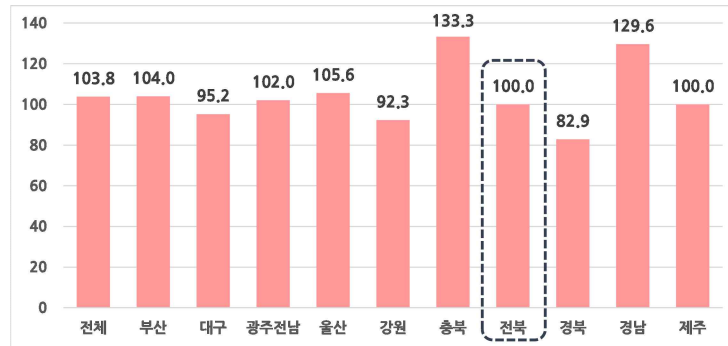
(단위 : 명/교사명)

구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원생수	15.3	13.6	10.3	17.9	12.9	9.9	11.6	13.3	12.5	26.0	12.2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다) 어린이집 개원 현황

- 전북혁신도시 어린이집은 공립 1개소, 민간 26개소, 직장 3개소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으며 '22년 6월 기준 총 개소수 기준으로 100.0% 개원함
- 공립어린이집 개원율은 200.0%, 직장 내 어린이집은 166.7%로서 계획 대비 초과하여 개원하였으나 민간 어린이집은 88.5%임



자료: 전라북도 정주여건 통계 현황(2022.6월 기준)

[그림 2-2] 전북혁신도시 어린이집 개원 현황(%)

- 전북혁신도시 어린이집의 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각각 6.7%와 16.7%로 타 혁신도시에 비해 가장 낮고,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9]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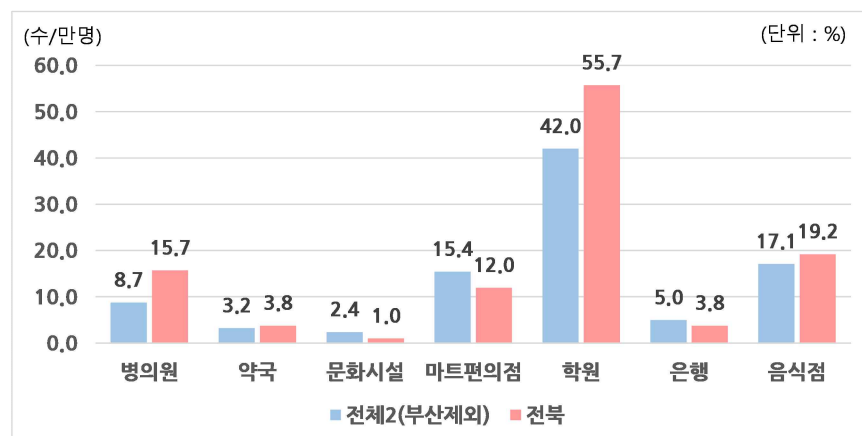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평균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공립	14.1	11.5	25.0	16.0	10.5	4.2	21.9	6.7	3.6	16.7	25.0
민간	67.4	65.4	60.0	68.0	57.9	66.7	75.0	76.7	82.1	72.2	50.0
직장	18.5	23.1	15.0	16.0	31.6	29.2	3.1	16.7	14.3	11.1	25.0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4) 편의시설 현황

- 전북혁신도시 편의시설 수는 만명 당 284.1개소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부산혁신도시 제외) 247.8개소보다 많음
-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은 혁신도시 전체 평균보다 많지만, 문화시설, 편의점·마트, 은행에서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전북혁신도시에 공급된 시설수가 적음



자료: 전라북도 정주여건 통계 현황(2022.6월 기준)

[그림 2-3] 편의시설 현황(부산 제외)

5) 종합의료 시설

- 전북혁신도시 내 위치한 종합병원¹¹⁾은 없는 상황이고, 10개 혁신도시 중 종합병원이 부재한 곳은 부산, 강원, 전북 3곳임
- 부산은 시가지에 위치하여 주변 인프라 이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부산을 제외하면 강원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만 종합병원을 갖고 있지 못함
- 향후 건립계획도 부재한 상황으로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6) 교통

가) 광역 교통체계 현황

- 전북혁신도시에서 수도권 등 전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역 교통수단은 고속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3개임
- 고속열차는 호남선과 전라선을 이용하는 KTX 열차가 용산까지 운행되고 있음
- 고속버스는 광주와 서울강남으로 운행되는 2개 노선이 있고, 시외버스는 서울과 인천, 안산 수원, 경기권, 광주, 익산·군산 전북 5개 지역으로 이동하는 노선이 운영 중임

[표 2-20] 전북혁신도시 광역교통체계 현황

(단위 : 회)

구분	노선	운행 횟수	비고	구분	노선	운행 횟수	비고
고속열차	용산	61	호남선(익산역)	시외버스	안산	3	
	용산	25	전라선(전주역)		수원	3	
고속버스	광주	3			광주	3	
	서울강남	3			익산	7	
시외버스	서울남부	9			익산, 군산	3.5	
	인천	1			창원	-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나) 지역교통 현황

- 시외버스 노선 9개와 마을버스 노선 3개가 운영되고 있음
- 시내버스 165번, 200번, 210번이 배차간격이 20여분으로 가장 짧고 나머지는 한 시간 내외로 비교적 긴 편임

11) 의료법에 따라 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또는 9개 별 전문 의사를 갖춘 의료기관

[표 2-21] 대중교통 현황

구분	노선	운행수(회)	배차간격(분)	비고
시내 버스	1-1	20	45~50	기전여고, 혁신도시, 만성지구, 서신동
	1-2	20	45~50	서신동, 만성지구, 혁신도시, 기전여고
	74	32	60	전주대, 혁신도시, 서신동
	75	32	60	효천지구, 전주대, 혁신도시, 법원 검찰청, 서신동
	165	92	20~25	평화동, 삼천동, 전주대, 혁신도시
	200	80	24	혁신도시, 터미널, 전주역
	210	72	27	혁신도시, 만성지구, 전북대, 우아중, 전주역, 아중지구
	220-1	14	75	혁신도시, 시외고속간이터미널, 여의동, 반월동, 여의동, 시외고속간이터미널, 혁신도시
	220-2	13	75	혁신도시, 시외고속간이터미널, 여의동, 반월동, 여의동, 시외고속간이터미널, 혁신도시
마을 버스	마을버스 41	6	175~190	여의동, 시외고속간이터미널, 법조타운, 혁신도시
	마을버스 46	12	60~90	시외고속간이터미널, 법조타운 혁신도시
	마을버스 47	12	60~94	만성지구, 국민연금공단, 혁신도시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다) 교통시설 현황

- 고속·시외버스 이용을 위한 간이터미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2020년 고속버스 전용 터미널인 혁신도시 간이정류소, 20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변 시외버스 정차 터미널을 추가로 개소함

[표 2-22] 전북혁신도시 간이터미널 현황

구 분	간이터미널	매표소	무인발권기
전주시	혁신도시 간이정류소(고속버스)	× (모바일)	×
	국민연금공단 간이정류소	× (현금)	×
완주군	완주혁신도시(시외버스)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현금)	×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 전주시 및 완주군으로 이동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이 1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는 57개소, 승강장 시설(유개)은 29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 혁신도시 내에 시내버스는 전주시 41대, 완주군 39대가 운행되고 있음

[표 2-23] 전북혁신도시 시내버스 시설물 현황

구분	혁신도시내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BIT) 설치	승강장시설 설치	혁신도시 내 운행 시내버스
전주시	96개소	41개소	93개소	41대
완주군	38개소	16개소	29개소	39대

자료: 전북도청 내부자료, '22년 2분기 정주여건 통계

- 주차장은 21개소가 있으며, 전주시에 17개소, 완주군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7)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현황

- 5개 공동체가 연합된 ‘혁신공동체연합회’가 자발적인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음
- ‘14년 최초의 공동체 단체 ‘달빛하모니’로 시작하였으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혁신아트 피아어린이 합창단, 은가람교육공동체, 혁신테니스 클럽, 온빛배드민턴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매년 10월 혁신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공동체 페스티벌’에 가요제, 백일장, 버스킹 등이 진행됨에 따라 상인과 주민, 지역공공기관이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지속되고 있음

[표 2-24] 혁신공동연합체 주요 활동 내역

사업명	날짜	장소	활동내용
혁신동 출범 축하 거리공연	2018. 7. 19	더 게스트 사거리	-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혁신동 출범 축하 공연 - 우리 동네 프리마켓
이노베이션 커뮤니티 스티벌	2018.10.19.~20	엽순공원	- 전통놀이, 먹거리장터, 버스킹 공연 - 시 쓰기, 압화 체험, 프리마켓, 가족문화체험학교
혁신도시 거리축제	2019.10.19.~20	엽순공원	- 전통놀이, 먹거리장터, 버스킹 공연 - 시 쓰기, 압화 체험, 프리마켓, 가족문화체험학교 등
캘리그래피는 혁신이다	2020. 8 ~ 12		- 시민을 대상 캘리그래피 교육진행, 자격증 취득 지원 -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회 개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혁신만성 주민어울림 음악회	2019. 6. 20	국민연금공단 연지홀	- 혁신만성주민, 공동체 공연(숙명피아노 교실, 혁신아트피아어린이합창단, 통사모, 달빛하모니합창단, 혁신 필하모니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자료: 전주시 혁신동 내부자료



출처 : 전주시 혁신동 내부자료

[그림 2-4] 혁신공동연합체 주요 활동

사. 주민의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주민의견 반영한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조사 설계

[표 2-25]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조 사 설 계
조사대상	·전북혁신도시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
목표표본	·600표본
표본할당	·연령별, 주민 특성(일반 주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을 고려한 인구비례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3년 3월 2주 ~ 3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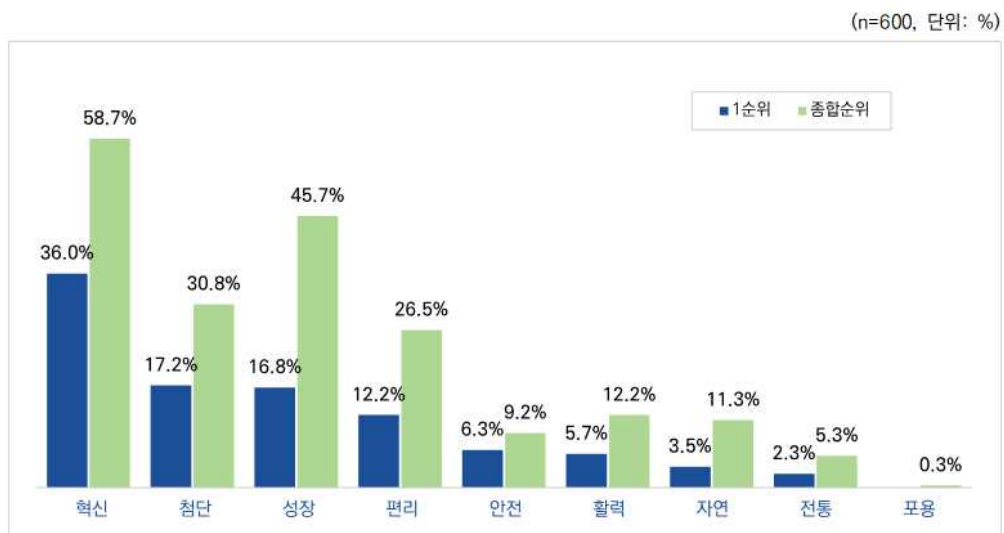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구 분	사 례 수	비율(%)
전 체	(600)	100.0
거주 지역	전주시 혁신동	(448) 74.7
	완주군 이서면	(152) 25.3
이주하기 전 거주 지역	전주, 완주	(366) 61.0
	전주, 완주 외 전북	(83) 13.8
	수도권	(56) 9.3
	수도권 외 타도시	(95) 15.8
거주 시작 연도	2010년~2014년	(129) 21.5
	2015년~2017년	(192) 32.0
	2018년~2020년	(216) 36.0
	2021년~2023년	(63) 10.5
성별	남성	(303) 50.5
	여성	(297) 49.5
나이	20대	(69) 11.5
	30대	(119) 19.8
	40대	(199) 33.2
	50대	(129) 21.5
	60세 이상	(84) 14.0
직업	사무/경영/관리직	(251) 41.8
	판매/서비스직	(86) 14.3
	의사, 법조인, 교수 등 전문직	(17) 2.8
	생산/기능직/기술직	(35) 5.8
	자영업	(71) 11.8
	주부	(84) 14.0
	학생 등 비경제활동	(56) 9.3
가족구성원 중 이전공공기관 종사 여부	본인(이전공공기관 종사자)	(200) 33.3
	가족구성원 중 있음	(14) 2.3
	가족구성원 중 없음	(386) 64.3
미성년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 있음	(223) 37.2
	미성년 자녀 없음	(377) 62.8

2) 전북혁신도시 비전

가) 혁신도시 발전의 핵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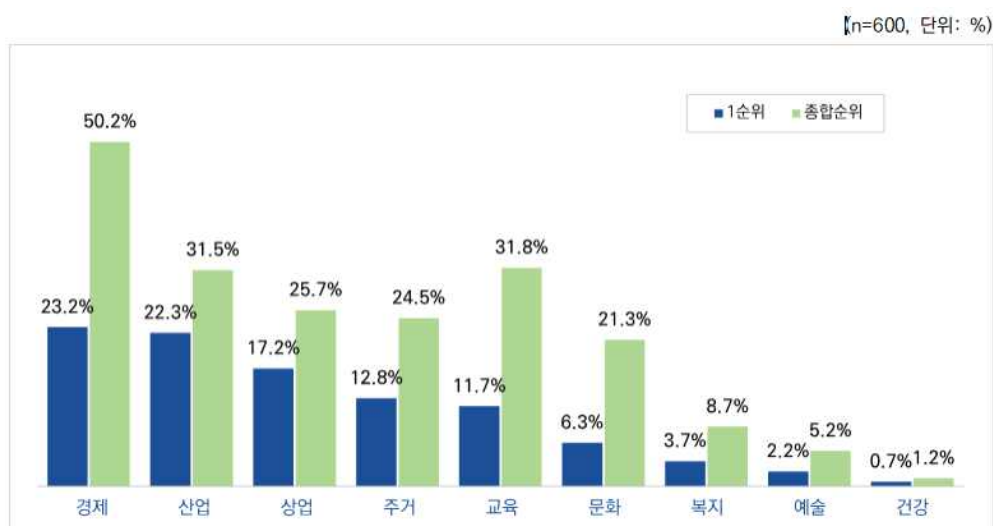
- 전북혁신도시 발전의 핵심 방향을 조사한 결과, ‘혁신’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첨단’(17.2%), ‘성장’(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그림 2-5] 혁신도시 발전의 핵심방향

나) 혁신도시 발전의 핵심 분야

- 전북혁신도시 발전의 핵심 분야를 조사한 결과, ‘경제’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업’(22.3%), ‘상업’(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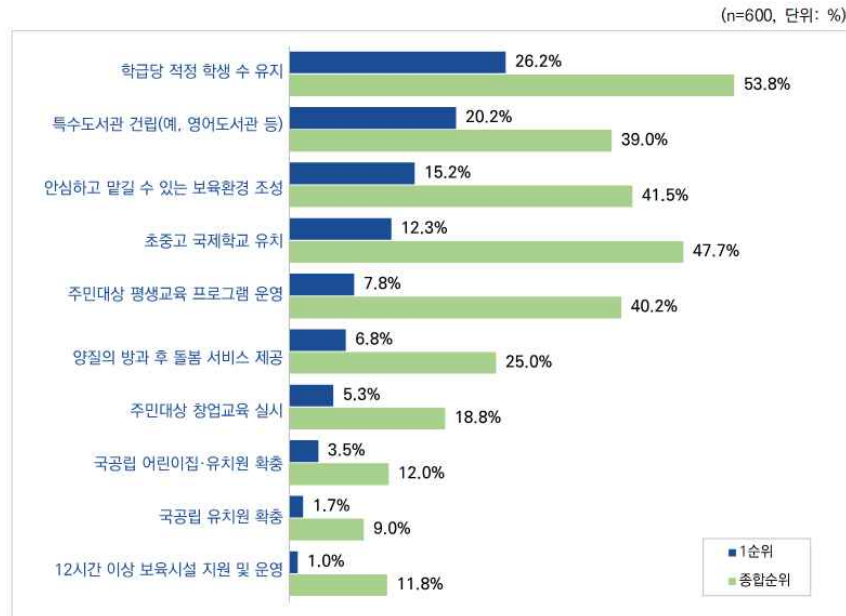


[그림 2-6] 혁신도시 발전의 핵심 분야

3)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가) 전북혁신도시 교육·보육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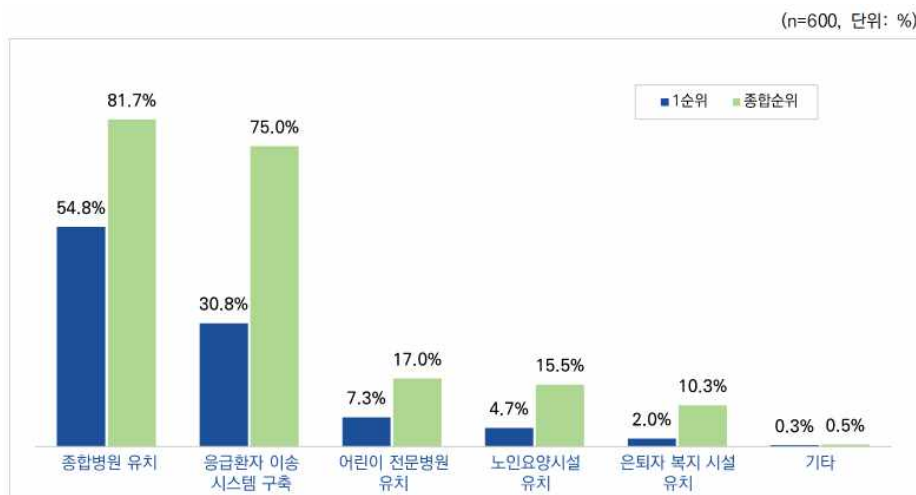
- 교육·보육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을 조사한 결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가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그림 2-7] 전북혁신도시 교육·보육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나) 전북혁신도시 의료·복지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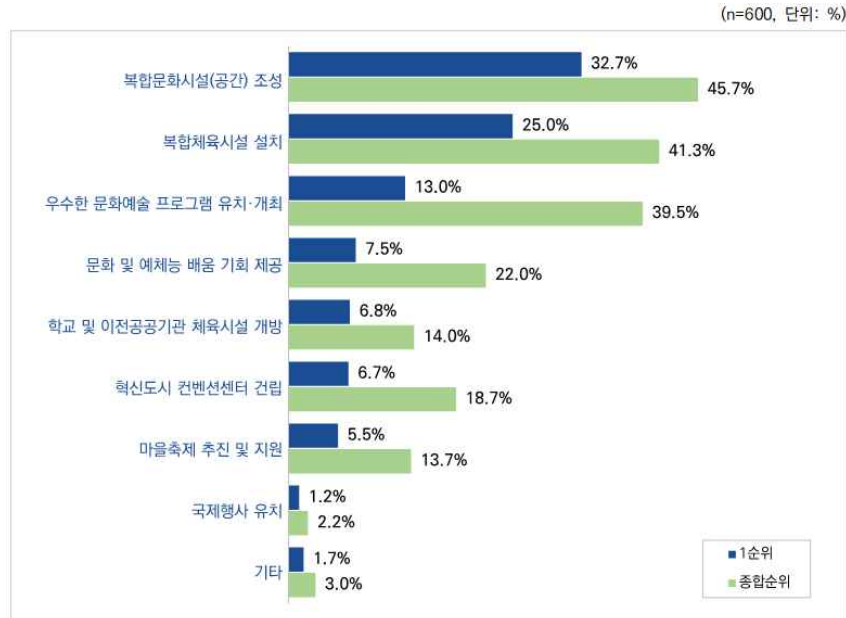
- 의료·복지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을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 유치’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그림 2-8] 전북혁신도시 의료·복지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다) 전북혁신도시 도로·교통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 도로·교통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을 조사한 결과, ‘편리한 시내 대중교통 확충’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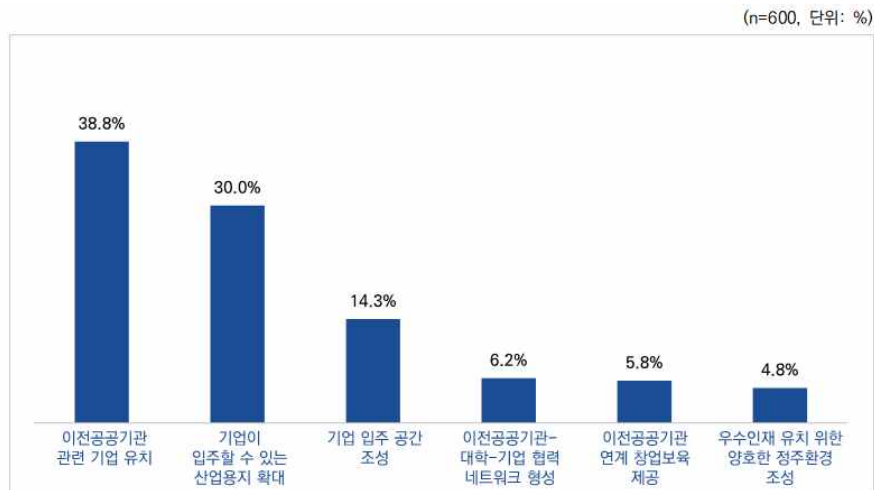


[그림 2-9] 전북혁신도시 문화체육여가 분야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시책

4) 전북혁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발전

가) 전북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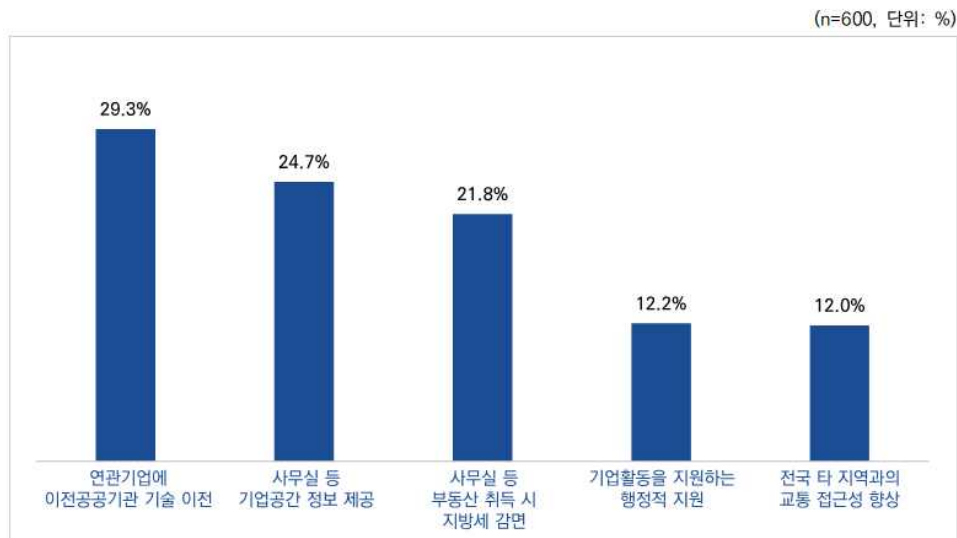
- 전북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전략을 조사한 결과,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10] 전북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전략

나)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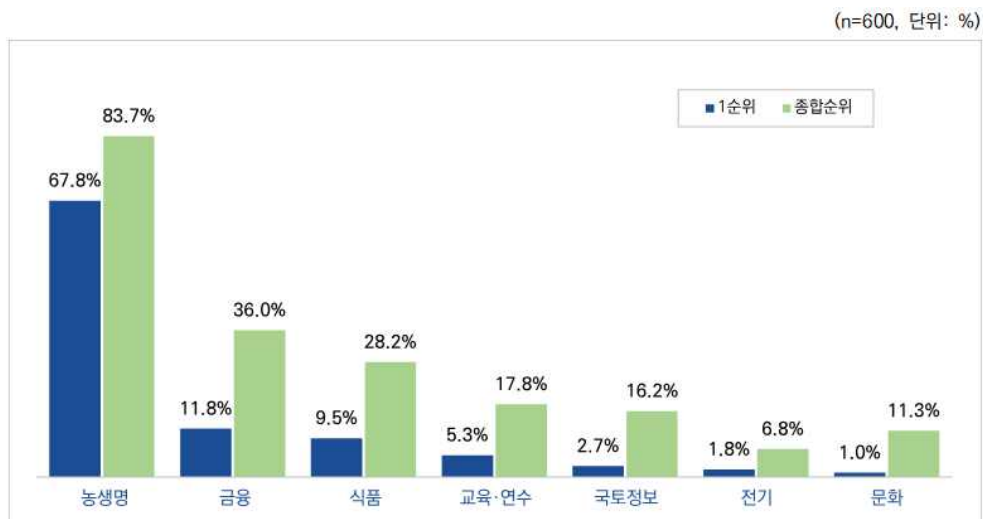
-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을 조사한 결과, ‘연관기업에 이전 공공기관 기술 이전’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2-11] 15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전략

다)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특화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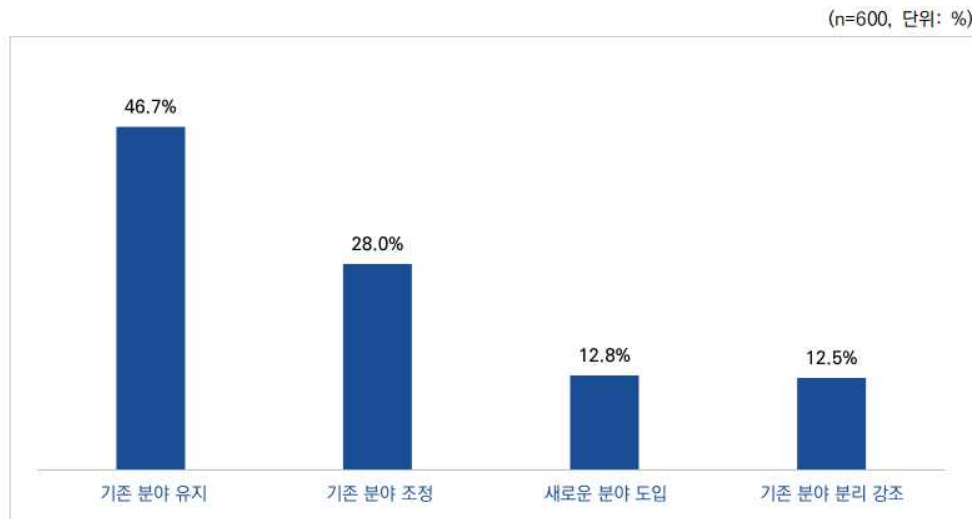
-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특화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농생명’이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11.8%), ‘식품’(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그림 2-12]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특화된 분야

라)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특화발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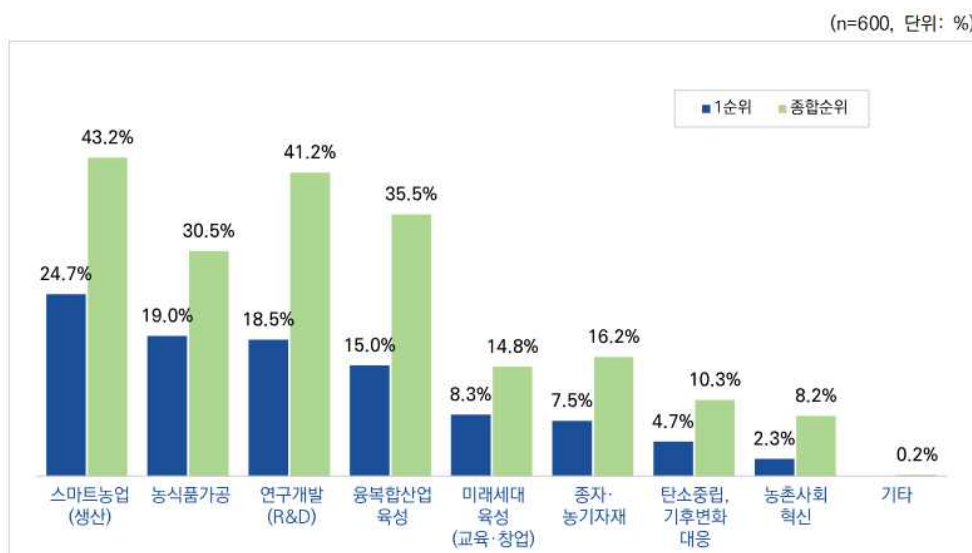
-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특화발전 분야를 조사한 결과, ‘기존 분야 유지’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존 분야 조정’(28.0%), ‘새로운 분야 도입’(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3]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특화발전 분야

마)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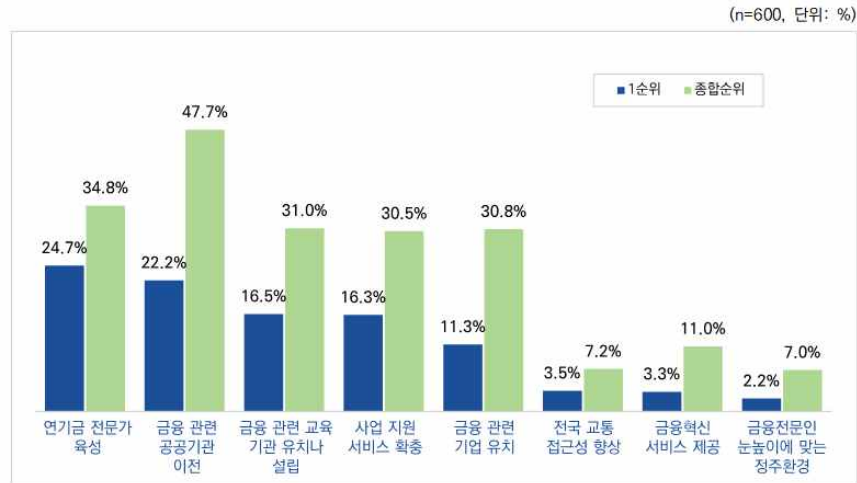
-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으로 ‘스마트농업(생산)’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식품가공’(19.0%), ‘연구개발(R&D)’(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그림 2-14]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

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

-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으로 ‘연기금 전문가 육성’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22.2%), ‘금융 관련 교육기관 유치나 설립’(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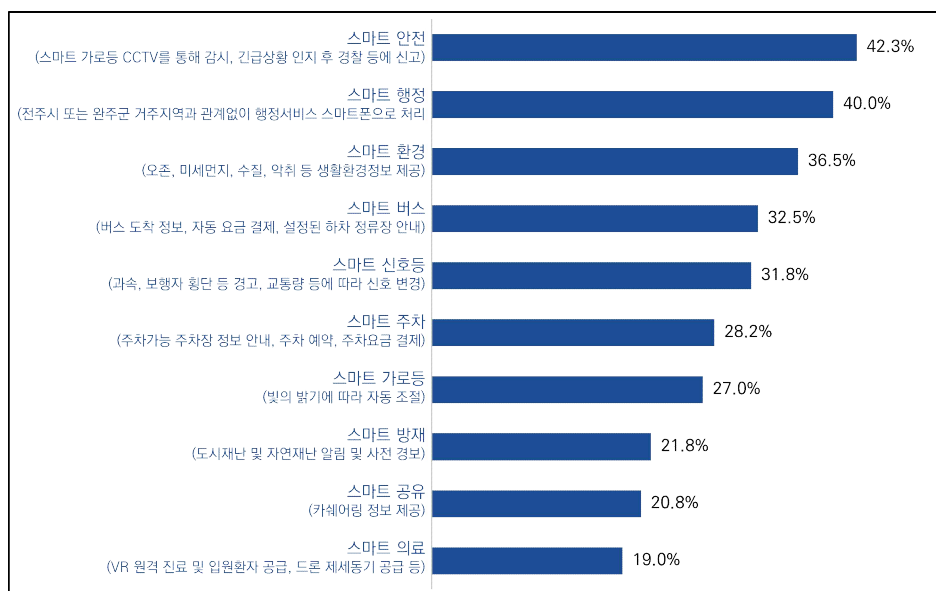


[그림 2-15]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분야로 특화발전 한다면 집중해야할 전략

5)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가) 전북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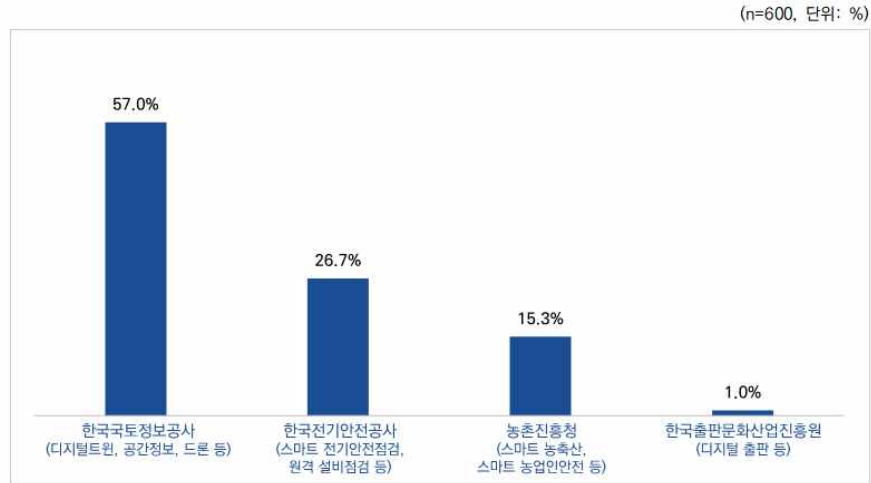
- 전북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 안전’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복응답]



[그림 2-16] 전북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나)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우선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우선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26.7%), ‘농촌진흥청’(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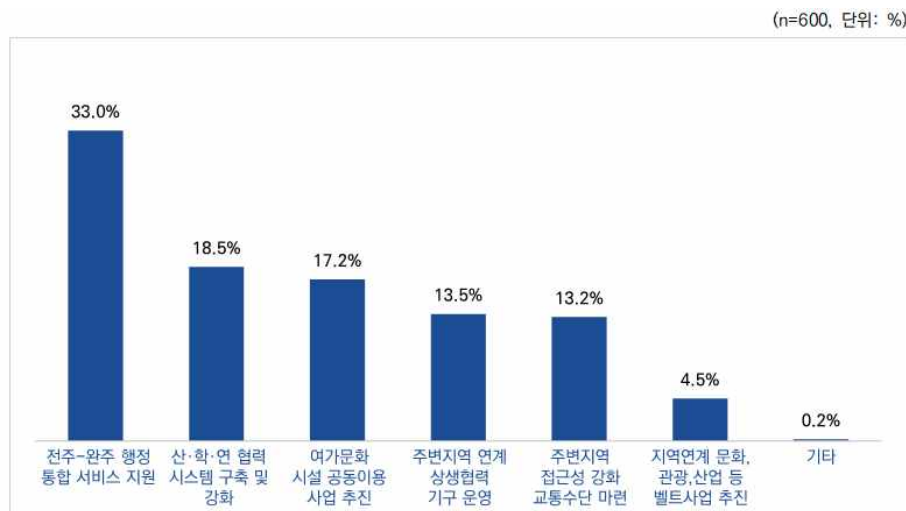


[그림 2-17]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우선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6) 전북혁신도시의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가) 전라북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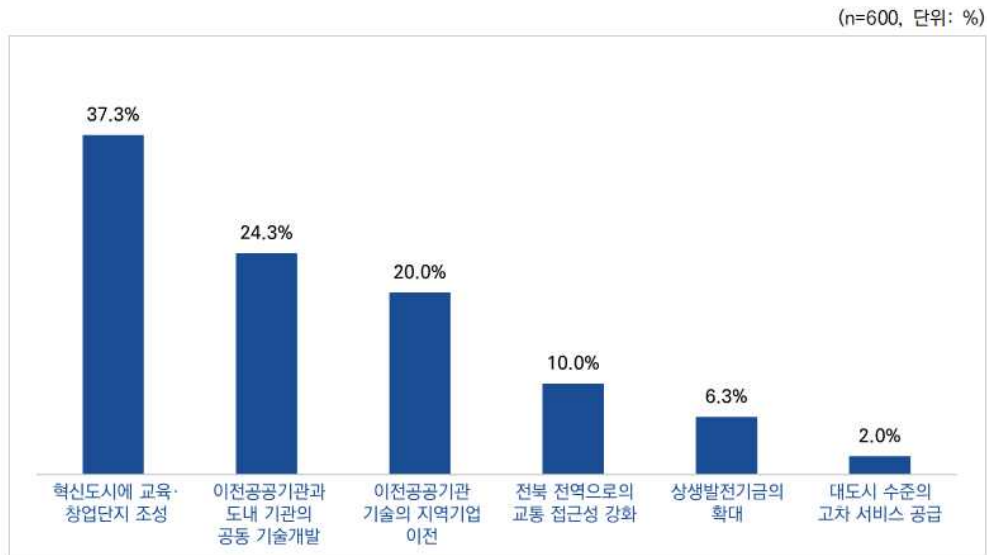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방안으로 ‘전주-완주 행정 통합 서비스 지원’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및 강화’(18.5%), ‘여가문화 시설 공동 이용 사업 추진’(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8] 전라북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방안

나)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요 전략

-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요 전략으로 ‘혁신도시
에 교육·창업단지 조성’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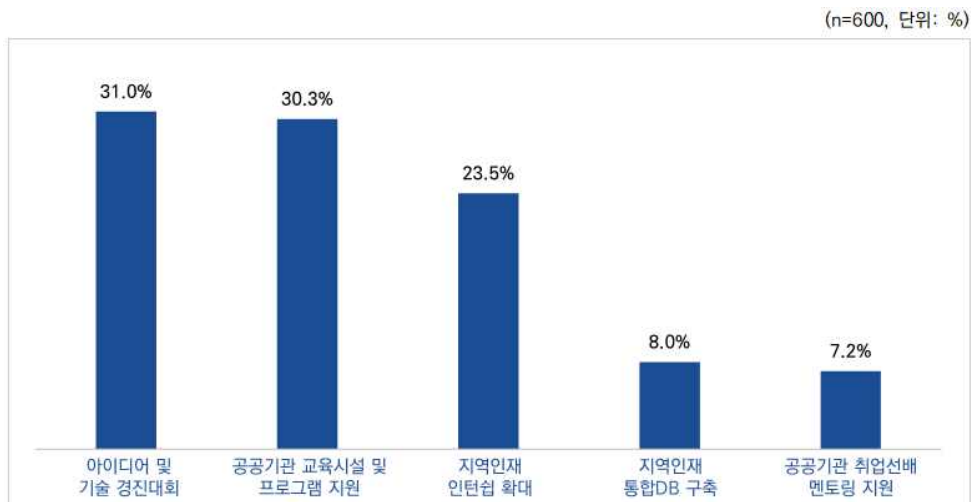


[그림 2-19]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요 전략

7) 전북혁신도시 및 전북의 인재육성

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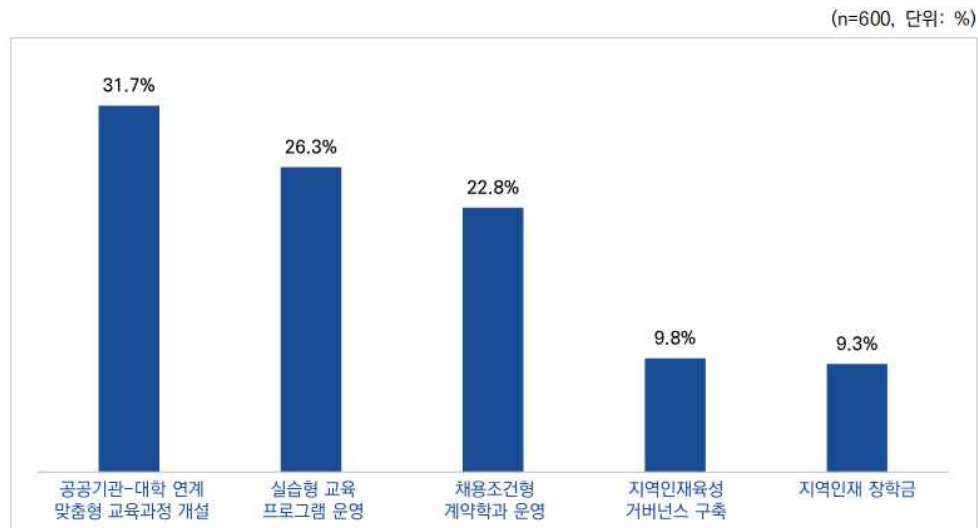
-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아이디어 및 기술 경진대회’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30.3%), ‘지역인재 인턴십 확대’(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0]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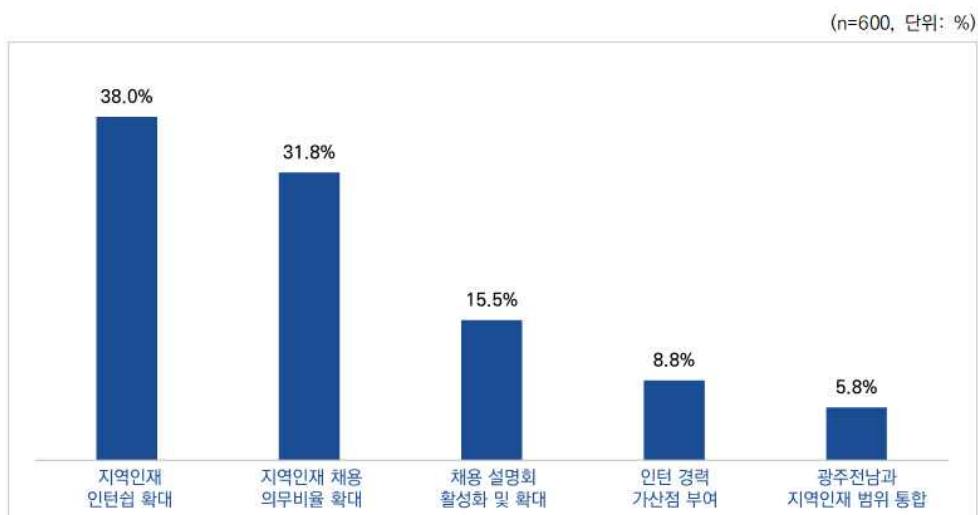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대학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습형 교육프로그램 운영’(26.3%),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지역인재 인턴십 확대’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31.8%), ‘채용 설명회 활성화 및 확대’(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3. 상위·유관계획 검토

가. 상위계획 검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 국토 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혁신적 지역발전’을 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방 대도시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적정한 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다중심 국토공간으로 조성

■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 계획

- 혁신도시는 2021~2030년을 혁신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혁신도시 내 전략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집중

■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고루 갖춘 혁신도시 조성

- 혁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적극 추진

-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전기관 지역교육 과정(오픈캠퍼스) 운영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 이전기관·혁신도시 특성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확산하고, 유아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유치 등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 전북은 농생명융합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제공
- 도시재생, 혁신도시-원도심 간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지역제품 구매 촉진 및 상생발전협의체과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19)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3) 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4~2018

■ 5대 분야 10대 추진전략

- 지역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와 행복생활권 기반 구축(지역행복생활권 분야)

-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 도모(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복지를 강화하고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
-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광역화와 지역 맞춤형 복지 추진(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 분야)

■ 전북 특화발전 프로젝트

- 농생명 관련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생물, 종자, 식품으로 특화된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 전략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식품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지원,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등 지원

4)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19)

■ 지역주력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성장유망산업의 집적도는 석유화학(5.5%) - 자동차(4.2%) - 철강(3.3%)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혁신성장 신산업 종사자 비중은 건강진단(3.0%) - 환경지속가능(2.9%) - 화학신소재(2.7%) - 에너지(2.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주력산업 배치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로 계획됨

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¹²⁾

-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 고도화,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의 3개 전략을 제시함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함
 - 민간이 주도하여 초격차 기술을 개발을 통해 시장주도권을 강화하고 핵심소재부품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혁신선도 기술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12) 관계부처 합동, 202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차세대 원자력을 선정함

- 민관협업 기반으로 시장 스케일업 및 임무지향 R&D로 대체불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미래도전 기술로서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기술을 선정함
- 공공주도로 핵심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타 전략분야의 융합·활용에 민관 역량을 결집시키는 필수기반 기술로서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을 선정함

6) 혁신도시 기본구상¹³⁾

■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을 위한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제시
 - 시도별로 다양하고 개성을 창출할 수 있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 목표
- 혁신 거점, 특성화, 친환경 녹색, 교육·문화도시를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설정
 -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설정하며 단계별로 개발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

- 혁신도시 사업 추진체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추진, 참여형 도시개발,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 도입
- 효율적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방안
 - 개발규모의 적정화 및 단계적 개발, 민자유치 또는 실수요자에 의한 개발
 -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나. 유관계획 검토

1) 전라북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¹⁴⁾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향

- 비전 : 동북아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 - 농생명·지식서비스 산업 혁신의 신거점
- 목표 : 클러스터 지식기반 강화, 기업 핵심역량 강화,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 글로벌 경쟁기반 구축

■ 유치전략 및 협력방안

- 유치전략 :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생명 관련 앵커기업

13)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14)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관련기관 유치, 기업지원을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유치, 앵커기업 및 핵심연구소 유치를 위한 조직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기업 성장단계별 유치정책 추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치전략 추진, 전북혁신도시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유치활동 추진, 혁신도시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장소마케팅 및 전북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박람회 개최 추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이전기업 근로자 정착지원, 혁신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수혜기업 확대 등 기업지원제도 개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협력방안 : 이전공공기관-전라북도 및 시·군-지역혁신기관-기업 간 지역발전 협약 체결, 이전공공기관과 전북지역 혁신 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추진, 이전공공기관과 지역혁신 기관 및 기업 간 소통행사 추진

2)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¹⁵⁾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성격 : 혁신역량 집적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 내용 : 농생명산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농생명산업의 핵심인 종자, 농기계, 농식품 가공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 조기구축, 산학연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혁신주체간 연계·협력력을 통해 혁신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5대 패키지 제공

[표 2-26]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지정 범위

구분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지정 범위				
	전북혁신도시지구	전주첨단 복합산단지구	익산 및 완주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단지	김제 민간육종단지
거점 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12개 이전기관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전북테크노파크, KIST, 조명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종자산업 ·지원센터, 특장차차기인증지원센터 등
특징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화 ·금융타운기반	·첨단소재부품기업연구 및 기업지원기관 밀집 ·SW융합클러스터 및 창업 중점	·농기계, 상용차, 기계 부품 등 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 고부가식품 특화 R&D센터, 수출거점기지 등	·종자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ICT 농기계 R&D협력 등

* 출처: 전라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안), 2018., 재인용

15)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R&D사업)

-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 영역에 집적된 농생명 및 농기계부품 산업의 혁신기관과 이전공공기관·기업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를 통한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 육성
- R&D사업 프로젝트 목표는 특화 작물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고부가 바이오제품 수출기지 구축임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비R&D사업)

- 기업지원 : BI 사업화 촉진과 강화 및 개발된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 기업지원 사업유형 : (BI사업화 지원) 농생명 ICT융·복합 아이디어에 대해 창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인재양성) 농생명 및 전후방 산업의 ICBM 기반 혁신과 표준화 역량강화, (상용화 패키지 지원) 테스트베드, 검증, 인증 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확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시제품 및 R&D결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 혁신플랫폼 구축 : (혁신기관기업 유치계획) 혁신클러스터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및 특화분야와 연관된 혁신기관 유치 추진, (혁신네트워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농생명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혁신클러스터 정책포럼 운영) 지역현안 논의 및 신사업 발굴
- 글로벌 연계 : (기술협력플랫폼) 기 구축된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수요지역·국가와의 협력 채널 구축, (공동 R&D 발굴) 신산업육성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 (해외진출방안 모색) 클러스터 내 농생명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대상 발굴 및 해외진출 추진방안 모색

3)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16)

■ 비전 및 전략

- 비전 :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 허브구축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 농생명 허브 추진전략 : 농생명 신산업 육성, 농생명 교육 혁신파크 조성, 지역농업 특성화
- 제3 금융 허브 추진전략 : 연기금 특화 중심지, 농업금융기반 구축
- 공간·문화 지식서비스 허브 추진전략 : 스마트행정 고도화, 지역서비스 밀착화

■ 기관유치 전략 및 공간 배치

- 유치대상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를 농생명, 식품바이오, 금융 및 국토정보, 영상 및 출판문

16)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화 등 기능별로 배치하고, 혁신도시를 1차 권역, 인근 시군을 2차 권역, 전라북도를 3차 권역으로 구분하여 기능별 1차, 2차, 3차 권역 간 연계한 공간구상

4)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¹⁷⁾

■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밸리
- (목표) 농어민의 소득 증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 첨단 농생명 경영체 집적지 형성
- (추진전략)
 - 농생명 기술혁신 확산 : 스마트 농생명 기술 실증, 유용 미생물 산업화, 농생명 기술창업 활성화
 - 공동이용·활용 체계 구축 : 유전자원 공동 이용 협력,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공동물류·가공체계 구축
 - 통합지원 체계 : 통합지원센터 운영, 통합지원펀드 조성, 인력양성체계 구축
 -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 공동연구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원,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과 혁신도시(R&D)를 연결하는 농생명 밸리 구축

■ 산업 부문별 공간구상

- 종자, 첨단농업, 스마트팜, 식품, 미생물, 농기계 부문별 산업분포에 따른 발전육성 공간구상 전략 제시

5)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전북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생 및 도농 상생 정책, 생활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활인프라시설 확충 등 추진
- 특히 혁신도시 중심의 광역 연계협력 강화로 전북의 외연적 성장판을 확장하고 새만금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

17)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스마트 농생명·신산업 거점 조성

- 금융특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자산운용에 특화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대외지향형) 혁신성장축의 성장

- 기본방향으로는 농생명 융합 및 R&D 벨트 추구
 - 농생명 관련 전후방 산업들의 융복합화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R&D 기능의 집적 유도
- 주요과제로는 종자 및 미생물 R&D 강화,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가 선정됨

■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전북금융센터(JBFC) 건립을 통한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백오피스 기능강화 지원을 강조함
- 금융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접근성 강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전자 금융 서비스 제공,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유치가 강조되어 있음
- 기존 주역산업과 연계하여 농생명/식품, 사회적경제, 대체투자 등 금융 거래 기구 설치와 새만금 개발 및 농생명 벤처 창업 펀드 조성 필요

6) 2025년 전주시기본계획¹⁸⁾

■ 도시 미래상

-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도시상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관광도시, 첨단·영상 산업도시, 교육·복지 도시, 친환경 복합행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함

■ 공간구조 및 개발축

- 첨단산업권역에 포함되는 혁신도시는 완주, 친환경첨단산업단지, 군산,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산업개발축의 주요거점으로 위상이 부여되어 있음

7) 완주비전 2050 장기종합 발전계획¹⁹⁾

■ 비전 및 목표

- ‘행복한 변화, 자족도시 완주’라는 비전과 ‘거점도시, 으뜸도시, 살고싶은 도시’라는 목

18)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19)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표를 설정함

- 실천 전략으로는 인구 15만 자족도시, 첨단 물류·유통 도시, 미래융복합 창조산업 도시, 삼락농정의 요람 부농 도시, 지역창생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도시, 매력있고 품격높은 관광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도시를 제시함

■ 공간구조

- 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이서면이 완주군 부도심으로서 중심지 체계 위상을 가짐
- 혁신도시는 도시발전축 상의 주요 거점이고, 주변지역과의 농생명발전축의 중심거점으로 설정되어 있음
- 혁신도시는 도시성장권역으로 구분되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비전을 위해 도시 인프라 및 정주기반 확충, 교통·물류기능 강화, 미래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

4. 환경변화 분석

[표 2-27] SWOT 분석

구분	Strengths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및 주변 도시 개발 전북 특화산업 혁신역량 풍부 인적 및 물적 자원 보유	Weaknesses 산업 기반의 영세성 혁신도시 내 이용가능 부지 부족 혁신도시 수요인구 부족
Opportunities 국가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기술 발달	SO 전략 전북 특화산업 중점 육성 새만금 및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 전북 특화 기술 적용 스마트 접목한 사업 추진	WO 전략 지역개발 위한 특화산업 지원 주변지역과 연계한 특화개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업기반 구축 및 정주서비스 제공
Threats 지역인구 감소 청년인구 지역유출 기후변화·대규모 감염병	ST 전략 특화발전 연계 지역인재 육성 보유기술 활용한 일자리 창출	WT 전략 특화기술 활용 기업지원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 기업 지원 안전·친환경 정주환경 조성

○ SO전략

- 혁신도시의 농생명 및 금융의 특화산업 혁신역량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 및 주변도시의 개발의 상황을 활용하여 혁신도시가 전북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
- 첨단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역량을 활용하여 스마트 디지털을 접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ST전략

- 혁신도시 중심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이들을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하도록 함
- 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만들어 사회적 재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WO전략

- 특화산업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 등 지원하고,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관련기업을 육성하거나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의 특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
- 혁신도시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과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발전전략을 취함

○ WT전략

- 지역의 영세한 특화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
- 이전공공기관의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5. 1차 계획 검토

가. 주요 내용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대한민국 농생명융합 혁신성장허브, 전북혁신도시

2) 전북혁신도시 발전 전략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전략

-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생명 관련 앵커기업, 대학·연구소·기업지원기관 등 유치, 전북혁신도시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유치활동 추진

■ 산·학·연 연계발전전략

- 혁신역량 강화 위한 기반 구축, 농생명산업 특화 사업 추진, 창업활성화 지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기능의 컨트롤타워 설립, 전북특화형 4차산업혁명 대응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정주환경 조성전략

- 주민들을 위한 힐링 여가·문화공간 조성과 학습 및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계하여 공동이용 및 이용네트워크 구축
- 혁신도시와 주변도시 간 의료네트워크 구축, 아동 복지 및 문화 시설 건립,
-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공유교통체계 구축, 첨단 도로체계 적용과 상생인프라 개선

■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 지역이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공간정보·전기안전·농생명 분야가 특화·융합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 지역인재 양성 전략

-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이전공공기관 연계한 Open Campus 확대 운영, 이전공공기관과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육성기관 설치 및 운영, 지역인재 채용 정보제공과 기회 확대, 지역인재 채용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 상생발전 전략

- 이전공공기관 관련 지역혁신자원 연계 개발, 이전공공기관의 강점을 연계하고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모색, 지역공헌사업 확대, 이전공공기관 자산의 공유

나. 사업추진 실적

1) 주요사업

-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에 25개 사업, 정주환경 조성 전략에 10개 사업,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에 5개 사업, 지역인재 양성 전략에 5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이 제시됨

2)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지난 계획기간(2018~2022)에 주요 사업 13개 중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임
- 사업비 투자실적을 보면 2.7%에서 100.0%까지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단계로 추진이 느리지만, 많은 사업들은 계획 대비 투자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표 2-28] 주요사업 추진실적(2022.10 현재)

전략	사업명	투자실적* (%)	사업추진 단계
특화발전 및 상생발전	농생명혁신캠퍼스 구축	100.0	시설장비 운영,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100.0	토목건축사업 완료 후 운영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2.7	타당성 조사 완료
	농촌정원 조성사업	100.0	토목건축사업의 공사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22.8	단위사업별 개별추진, 일부 설계용역, 일부 착공
정주환경 조성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00.0	토목건축사업의 공사(전주) 토목건축사업 완료 후 운영(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41.3	실시계획 수립 또는 완료(생태체험장) 토목건축사업의 공사(다담센터) 토목건축사업 완료 후 운영(산책로)
	공유 교통체계 구축	100.0	토목건축사업 완료 후 운영
스마트 시티 구축	전주-완주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100.0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R&D특구 연계 리빙랩	100.0	토목건축사업의 공사 시제품 생산
	실감콘텐츠 공간정보융합 서비스 사업	68.4	기본계획 수립 중 또는 완료
지역인재 양성	이전공공기관 연계 Open Campus	100.0	프로그램 운영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100.0	프로그램 운영

* 계획 대비 투입액 비율임

자료 : 전북도청 내부자료



비전

1. 비전
2. 목표 및 전략

Ⅲ. 비전 및 목표

1. 비전

가. 비전 설정

- 비전 : 자치시대 선도하는 생명경제 허브, 전북혁신도시



나. 비전의 의미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는 자치시대 도래
- 혁신도시는 국가의 불균형발전에 따른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됨
 - 현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정방향으로 제시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함
- 전라북도의 생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허브
- 전라북도는 단순한 산업을 통한 경제가 아닌 기후변화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명을 중심에 두는 경제를 추구함
 -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중심의 정책과 연구가 특화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경제를 바탕으로 혁신도시가 전북의 생명경제 정책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의미함

2. 목표 및 전략

가. 목표

1) 필수지표

- 2027년 수도권에서 유치한 기관은 121개, 수도권에서 유치한 일자리 수는 555명, 수도권에서 이주한 주민 수는 604명을 목표로 함
- 같은 기간, 375개의 창업을 통해 2,4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함

[표 3-1] 필수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도권에서 유치한 기관수(개)	-	9	24	64	121
수도권에서 유치한 일자리 수(인)	-	102	180	307	555
수도권에서 이주한 주민 수(인)	-	163	256	402	604
창업 건수(개)	-	34	109	227	375
창업 일자리 수(인)	-	359	775	1,534	2,423

* 사업성고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누적치임

2) 자율지표

[표 3-2] 자율지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전한 기술 수(건)	-	-	10	20	50
평생교육 캠퍼스 수강생(명)	-	-	200	400	600
창작 활동 주민 단체(개)	-	-	-	10	20
통행속도 증가(km/h)	-	1	2	3	4
청소년 스쿨 참여 학생수(명)	-	100	200	300	400
채용박람회 상담건수(건)	-	1,500	3,000	4,500	6,000
미래 세대 인문 교육(명)	-	-	100	200	300
전기안전 모니터링 설치(호)	-	10만	20만	30만	50만

* 사업성고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누적치임

나. 전략

1) 지역경제 특화발전

- 전북혁신도시는 조성계획 내용 및 이전공공기관의 성격으로부터 농생명·금융을 특화 산업으로 선정하였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함
- 농생명 및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이전공공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상호연계하여 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융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함

2) 정주환경 질적향상

-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혁신을 위해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새롭게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

3) 전문인재 교육양성

- 혁신도시의 미래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혁신도시 특화분야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지역대학과 이전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특화분야의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체계를 갖추어, 공공기관의 우수한 종사자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4) 지역협력 상생발전

-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전북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발전의 성과가 전북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과 각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혁신자원을 산업적으로 연계하고, 공간적 및 인적으로도 연계되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상호협력하여 상생발전하도록 함

5) 고도화된 스마트시티

-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체계를 구축함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역에 첨단 기술 접목 및 보급과 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함

/ IV /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 확산 전략

1.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 방향
2. 공간구조 구상

IV.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 확산 전략

1.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 방향

가. 혁신도시 거점 역량 강화

1) 특화분야

-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전체 13개 기관 중 7개인 58.3%가 농생명 관련 기관이고, 이전인원으로 보더라도 전체 5,300명 중 3,390명으로서 64.0%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전라북도의 혁신자원인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이 공통적으로 농생명과 관련되어 있음



출처 : 전라북도(2018), 118쪽

[그림 4-1] 전라북도 혁신자원 특화분야

- 농생명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이전인원이 비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전 인원이 1,218명이었던 금융 분야로서 전체 이전인원의 23.0%를 차지함
- 국민연금공단은 9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기관으로서 기금을 활용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산업의 핵심기관이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금융기관임
- 전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BNY Mellon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전주사무소를 개소하여 금융산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2) 지역 거점 발전 정책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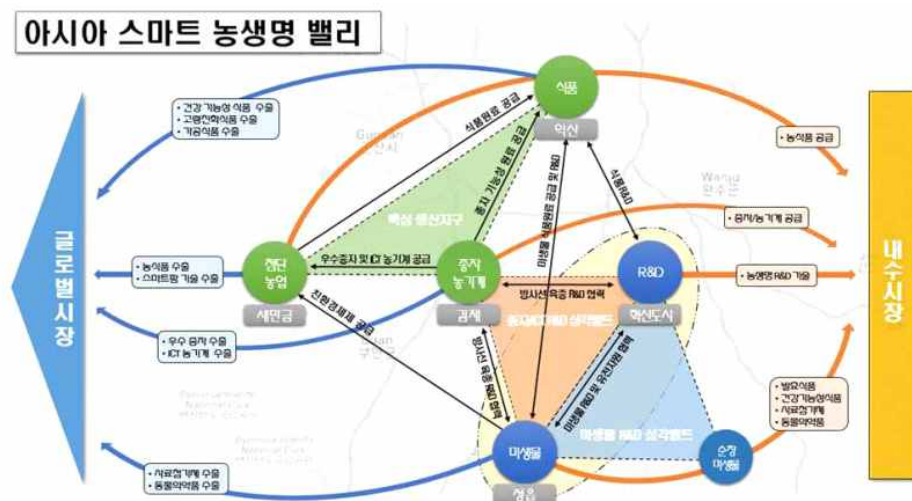
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밸리
- (목표)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 육성
 - 농어민의 소득 증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 첨단 농생명 경영체 집적지 형성
- (추진전략)
 - 농생명 기술혁신 확산 : 스마트 농생명 기술 실증, 유용 미생물 산업화, 농생명 기술창업 활성화
 - 공동이용·활용 체계 구축 : 유전자원 공동 이용 협력,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공동물류·가공체계 구축
 - 통합지원 체계 : 통합지원센터 운영, 통합지원펀드 조성, 인력양성체계 구축
 -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 공동연구 지원 활성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원, Free-pass 시스템 구축

■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농생명 밸리 구축



<그림 4-29>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연계 방향

출처 : 전라북도 2018,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방안 연구」, 443쪽

20) 전라북도(2018), 157~159쪽

나) 농생명산업 수도²¹⁾

■ 농생명산업 수도 개념

- ‘농생명산업 수도’는 생산·가공·유통·R&D 등 농생명자원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부가 농생명 산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의 의미
- 전북이 추구하는 ‘농생명산업’은 농업(자원)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관련 산업을 융합하여 생명산업으로 외연(가치)을 확장해가며, 이를 통해 도민행복과 지역활력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정의됨

■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 (목표)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민행복’을 실현함으로써 식품기업의 매출액 7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농가소득 6천만 원대 진입
- (6대 전략)
 -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 교육인프라 확충, 창농과 정착을 패키지형태로 지원하여 누구나 농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 강화
 -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농식품기업 성장지원과 지역농업 연계, 농산물 유통·물류기반의 디지털 전환, 전문단지 유통경쟁력 강화, 생산-소비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으로 식량안보 확보 및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위상 확보,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지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푸드테크·애그테크 등 산업분야 발굴 및 R&D 강화
 -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 특화품목 육성과 작부체계 개선, 농업생산의 스마트화·전문화·조직화로 소득안정 지원 생산시스템 구축,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사육환경 개선, 분뇨처리의 다양화,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상생형 축산시스템 구축
 -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지원 강화와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 영농활동 지원, 재해위험 사전대응, 농업경영 안전망 확대로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 조성 및 지원방안 강화
 -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 맞춤형 생활경제·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및 자립적인 운영역량을 강화, 유입인구의 지역사회 정착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로 누구나 즐겨 찾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사회 조성

21) 전라북도(2023)

다) 전라북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사업 2단계²²⁾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사업 개요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사업은 김제백구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20km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단지 내 스마트농생명융합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R&D) 및 네트워크,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비 R&D)을 지원하는 사업임

■ 2단계 사업 비전 및 미션

- (비전) : 파이프라인 기반 글로벌 스마트농생명융합 혁신플랫폼 구축
- (미션) : 전북 스마트농생명융합 및 전·후방 산업 혁신역량 고도화·확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단위거점/혁신주체 간 연계 강화
- 육성방향(전략)
 - 혁신역량 규모 확대 : 이전기업, 창업기업 등 클러스터 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규 아이템 개발 등 R&D 지원을 통해 특화분야 문제해결 지원, R&D 참여기업의 기술 개발·사업화 촉진 및 입주기업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창업, 사업화 및 수출 지원)
 - 중장기 성장역량 확보 : 스마트농생명 특화분야 공급망 분석을 통해 핵심품목·기술을 도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R&D 지원, 중장기 성장역량 확보를 위한 특화산업 관련 중핵기업 유치 및 인력양성
 - 혁신지원 인프라 확충 : 클러스터 내 지역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혁신 R&D 지원, R&D 참여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패키지 형태 기업지원
 - 혁신네트워크 고도화 : 외부지역 연계 특화산업 혁신 성과확산을 위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및 글로벌확장 R&D 지원, 수요지향과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 국가혁신클러스터 주도의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EDP(기업가적 발견 과정)에 기반을 둔 상시적/체계적 상향식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혁신 주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2) 전라북도(2022) 참조

나.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혁신자원 연계

1) 지역산업과 연계

가) 혁신도시 특화산업 연계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및 금융 산업 연계
 - 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진청 및 4개 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생명 관련 이전공공기관이 집적하고 있고, 농생명 관련 많은 기술 및 연구실적을 보유함
 - 전북 도내에도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많이 입지하고 있어 농생명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주체가 많음
 -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BNY Mellon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SK증권 등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금융산업 네트워크 형성
- 전북 도내 특화산업 관련 총 82개 혁신기관(연구소 15개, 기관 44개, 대학 23개)이 입지하고 있으며, 혁신기관 내 연구인력은 22,253명임(전북테크노파크 내부자료)
 - (연구소) 특화산업 관련 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식품), 한국생산기술연구원(농기계)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ICT) 등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 인프라가 풍부함
 - (기관) 특화산업 관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특화산업 관련 기술의 컨설팅, 사업화, 수출지원 등 비R&D지원 수행기관 다수가 입지함
 - (대학) 특화산업 관련 대학은 23개(연구인력 798명)로, 혁신인력 역량 강화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취업연계형 R&D 인력양성을 수행하고 있음
 - (혁신기관 간 상호보완성) 혁신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파이프라인 기반의 특화산업 통합지원체계(기술개발-사업화지원-인력지원) 구축이 가능함
- 혁신도시와 도내 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산업적 연구성과를 경제적·기술적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와 기술을 도내 혁신기관과 함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시킴
 - 혁신기관의 창업 및 마케팅 지원의 기능을 활용하여 창업을 유도함

2) 공간적 연계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에 많은 혁신기관이 소재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다수의 기관이 분포하고 있음
- 군산에는 교육기관인 군산대학교와 기계부품을 다루는 전북기계부품연구원과 함께 군산 및 새만금산업단지에 많은 관련 업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익산에는 식품관련 국가대표 식품전문산업단지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과 관련한 연구, 제조, 판매 등 종합적인 혁신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진안에는 진안홍삼연구소, 임실에는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장수에는 동물위생시험소, 남원에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순창에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및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읍에 농축융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및 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소재함
- 앞의 연구기능을 보유한 혁신기관과 함께 전북 전역에 입지하공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기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각 혁신기관으로 구축된 지역의 거점을 연계하여 성과를 확산시키도록 함

2. 공간구조 구상

가. 공간구조 구상 전략

1) 혁신거점 육성

가) 새만금개발

- 새만금은 세계 경제 2위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서 개발
-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를 위한 경협특구를 중심으로 농업 및 농촌도시를 위한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 글로벌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신공항과 신항만 조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

나) 전북혁신도시

-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과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으로 특화산업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공간·정보·지식 서비스 산업 자원 보유
- 농생명 분야 중심으로 하는 전라북도 R&D의 핵심거점으로 성장 추진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식품산업의 해외수출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익산시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등 식품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 입지

- 18개의 국내기업이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1개의 외국계 기업이 MOU를 체결하거나 투자를 신고함
- 식품산업 관련 지원시설과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전라북도 농산물을 원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라북도 식품 및 농수산업의 거점 역할 기대

라) 종자·농기계 클러스터

- 김제에 농업생산 관련 종자를 개발하고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단지 조성
- 민간육종연구단지,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종자연구 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종자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시장 확대, 상품화 역량강화 목적의 종묘기업이 입주를 준비 중임
- 또한 농기계를 연구·개발하는 관련 연구기관과 농기계 기업이 입주하여 조성된 김제 첨단농기계클러스터는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조성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첨단농기계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농기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융합 농기계 개발, 농기계 성능과 신뢰성 평가, 기업체의 장비활용 기술지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김제를 중심으로 종자산업과 농기계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마) 미생물클러스터

- 정읍에 조성된 미생물 및 바이오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중심으로 미생물산업 연구중심거점 형성
- 미생물가치평가센터와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센터가 구축되어 미생물 자원을 재분류하고 균주의 자원화 등 미생물을 활용한 산업화 기능 수행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순창의 장류특구에서는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지원의 거점 기능 부여

바) 지역 혁신거점

- 식품과 관련하여 임실군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순창군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장류사업소, 진안군에 진안홍삼연구소, 고창군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입지
- 축산과학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장수군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남원시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입지

나. 발전거점의 연계와 성과확산

1) 발전거점 육성

가) 농생명 R&D 거점

- 새만금에 조성될 농생명 산업·연구권역의 연구개발 기능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농생명 신기술 연구개발 기능 연계

나) 푸드테크 거점

- 혁신도시의 한국식품연구원,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임실의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읍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계한 식품을 혁신의 소재로 활용하는 푸드테크 거점 구성
- 혁신도시의 연구성과는 벨트를 따라 이전하면서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

다) 바이오 거점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라) 건강장수 거점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장수군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남원시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연계하여 동부권 축산산업과 함께 임실의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한 동물을 매개로 한 건강장수 거점으로 육성

마) 발효미생물 거점

- 농축융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장류사업소 등과 연계한 발효 및 미생물을 테마로 하는 발전거점 육성

2) 거점 연계와 성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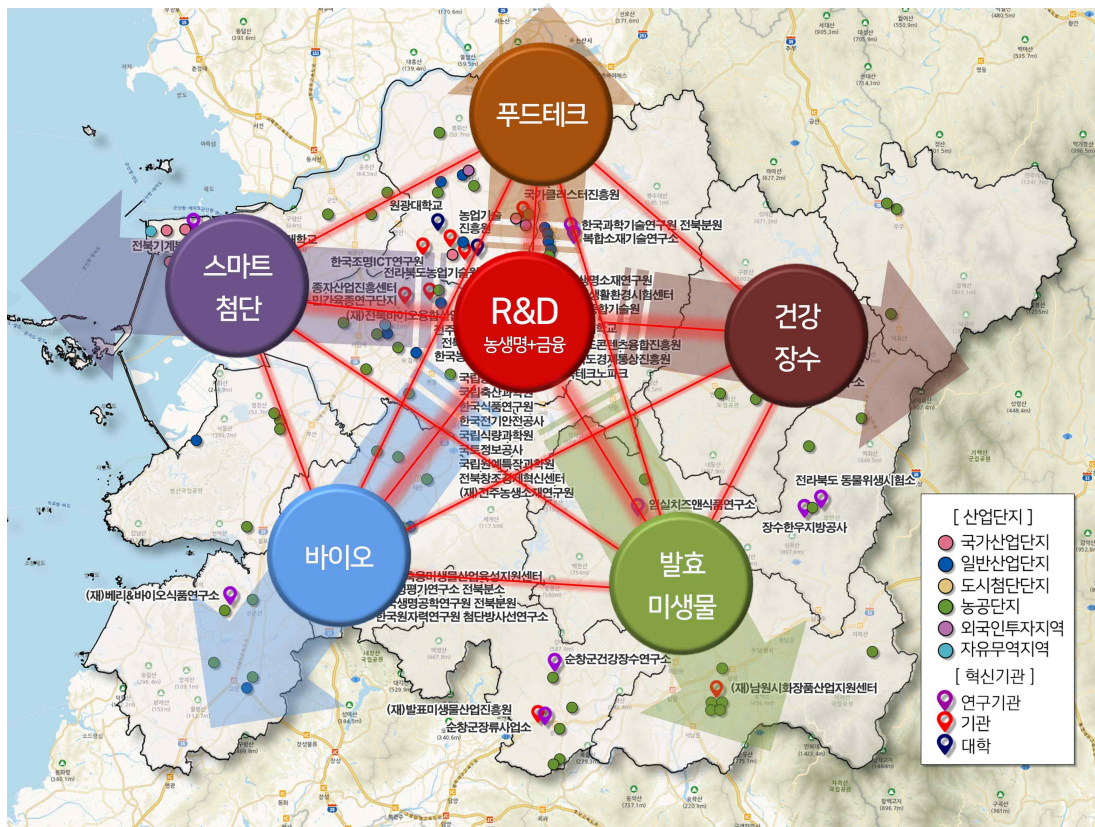
가) 혁신도시 중심 거점 연계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집약하고 이를 주변의 혁신자원과 융합하여 혁신도시가 전북의 융합발전의 핵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의 각 분야별 전문영역을 지역의 혁신자원을 연결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북의 전역과 기능적으로 연계

나) 성과 확산

- 농생명 R&D 거점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북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성장축 형성
- 주요 거점 간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융합발전 효과 창출



[그림 4-2] 발전거점 연계와 성과 확산



분야별 계획

1. 지역경제 활성화
2. 정주환경 조성
3. 지역인재 양성
4. 주변지역 상생발전
5. 스마트시티 구축

V. 분야별 계획

1. 지역경제 활성화

가. 여건 및 잠재력

1) 농생명산업 경쟁력

가) 분석방법

- 분석범위는 농림·축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방과 후방 산업을 포괄하여 설정
 - 농생명산업은 한국산업분류체계상의 농업·임업·어업을 중심으로 하며, 후방산업은 농업에 투입되는 주요 산업군으로 종자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농기계산업을 포함하였음
 - 전방산업은 농업 생산품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식품산업, 미생물산업, 농축산물 및 음식료품 관련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하였음
- 전라북도의 농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분석은 대표성(특화도 및 집적도), 확장성(파급효과 및 산업 간 연계구조), 중심성(네트워크 및 중심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음
 - ‘대표성’은 농생명산업의 특화도·집적도를 토대로 농생명산업수도로서의 위상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화도, 클러스터 지수, 지역성장률시차 분석으로 구성됨
 - ‘확장성’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내 전방 및 후방산업과의 연계구조를 분석하며, 산업연관분석을 수행
 - ‘중심성’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과 타 지역과의 거래관계로부터 형성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며, 사회연결망(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표 5-1] 전북 농생명산업 여건분석 방법

구분	내용	분석방법
대표성	전북 농생명산업의 특화도 및 집적도 분석	총성장차분(TGD), 특화도(LQ), 클러스터지수
확장성	전북 농생명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산업연관 분석
중심성	전북 농생명산업의 네트워크 및 중심성 파악	사회연결망(네트워크) 분석

나) 대표성

■ 특화도 분석결과

- 지역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본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특화도는 1.5884로 전라남도(1.7252), 제주특별자치도(1.702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도내 종사자수 기준 세부산업별 특화도는 농림축수산업(2.811)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전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2023~2027)

후방산업들이 특화산업으로 도출되었으나 동물용의약품과 음식료품 도소매업은 전문화 수준이 낮아 규모화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후방산업은 기타 작물 재배업(3.829), 농업·임업용 기계(3.584), 비료·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2.804)이 특화산업으로 도출됨
- 전방산업은 식품산업(2.149), 산업용 농특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1.576)이 해당됨

[표 5-2]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구성산업별 LQ 지수

구분		사업체 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매출액 기준
후방	기타 작물 재배업	0.413	3.829	2.248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1.447	0.193	0.352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920	3.584	8.77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2.392	2.804	3.849
중심	농림축수산업	3.398	2.811	5.511
전방	식품산업	1.601	2.149	3.453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1.411	1.576	2.176
	음식료품 도매 및 소매업	0.902	0.939	1.025

자료: 통계청(Kosis), 「경제총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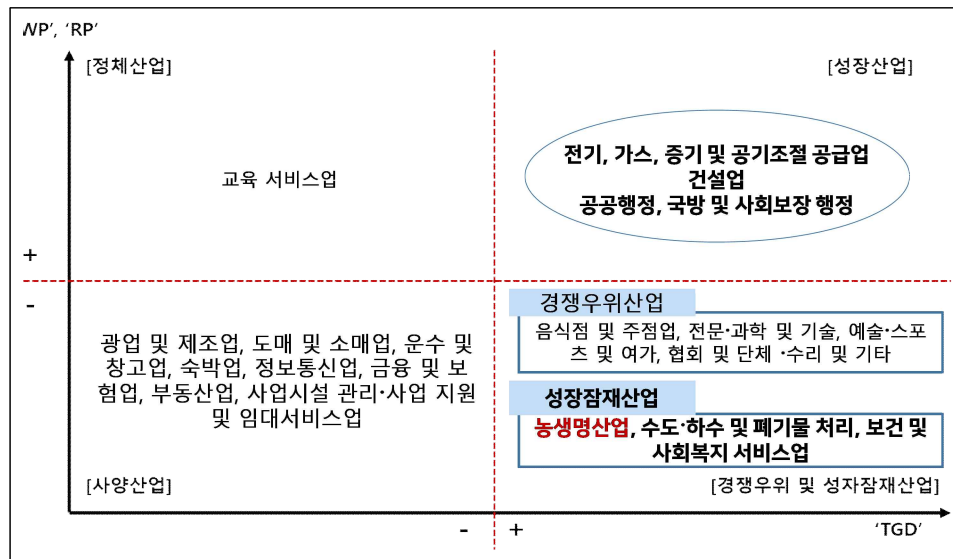
■ 성장가능성 분석결과

- 전북 농생명산업의 지역성장률시차(TGD)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성장잠재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향상 방안이 요구됨
- 경쟁우위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됨
- 농생명산업의 총성장률(TGD)과 잠재력(WP)은 우수하지만 경쟁력이 다소 낮은 성장잠재산업으로 분류되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표 5-3] 전라북도 내 농생명산업 성장가능성 분석

산업구분	TGD	WP	RP'	평가	산업구분	TGD	WP	RP'	평가
농생명산업	+	+	-	성장잠재산업	금융 및 보험업	-	-	-	사양산업
광업 및 제조업	-	-	-	사양산업	부동산업	-	-	-	사양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성장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경쟁우위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	-	성장잠재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	-	-	사양산업
건설업	+	+	+	성장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성장산업
도매 및 소매업	-	-	-	사양산업	교육 서비스업	-	+	-	정체산업
운수 및 창고업	-	-	-	사양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성장잠재산업
숙박업	-	-	-	사양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경쟁우위산업
음식점 및 주점업	+	-	+	경쟁우위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경쟁우위산업
정보통신업	-	-	-	사양산업					

자료: 통계청(Kosis), 「경제총조사」, 2020.



[그림 5-1] 전라북도 기준 전체산업 내 농생명산업 성장가능성 분석결과

■ 클러스터지수 산출 결과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클러스터지수(CI)는 0.9036으로 전국 11위 수준이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집적화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식품산업 이외에 후방산업과 농림어업 산업의 클러스터 요건이 낮아 이들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집적화 수준을 높여가는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표 5-4]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지수 분석결과

지역	클러스터 지수(CI)	순위	지역	클러스터 지수(CI)	순위
전라북도	0.9036	11	경기도	1.7687	8
서울특별시	17.9477	1	강원도	0.3897	17
부산광역시	8.7667	2	충청북도	0.8140	13
대구광역시	3.8826	5	충청남도	0.9627	10
인천광역시	3.1441	6	전라남도	0.8912	12
광주광역시	4.8953	3	경상북도	0.4758	16
대전광역시	4.1440	4	경상남도	0.7666	14
울산광역시	1.1138	9	제주특별자치도	1.9826	7
세종특별자치시	0.6701	15			

자료: 통계청(Kosis), 「경제총조사」, 2020.

다) 확장성

■ 농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전체 2.221(전국 4위), 농림어업 1.786(전국 8

위), 전방산업 2.427(전국 1위), 후방산업 1.981(전국 5위) 수준을 보임

- 전방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북은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방산업 투자 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지역에 해당함
- 농림어업과 후방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구조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작물 또는 생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표 5-5] 지역별 농생명산업 생산유발계수

구분	농생명산업	순위	농림어업	순위	전방산업	순위	후방산업	순위
전북	2.221	4	1.786	8	2.427	1	1.981	5
강원	2.003	10	1.64	16	2.197	10	1.690	17
경기	2.170	7	1.908	2	2.217	9	1.872	12
경남	1.948	13	1.845	4	1.943	14	2.042	4
경북	1.971	12	1.765	9	2.094	12	1.884	11
광주	1.981	11	1.655	14	1.982	13	2.211	2
대구	2.272	2	1.674	13	2.321	6	2.231	1
대전	1.662	17	1.644	15	1.640	17	1.769	15
부산	2.207	6	1.822	7	2.349	5	1.919	9
서울	2.165	8	1.522	17	2.161	11	1.930	7
세종	2.252	3	1.831	6	2.358	4	1.787	13
울산	1.947	14	1.761	10	1.824	16	2.046	3
인천	1.933	15	1.844	5	1.929	15	1.929	8
전남	1.926	16	1.706	12	2.270	8	1.756	16
제주	2.038	9	1.908	1	2.273	7	1.778	14
충남	2.218	5	1.858	3	2.423	2	1.886	10
충북	2.339	1	1.748	11	2.404	3	1.976	6

자료: 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 2015.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8(전국 10위)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농림어업의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0.828)는 전국 10위, 후방산업(0.573)은 14위, 전방산업(0.790)은 7위로 나타남

[표 5-6] 지역별 농생명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구분	농생명산업	순위	농림어업	순위	전방산업	순위	후방산업	순위
전북	0.758	10	0.828	10	0.790	7	0.573	14
강원	0.826	1	0.867	2	0.806	3	0.596	6
경기	0.755	12	0.812	13	0.763	11	0.581	11
경남	0.783	7	0.833	9	0.799	5	0.628	3
경북	0.823	2	0.843	6	0.835	2	0.597	5
광주	0.808	5	0.856	4	0.805	4	0.728	1
대구	0.762	9	0.863	3	0.795	6	0.668	2
대전	0.820	3	0.856	5	0.849	1	0.534	17
부산	0.738	14	0.804	17	0.731	14	0.595	8
서울	0.743	13	0.885	1	0.759	12	0.590	9
세종	0.713	15	0.815	12	0.673	15	0.595	7
울산	0.627	16	0.822	11	0.609	16	0.578	12
인천	0.594	17	0.809	16	0.585	17	0.562	15
전남	0.801	6	0.835	8	0.778	9	0.574	13
제주	0.811	4	0.811	14	0.778	8	0.610	4
충남	0.755	11	0.81	15	0.739	13	0.543	16
충북	0.763	8	0.84	7	0.776	10	0.583	10

자료: 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 2015.

■ 농생명산업의 연계구조

- 전라북도 농림어업의 생산유발효과 중 지역 내부에 발생하는 효과가 7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전방과 후방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5-7] 지역별 농생명산업과 지역내외 유발효과 발생 비중

구분	지역 (생산유발계수)	지역 내 유발효과 비중(A)	순위 (A)	타 지역 유발효과 비중(B)	순위 (B)	구분	지역 (생산유발계수)	지역 내 유발효과 비중(A)	순위 (A)	타 지역 유발효과 비중(B)	순위 (B)
농 생 명 산 업	전라북도(2.221)	67.1%	6	32.9%	4	전 방 산 업	전라북도(2.427)	66.1%	6	33.9%	4
	전라남도(1.926)	72.4%	1	27.6%	9		전라남도(2.270)	72.0%	2	28.0%	8
	충청남도(2.218)	70.3%	3	29.7%	6		충청남도(2.423)	69.8%	5	30.2%	5
	충청북도(2.339)	60.5%	9	39.5%	1		충청북도(2.404)	60.5%	9	39.5%	1
	경상북도(1.971)	69.8%	5	30.2%	5		경상북도(2.094)	70.5%	3	29.5%	7
	경상남도(1.948)	71.2%	2	28.8%	8		경상남도(1.943)	72.9%	1	27.1%	9
	경기도(2.170)	70.3%	3	29.7%	6		경기도(2.217)	70.3%	4	29.7%	6
	강원도(2.003)	64.3%	7	35.7%	3		강원도(2.197)	62.1%	8	37.9%	2
	제주도(2.038)	61.9%	8	38.1%	2		제주도(2.273)	64.0%	7	36.0%	3
농 림 어 업	전라북도(1.786)	76.0%	1	24.0%	9	후 방 산 업	전라북도(1.981)	66.4%	8	33.6%	2
	전라남도(1.706)	73.6%	4	26.4%	6		전라남도(1.706)	74.6%	1	25.4%	9
	충청남도(1.858)	74.1%	3	25.9%	7		충청남도(1.886)	69.6%	4	30.4%	6
	충청북도(1.748)	73.1%	5	26.9%	5		충청북도(1.976)	63.6%	9	36.4%	1
	경상북도(1.765)	71.7%	7	28.3%	3		경상북도(1.884)	66.7%	7	33.3%	3
	경상남도(1.845)	72.4%	6	27.6%	4		경상남도(2.042)	67.8%	6	32.2%	4
	경기도(1.908)	75.2%	2	24.8%	8		경기도(1.872)	72.2%	2	27.8%	8
	강원도(1.640)	71.2%	8	28.8%	2		강원도(1.690)	70.8%	3	29.2%	7
	제주도(1.908)	61.6%	9	38.4%	1		제주도(1.778)	68.0%	5	32.0%	5

자료: 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 2015.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는 감응도 계수(1.021)와 후방연쇄효과를 영향력 계수(1.144)는 모두 1 이상으로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편에 해당함²³⁾
 - 감응도 계수는 후방산업에서, 영향력 계수는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서 1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농림어업의 경우 전방과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1 미만이었음
 - 전방산업에 대한 전방연쇄효과 향상과 농림어업에 대한 전후방연쇄효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산업 육성 또는 생산품 구조고도화 방안 등 모색이 요구됨

[표 5-8]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감응도 및 영향력 계수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기타산업	농림어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기타산업
감응도 계수	1.021	0.926	0.879	0.755	1.101	1.303
영향력 계수	1.144	0.953	0.933	1.268	1.035	0.967

자료: 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 2015.

라) 중심성

■ 지역 간 거래구조

-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거래량이 많은 상위지역에 해당하며, 주요 거래지역은 인접 지역(전남·충북·충남 등)과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등으로 볼 수 있음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으로 순유입은 전라남도(-4,798억 원), 인천(-1,488억 원), 충남(-1,369억 원) 순으로 많고, 반대로 순유출 지역은 충북(2,628억 원), 경기(2,454억 원), 서울(1,577억 원) 순이었음

[표 5-9]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거래량 차이

지역	거래량 차이(백만 원)	지역	거래량 차이(백만 원)
전라북도↔서울	157,686	전라북도↔경기	245,386
전라북도↔부산	5,078	전라북도↔강원	122,714
전라북도↔대구	96,531	전라북도↔충북	262,823
전라북도↔인천	-148,849	전라북도↔충남	-136,921
전라북도↔광주	38,580	전라북도↔전남	-479,811
전라북도↔대전	38,050	전라북도↔경북	29,198
전라북도↔울산	-50,579	전라북도↔경남	-41,447
전라북도↔세종	21,384	전라북도↔제주	22,132

주: 거래량의 차이가 음(-)의 부호로 나타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전라북도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 2015.

23)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이 받는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며, '영향력 계수'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체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를 의미함

■ 생산유발 중심성

- 농생명산업의 지역 간 생산유발계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내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은 타 지역의 연결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농생명산업 연결중심성은 0.801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외향중심성은 0.5510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루어지는 내향중심성은 0.2500으로 외향중심성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며, 타 지역 농생명산업의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의 매개 중심성은 0.1538로 낮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의 연결망 구축에 있어 중계자로서 기능은 다소 부족함을 의미함

[표 5-10]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생산유발계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지역	연결중심성 (내향)	연결중심성 (외향)	연결중심성 (전체)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서울	0.4450	0.0060	0.4510	0.6154	0.0000	1.0000
인천	0.1790	0.2980	0.4770	1.0000	1.8538	1.0000
경기	0.2310	0.4840	0.7150	1.0000	1.8538	1.0000
대전	0.1430	0.0960	0.2390	1.0000	0.1538	0.9385
세종	0.4070	0.0380	0.4450	0.9412	1.5000	1.0000
충북	0.3810	0.2670	0.6480	1.0000	1.8538	1.0000
충남	0.1950	0.4850	0.6800	1.0000	1.8538	1.0000
광주	0.2840	0.0170	0.3010	0.9412	0.0000	0.9385
전북	0.2500	0.5510	0.8010	1.0000	0.1538	0.9385
전남	0.1530	0.5990	0.7520	1.0000	0.1538	0.9385
대구	0.4340	0.0650	0.4990	1.0000	0.1538	0.9385
경북	0.2050	0.5330	0.7380	1.0000	0.1538	0.9385
부산	0.1960	0.0660	0.2620	1.0000	0.1538	0.9385
울산	0.1500	0.1060	0.2560	1.0000	0.1538	0.9385
경남	0.1290	0.4030	0.5320	1.0000	0.0000	0.8193
강원	0.2700	0.1980	0.4680	1.0000	1.8538	1.0000
제주	0.2650	0.1050	0.3700	1.0000	0.1538	0.9385

주: Gephi 0.9.2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중심성 지수의 값이며, 연결중심성은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를 가중치로 적용

자료: 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 2015.

2) 농생명산업수도 육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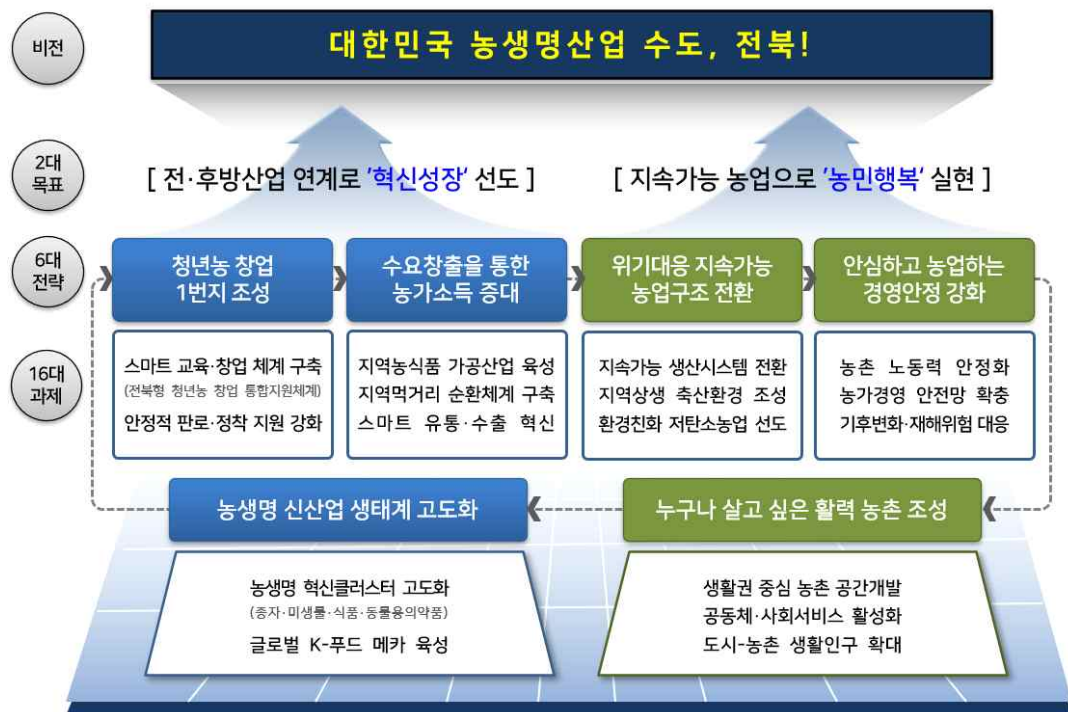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 전북은 국가의 식량기지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사회적·산업적 여건 변화로 취약해지는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해왔음

- 식품·종자·미생물·농기계·첨단농업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를 통해 농생명 산업을 확장해가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전략을 추진함
- 민선 8기에는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농생명산업수도’를 새로운 농정목표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해가는 발전방향을 설정함

나) 비전 및 추진전략

-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업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전환하여 ‘농민행복’을 실현해가는 방향의 정책목표를 설계
- 농생명산업수도로써 미래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과 16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 및 육성 방안을 재편하여 추진해갈 계획



[그림 5-2] 농생명산업수도 비전 및 전략

3) 금융산업 여건

가) 강점 요인

- 산업적인 특성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에 대한 예비적 동기를 강화시킴으로써 연금이나 보장성 저축의 수요가 증가되어 금융산업의 다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이 급속

하게 성장하게 됨

-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운용업 중심 특화 금융지 후보로 선정하여 특화금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전라북도 지역적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금융산업은 도 단위 지역에서 금융산업 기반이 가장 우수하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대형 기관 투자기관이 입지하여 금융 기반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갖추

나) 기회 요인

- 산업적인 특성에서 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서 다양한 대체투자펀드로 투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상품 다양성으로 종합자산운용사 중심에서 특화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구조가 전환되었으며, IT와의 접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증시몽로 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ESG 투자, 사회책임투자 등의 강화로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하는 투자 형태 증가로 기존의 수익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수익 모델이 요구됨
- 전라북도 지역적 측면에서 새만금개발, 재생에너지단지 등 지역 개발형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 기회가 많으며, 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비수도권에서 지역 단위의 금융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음

다) 약점 요인

- 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다 보니 소규모의 자산운용사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수익률 및 규모 측면에서 기존 대형 금융기관에서 분사된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입지적으로 서울에 집중되는 등 편향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및 동기 요인이 취약하여 국제적인 금융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전라북도 지역적 측면에서 금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미들·백오피스 기능이 취약하고 IT 인프라 및 금융 데이터 접근성이 낮아 금융기관의 유치 가능성이 낮으며, 금융 전문학과 부재로 특화 전문인력 양성이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

라) 위협 요인

- 산업적인 측면에서 IT 기술 발달로 비금융기관의 금융산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IT 분야 인력 충원 경쟁 심화로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융중심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
- 전라북도 지역적 측면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금융 관련 지원 서비스 기반 역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뚜렷한 인센티브 확보 없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

4) 잠재력

-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금융 인프라를 평가한 결과,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북 혁신도시와 대구 혁신도시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특화금융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자산운용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인프라를 제외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를 유치할 경우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서민금융을 지원하여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5) 전북 산업 여건

가) 전략산업 및 지역적 여건

- 전라북도는 지난 5년(2017~2021) 동안 사업체와 종사자가 증가하였으나, 서북부 지역 5개 시군의 집중도가 커 지역 간 불균형이 큰 특성
- 전라북도는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전국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은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으로 구성되며, 타 산업 대비 비중이 크고 빠르게 성장
- 전라북도 전략산업의 비중은 미래수송기계, 에너지신산업의 순서로 크고 성장률(2010~2021)은 정보통신융합, 스마트농생명의 순서로 큼
- 전라북도 산업단지는 90개로 전국 대비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비중이 크며, 주력산

업 침체에 따라 생산, 수출이 2021년까지 정체 또는 감소 추이를 나타냄

- 전라북도 산업은 서북권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 주력산업 침체에 대응한 미래수송, 에너지신산업, 정보통신융합, 스마트농생명 관련 고도화가 필요

나) 전북의 6대 혁신성장 산업 연계 발전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북은 국가 차원의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6대 혁신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추진 중
 - * 국가 중점 육성산업 :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 이차전지, 에너지, 섬유, 화학, 바이오·헬스, 신산업 등
 - * 전북 6대 혁신전략산업 : 에너지신산업, 미래 수송·기계산업, 첨단융복합소재산업, 라이프케어사업, 스마트농생명산업, 정보통신융합산업
-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능 고려시 6대 혁신전략산업 중 스마트농생명산업, 정보통신융합, 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와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사업 추진 여건 양호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수도' 도약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발전
 -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육성
 - 종자·미생물·식품·동물의약품·생명소재 등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 스마트 그린바이오 산업 허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활성화
 - 농생명산업 연구·지원 관련 혁신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
- 농업을 기반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기능 강화
 -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명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 추진
 -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과 미래세대 육성
 - 농생명산업의 전·후방산업 연계와 다각화를 통한 가치사슬 강화로 시장경쟁력 제고
 -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과 디지털 융복합화 추진을 통한 'K-푸드 메카' 육성
-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 금융기관을 위한 여러 유형의 미들·백오피스 서비스 제공
 - 기관투자자 등 자금 공급원을 확보하여 금융 자본 공급 확보
 - 전문 인력 확보 위한 금융 전문 인력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운영(지역인재 양성 부문)

-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 비서북권 산업·농공단지 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 전북 6대 혁신성장산업의 에너지효율화 설비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2) 전략

■ 전북 특화 농생명산업 고도화

-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로 확장 및 기업육성 등 산업화 추진
-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공유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 곡류분말가공 산업화 기술개발 및 지원센터 구축과 경쟁력 강화
-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계 클러스터 조성
- 천연물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및 융복합화 거점 구축

■ 농생명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농생명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및 운영

■ 농생명산업 발전 기반 육성

- 농생명 특화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여 필요한 인재 육성
- 농생명산업의 기반으로서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소득 지원

■ 금융산업 기반 조성

-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금융 산업의 핵심 공간 조성
- 투자 개념의 펀드를 운용하고 지역 공공투자 주체 및 금융산업 전반적 지원 기구 설치
- 글로벌 금융 투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역인재 양성 부문)

■ 산업기반 고도화 및 전문화

- 이전공공기관 연계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장기반 강화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친환경 산업기반 조성으로 역량 강화

다. 사업계획

1)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부각과 함께 종자산업 가치 높아지고 있음
- 종자는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과 융복합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춘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추세임
- 글로벌 수준의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자기업 성장지원 등을 수행할 민간육종연구단지의 규모 확대 및 집적화 방안이 요구됨

나) 사업개요

- 위치 : 김제시 공덕면·백산면 일원 (김제공항부지 156ha)
- 사업기간 : 2023년 ~ 2031년 / 9년
- 사업비 : 115,200백만 원(국비 95,300, 지방비 17,900)

다) 사업내용

-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종자생명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스마트 원종단지 및 종묘단지, ICT 육종 연구개발 시설 등) 확충 및 관련 기업지원(국제종자박람회장, 스마트 기업단지 등) 조성
- 스마트종자 R&D 추진
 - 종자기업들이 공동활용 가능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첨단온실구축(1개소),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별 스마트육종 설비 도입
-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 종자 생산·유통을 체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화된 종자 가공·처리시설
 - 종자 선별 및 전처리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공동활용형 종자 가공처리시설 구축

라) 기대효과

- 신육종분야 기술력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으로 신기술, 고부가 종자개발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내 종자산업의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종자산업 성장의 기반 마련

2)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국가 차원의 육성 필요
- 전통장류 품질·안전 확보 등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전통장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정개발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정읍시 신정동 일원(연구개발 특구), 전북 순창군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6년)
- 사업비 : 계획기간 62,157백만 원(국비 46,000, 지방비 16,157)
 - 총사업비 72,990백만 원(국비 52,500, 도비 5,098, 시·군비 15,392)

다) 사업내용

-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 물류 및 보관창고 시설, 지원시설(공동장비실, 회의실, 강당), 공장
 - 시제품 제작 등 공장형 개별 입주 공간
-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 지역별 전통장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표준생산모델 개발 및 실증
-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입주 공간 및 시제품 테스트 공간 등 조성

라) 기대효과

- 미생물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으로 화학농약과 항생제 사용 저감과 축산악취 감소 및 축분 자원순환 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대
- 장류미생물 특화도시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 미생물산업 관련 기술 집적과 기업 역량 고도화로 미생물산업 선도기업 육성

3)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복합거점 구축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생명공학기술 등을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안전성·기능성 기반의 천연물 소재를 확보를 위한 산업화 거점이 필요함
- 그린바이오 산업은 기능성 천연물을 소재로 사용하며,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 지표 물질이 향상된 소재 분석·공급을 통한 산업지원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4년
- 투자규모 : 19,000백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11,400, 기초계정 7,600)

다) 사업내용

-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센터 설립
 - 그린바이오 천연물 소재화 R&D 센터, 천연물 소재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센터
- 소재융합 연구개발·실증 및 데이터 수집
 - 첨단 기술 개발 단계별 기술 발굴, 바이오 소재의 실 적용 가능성 연구, 데이터 수집
- 차세대 바이오 융합 소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육성 및 미래경영인 양성
- 스타트업 성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첨단 바이오·융합 기술의 전시 및 체험 공간 조성

라) 관계 부처의 역할

-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마) 기대효과

- 바이오융합분야의 첨단산업을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술 확보 및 산업활성화로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성장 가능성 확보

4) 곡류분말가공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은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쌀의 주산지이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시·군 출연 연구기관 등 쌀 생산과 가공 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기존의 쌀 등 곡류 관련 연구는 품종·분말·성분의 특성, 분말을 활용한 단순 가공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산업현장 활용에 한계 극복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 사업비 : 60,000백만 원(국비 48,000, 도비 12,000)

다) 사업내용

- 쌀 및 곡물 가공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H/W)
- 쌀 및 곡물 가공 기술 실용화 연구
- 쌀 및 곡물 가공업체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 쌀·곡물 가공소재 및 제품 체험장, 홍보전시관 구축(H/W)

라) 관계 부처의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곡류분말가공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국비 지원

마) 기대효과

- 쌀 및 곡류 가공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소재 제품의 다양화로 신소재 개발 산업화 및 소비 확대
- 곡류분말가공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으로 쌀 및 곡류 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으로 가공사업 활성화 기여
- 식량작물 이용 확대를 위한 고부가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지원

5) 특화작목 산업화 클러스터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지역농업의 특화작목 중심의 품목별 장·단기 기술교육 필요
- 고품질·차별화된 경영과 전문기술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 지역품목별 경쟁력 강화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내
- 사업기간 : '23년 ~'27년(5개년)
- 사업비 : 3,000백만 원(국비 1,500, 도비 1,500)

다) 사업내용

-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 지역특화작목 스마트팜 제어,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특화작목 맞춤형 재배·교육 프로그램 현장실증 시스템 구축 등
- 특화작목 연계 농산물종합가공 시스템 구축
 - 품질검사실, 디지털화, 상품개발실, 소비자 평가실 등 확충(HACCP 기준 적용)
 -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 상품화, 컨설팅, 창업교육 등
- 농업인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전문교육

라) 관계 부처의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특화작목을 활용한 산업화 클러스터 기반 구축, 국비 지원

마) 기대효과

- 지역별 특화작목을 활용한 상품개발·유통확대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화 추진이 가능하며, R&D 추진 및 차별화된 혁신성장동력 창출
- 특화작목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으로 융복합 상품개발 지원을 통한 농촌-기업 상생 촉진

6)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정보통신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농기계의 지능화 발전
- 첨단농기계 성능·안전성 기술개발 실증을 통한 기술 자립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의 테스트베드 조성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김제시 광활면)
- 사업규모 : 테스트베드 95ha, 실증센터 5ha
- 사업기간 : 2023년~2026년(4개년)
- 투자규모 : 109,200백만 원(국비 73,200, 도비 18,000, 시군비 18,000)

다) 사업내용

- 실증 지원, 검인증 지원, 빅데이터 활용 지원
 - 지능형 농기계 성능·안전성 확보 실증, 해외 실증인프라 연계 실증 지원
 - 지능형 농기계 검인증 체계 및 수출 경쟁력 맞춤형 품질·성능 평가 체계 개발
 - 기술 및 제품 보완을 위한 농기계 기술 지원, 농기계업체의 기술·제품 조기상용화 지원
- 실증지원센터 조성
 - 지능형 농기계의 실증 및 검인증 지원 위한 종합관리동, 격납고, 검인증 분석실 구성
- 테스트베드 조성
 - 농기계 테스트 수행, 농기계 업체의 작물 화용 실증 요구 시 전주기 테스트

라) 관계 부처의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실증단지 운영방안 마련 및 주관, 예산 지원

마) 기대효과

- 새만금농지를 활용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으로 고품질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
- 첨단농기계 기술개발 실증을 통한 기술 자립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7) 간척지 농업 연구 기반 확대 지원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 전쟁 등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
- 우리나라는 국가경제력 대비 식량안보지수(GFSI)가 32위(2021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대책 마련이 시급
-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고 수입 대체 고품질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첨단농업연구단지
- 규모 : 100ha
 - 광활시험지 기존부지(18 조성) 20ha + 인접한 신규 연구부지 80ha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
- 사업비 : 계획기간 15,093백만 원(국비 15,093) / 총사업비 16,693백만 원(국비 16,693)

다) 사업내용

- 새만금간척지 5공구에 농업연구동 신축 및 연구부지 확대 조성
 - 시험포장, 간척지농업연구동 및 기타 부속건축물
 - 수입대체 국산종자 개발·생산, 간척지를 활용한 첨단농업기술 개발·실증 시설 구축

라) 관계 부처의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간척지 농업 연구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

마) 기대효과

- 간척지 토양에 적합한 품종 연구 및 실증을 통한 식량자원 생산 및 식량안보 안정성 확보
- 기후변화, 친환경 등 국제적 수요에 적합한 생산기술 연구를 통한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수입대체 농산물 생산기술 확보
- 새만금 신항만 및 배후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새만금을 첨단농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농생명 기지로 육성

8) K-푸드테크 산업기반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 산업의 디지털화, 제조 서비스 간 융합의 가속화, 저탄소화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
- 지역에 특화된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성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푸드테크 신기술 도입 및 기반 조성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주시(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사업비 : 240,000백만 원(국비 168,000, 도비 72,000)
 - 총사업비 300,000백만 원(국비 210,000, 도비 90,000)

다) 사업내용

- 대체육류산업화센터 구축
 - AI기반 식물성 대체단백질 연구개발, 생산, 상용화 지원 시설·장비 구축
- 푸드테크 데이터 연구
 - 식품 공공데이터 생성·연계·통합 및 표준화, AI 학습모델 개발 및 실증연구
- 푸드테크산업화 플랫폼 구축
 - 식품정보 디지털전환에 따른 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모델 실증 및 지원센터 구축

라) 관계 부처의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산업기반 조성 추진 및 예산 지원

마) 기대효과

- 민간 식품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빅데이터 AI 플랫폼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제품의 기술개발, 생산, 소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 기대
- 지역에 특화된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함으로써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유망 식품산업 육성 및 관련 일자리창출

9)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eTech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으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 트렌드 확산에 반려동물 헬스케어, 라이프케어 등 전복에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연계한 발전방안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23~2027년(5개년)
- 투자규모 : 69,300백만 원(국비 40,100, 도비 15,365, 시군비 13,835)

다) 사업내용

-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농생명 혁신기관 참여를 통한 클러스터화 추진 및 R&D 역량 강화
-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 발전 추진
 - 전주시(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익산시(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김제시(펫푸드 친환경 생산·제조), 임실군(복합 문화공간, 라이프), 정읍시·순창군(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연계 특화 발전)
- 건강기능성 기반의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 펫푸드 생산, 가공, 물류, R&D 벨류체인, 펫코노미 등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
-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건강한 반려동물 복지증진 서비스 산업화 구축

라) 기대효과

-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 확대를 통한 관련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특화도시로 발돋움

10)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차원의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 농생명·바이오 R&D 혁신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여 기술·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위원회 방식 도입 필요

나) 사업개요

-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참여주체 : 도내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행정기관, 대학 등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
- 사업비 : 800백만 원(도비 800)

다) 사업내용

-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 지역 현안 및 핵심 분야별 정보교류 등 농생명·바이오 융합 네트워크
 - 전북 특화 농생명 분야 신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분과 운영
 - 농생명 분야 지역 현안해결형 공동 R&D사업 발굴 및 기술협력 추진
 -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선행 연구개발(R&D) 추진
- 기능 및 역할
 - 총괄기획위원회 : 기관간 현안 및 성과, 추진단 운영 현황 등 정보공유, 신규사업 기획방향 설계 및 신규 사업 아이템 선정
 - 자문위원회 : 분과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수행

라) 기대효과

- 전북도내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차원의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북의 농식품·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및 기업 육성 기여

11)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20.9.21)’을 발표하고, 핵심기술 기반의 산업생태계 확장을 추진
-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핵심거점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익산시에 건립 중이며, 기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나) 사업개요

- 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1(함열농공단지)
- 사업규모 : 부지 28,000㎡ / 건축 연면적 7,252㎡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총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업비 : 21,871백만 원(국비 21,871) / 총사업비 25,595백만 원(국비 22,319, 지방비 3,276)

다)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
 - 건물 1동(7,252㎡) : 벤처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미디어랩실, 운영지원시설 등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 그린바이오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 도내 연구·지원 기관과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 및 시설·장비 활용 및 공유 지원
 - R&D-시제품-스케일업/투자유치의 전주기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라) 기대효과

-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시설 투자 및 기업입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전라북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
- 농생명산업 주체 간 유기적 협력기반 조성을 통한 그린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혁신성장 거점 역할

12) 공공기관 기술이전 통합지원 센터 설치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은 전문적 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농생명 관련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기관의 기술은 각 기관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일화된 통로가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내
- 사업기간 : 2025년 ~
- 사업규모 : 비예산

다) 사업내용

- 공공기관 기술이전 통합지원센터 설치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내에 기술이전 통합지원센터 설치
- 현장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기술사용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제품고급화 컨설팅을 통한 현장실증 지원
- 공공기관 우수 기술이전
 -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도내 특화산업 관련 유망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 현장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시제품 검·인증 지원 및 표준화 요소 발굴
 - 이전기술에 대한 수요 및 활용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실증한 시제품 연계한 종합검정, 안전검정, 임의검정 등 지원을 통한 기업 제품의 고도화 지원

라) 기대효과

- 기술이전 업무의 통합 및 단일화로 기술을 이전받는 민간업체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13)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등 농업생산에 있어 환경적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국내 농업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주산지에서 재배 중인 농산물의 재배적지가 올라가고,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으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사업비 : 8,220억(국비 3,940, 도비 2,280, 시·군비 2,000)

다)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발굴 및 안정생산 기술 연구
 - 신소득작물 연구개발 및 농가보급 지원
 -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예방 종합관리과 고품질 안정생산 및 ICT 기반 편의성 향상
-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연구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및 알림방법 등 서비스 개선
 -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와 방재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전라북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감축 이행 평가

라) 기대효과

- 기후변화 관련 농업정보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 능력 향상
-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글로벌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대체작물을 발굴 및 신소득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수단 이행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량 산정 및 탄소중립 대응 자립 기반 마련

14)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 조성 및 수용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지역주도형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체험관광의 기반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및 인적자원 교류로 협력적 농촌 체험관광 기반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가능성과 스마트 원격 업무의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과 연계한 위케이션 수요와 농촌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나)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 농촌마을
 - 전주 원색장마을, 익산 산들강웅포마을, 정읍 사교마을, 남원 동편제마을, 김제 벽골제마을, 완주 경천애인마을, 진안 외사양마을, 무주 무풍송지마을, 장수 용신마을, 순창 피노마을, 고창 강선달마을, 부안 청호수마을
- 사업규모 : 농촌 체험관광 기반시설 및 위케이션 지원 시설 구축, 시설운영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
- 사업비 : 10,000백만 원(지방비 10,000)

다) 사업내용

- 이전 공공기관 홍보 및 MOU 체결
 - 이전 공공기관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지 홍보와 워크숍 및 위케이션 협력 지원
- 농촌관광 및 위케이션 시설 조성
 - 농촌마을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여가 시설(숙박, 식당, 운동시설, 농촌체험 활동) 조성
 - 위케이션 공간 구축을 위해 업무환경 및 지원시설 조성
- 시설운영 인프라 구축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인적자원 교류 협력 등

라) 기대효과

-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시설운영 인프라 구축 운영으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 마을자치연금 연수원 설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로 인해 지역공동체 활동이 저조하게 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상실함
 -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고 해도 충분한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마을자치연금의 도입을 검토하는 마을이 증가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익산 성당포구마을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
- 사업비 : 440백만 원(지방비 400, 민자 40)

다) 사업내용

- 마을자치연금 연수원 설립
 - 익산 성당포구마을에 설립할 마을자치연수소를 기능적으로 확대
 - 농촌지역의 노후 소득확대를 위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할 기관 설립
- 마을자치연금 연수원 운영
 -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참여방법 등 교육
 - 마을자치연금 관련 교육자료 제작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 농촌마을의 마을자치연금 도입의 확대로 경제적 여유 확대
- 전국적인 연수인력의 도내 방문으로 지역의 경제적 효과 발생

16)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채택되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임
- 연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지역 내 규모 있는 공적 투자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 내 자산운용 시장을 확대하고 협력을 통한 기금운용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적 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 확보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주시 만성동 1253-1, 1254번지
- 규모 : 연면적 25,000㎡,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11층
- 사업기간 : 2023 ~ 2026(4년간)
- 투자규모 : 82,000백만 원(전북신용보증재단 82,000)

다) 사업내용

- 전북금융타운 및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 전라북도 금융 및 국민연금공단 연관 기업 대상 입주 공간 확보 및 업무 편의시설 제공
- 중소기업인 복합 클러스터 구축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관련 기관 집적으로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 예비창업·창업→보증→컨설팅→재기지원의 성장단계 강화와 중소기업인 특화 금융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지역밀착형 관계형·포용금융 지원
 - 금융 및 비금융을 아우르는 관계형 경영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 중소기업인 지원 정책자금 및 이차보전자금 집적화 및 전산화를 통한 보편적 포용금융 확대 ⇒ 금융기관의 담당기능 입점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당 자금의 검수 및 집행 전산화

라) 기대효과

- 추가적인 공적 투자기관의 전북 유치로 인해 금융혁신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17) 전북 투자 전용 금융기관 설립 및 유치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의 지역은행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은행취급기관 등은 대출 등의 간접 금융 형식에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취약 계층 대상의 금융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정지원 중심의 사업이 우선되어 수익성 설계 및 민간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인구, 경제·산업, 일자리, 교육·문화 등 부문에서 타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
- 전북 혁신도시 내 추가적인 공적 투자기관 유치에 다른 특화 투자영역 노하우 공유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투자 자산 및 상품에 대해 공동투자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1,500백만 원(국비 600, 지방비 400, 민자 500)

다) 사업내용

- 지역개발금융 법인 설립
 -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금융중개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은행, 신용협동조합, 융자 펀드나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자금 유입 역할 수행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펀드 자산운용사(AMC) 집적화
 - 새만금을 포함한 전라북도 수익형 부동산 및 인프라 시설들의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임대, 관리, 운영 등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이익 창출과 배분을 추구하는 부동산간접투자 시장 활성화
 - 리츠와 펀드의 조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법인세 등) 한시적 면제 또는 감면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 지역 개발을 투자 상품으로 하는 금융 창업 기반을 확보
- 수익성을 담보하는 투자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 재정 투입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개발 재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지역 개발 활성화 도모

18) 전북금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에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원서비스 매칭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력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적인 규모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직접 의사소통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공적 투자기관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투자 다양성, 기회 확보 측면에서 중소규모 자산운용사에게 위탁 운용 기회를 부여할 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금융산업 전반적인 정책 및 사업들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혁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25 ~ 2027(3년간)
- 투자규모 : 40,000백만 원(도 40,000)

다) 사업내용

- 전북금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등 기반 업무 수행(전라북도 금융산업 조사 및 연구, 금융도시 기반 조성, 금융기관 유치 지원 및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수행, 금융인력 양성금융인력 양성)
- 조직 구성
 - (리서치팀) 자산운용분야 특화 연구 수행, 자산운용사 및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 (금융산업 육성팀) 교류 기회 확대 및 전북 유치 금융기업에 대해 행정적 서비스 제공
 - (인프라 개선팀) 금융산업 육성 초기에 필요한 경영 인프라, 정주여건 인프라 기획·조성
 - (금융인력양성 지원팀)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대외홍보팀) 기업 유치 및 전북 금융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업무 수행
- 자산운용 투자유치 기획단 운영
- 부동산, 에너지 등 대체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나 대형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는 사모펀드 취급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한 기획단 운영

19) 금융데이터 활용 핀테크 창업 지원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분석 항목 중에서 IT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계 사업 발굴 및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함
- 금융 핀테크 영역 중에서 미들오피스, 자산관리, 리서치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을 적용할 수 있는 핀테크산업 육성 R&D 사업 발굴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혁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25 ~ 2027(3년간)
- 투자규모 : 45,000백만 원(국비 25,000, 도 10,000, 기업 10,000)

다) 사업내용

- 금융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활용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들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 추진
 - 국민연금 빅데이터센터의 국내 금융데이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내 부동산 정보 등을 1차 데이터로 하여 다른 빅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
 - 금융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DB화하여 자산운용의 신시장 개척
- 전북형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 금융데이터를 다용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접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라) 기대효과

-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디지털 금융 관련 신규 기업의 창업 유도
- 연기금 및 국토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거점 인프라 조성을 통해 디지털 금융 관련 기업 유치로 차별화된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

20)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체 원리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과를 나타내면서 사회적경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경향도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을 이끌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및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한 완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핵심리더, 현장활동가, 전문가, 종사자 등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 조성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5부지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 사업비 : 34,600백만 원(국비 34,600) / 총사업비 35,000백만 원

다) 사업내용

-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 강의실, 연구시설 등
- 교육·연수 플랫폼 운영

라) 기대효과

- 전국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로 자본시장 한계의 부분적 해소
-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해 방문한 교육생 및 연수생의 전라북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21) 디지털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독서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상호협력 필요
 - 출판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출판과 함께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도서관 확충 등 도서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전주시 협력 필요
- 디지털 기술 및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인터넷의 일상화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출판산업은 새로운 독서문화와 비즈니스가 되고 있음
-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출판산업의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준비로서 디지털 출판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주시 중양동2가 26-1, 고사동 52, 중양동4가 36-2
- 사업기간 : 2024 ~ 2028년(5년)
- 사업규모 3개 건물 리모델링 후 활용
- 사업비 : 26,500백만 원(국비 26,500) / 총사업비 : 32,700백만 원(국비 32,700)

다) 사업내용

- 디지털출판박물관
 - 출판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 서점 및 도서대여점 운영, 출판박물관 (고대~현대~미래)
- 디지털출판센터
 - 진흥원 업무시설 및 혁신지원공간으로 활용, 북카페/출판 전시 등 열린문화공간 조성, 창업 및 기업보육 시설 조성
- 디지털출판아카데미
 - 디지털 전환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활용, 교육행정시설 및 문화시설 구축, 디지털 출판 인재교육 양성시설, 디지털 출판 R&D 지원시설

라) 기대효과

-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가 위치한 출판·기록 문화의 중심지로 위상 제고

22)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요구에 따라 디지털,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전라북도 주력산업의 대응이 요구
- 전라북도는 산업 규모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작고 디지털, 친환경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 부족으로 산업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내 6대 혁신성장산업 기업 소재지
 - 6대 혁신성장산업 : 에너지신산업, 미래 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간)
- 투자규모 : 12,000백만 원(국비 6,000, 지방비 6,000)

다) 사업내용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하여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 및 구축 지원
 - 생산공정, 에너지, 오염물질, 재난·재해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디지털화 촉진
 - 국민연금공단 연계 디지털 기반 재무 관리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디지털 기반 재고관리, 재무, 금융, 정보보안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디지털화 지원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의 친환경화 촉진 지원
 - 에너지 저감 설비(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및 에너지 효율과지원
 - 6대 혁신성장산업 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화 촉진을 통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확대 등으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와 지역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산업 활력 제고

23) 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경제활동의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서북권 집중이 강화하면서 불균형 발전 지속
 - 서북권은 전라북도 사업체의 73.9%, 종사자의 77.1%가 집중
-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을 포함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거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
 - 권역별 산업단지 수: 서남권 22개(일반 4, 농공 12), 동부권 27(일반 1, 농공 26)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 : 22개 산업단지(일반 6, 농공 16)
 - 전북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 27개 산업단지(일반 1, 농공 26)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간)
- 투자규모 : 40,000백만 원(국비 25,000, 지방비 15,000)

다) 사업내용

- 비서북권 산업·농공단지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
 - 비서북권 산업·농공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략산업 창업 및 입주공간 조성
 - 입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 비서북권 산업·농공단지 입지경쟁력 강화 지원
- 비서북권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의 낙후지역인 비서북권의 산업·농공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략산업 창업 및 입주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제 활성화
- 비서북권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대와 입주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24)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선도모델 구축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의 산업단지는 91개에 달하며, 산업단지별 특성과 활성화 이슈가 다양하여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행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
- 디지털트윈 거점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스마트 관리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지경쟁력 강화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내 90개 산업단지(국가 6, 일반 23, 도시첨단 1, 농공 60)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간)
- 사업비 : 12,000백만 원(국비 6,000, 지방비 6,000)

다) 사업내용

-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기반 전라북도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선도모델 플랫폼 구축
 - 전라북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DB 구축(도로, 건축물,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사무소 등)
 - 전라북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DB 구축(기업명, 업종, 가동여부, 입주업종, 오염물질 배출 등)
 - 전라북도 산업단지 정비사업 추진이력 및 상태 DB 구축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통계DB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선도모델 운영
 - 구축된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선도모델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추진
 -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산업단지 공모사업 추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라) 기대효과

- 디지털트윈 기반 전라북도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산시설 고도화와 데이터 및 자원 등의 공유로 입주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원자재 비용 절감 등 전라북도 혁신기관과 연계한 산업·기업의 경쟁력 확보
- 디지털트윈 등 미래형 신기술의 실증과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기업 유치와 창업 확대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의 경쟁력 창출

25)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ESS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 및 운영 중에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나 기술적 문제에 대응한 대책이 부족함
- 신재생 발전설비(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 실증설비 구축·운영으로 안전기준개발과 통합관리시스템 연동 원격 검사체계 개발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년)
- 사업비 : 471억 원(국비 266, 도 18, 완주군 82, 민자(공사) 105)

다) 사업내용

- 평가센터 시험설비 구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2022)
- 태양광 연계 ESS 안전성 평가 인프라 및 관제실 구축(2023)
 - 시험용 실증설비 구축과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 관제실(사무동) 설계 및 구축
- 수소연료전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2024)
 - 태양광-ESS-수소연료전지 통합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실증
 - ESS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 인증용 표준설비 구축
-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 ESS 원격 안전 진단기술 개발 및 실증(2025)
 -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 신재생 연계 ESS 고장패턴 분류 및 안전진단
 - ESS 6대 안전기준 제도화 및 ESS 평가센터 활용 사업화 수립

라) 기대효과

- 신재생과 ESS의 통합 운영에 대한 쏘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안전체계 확보
- 완주군 테크노밸리 산단에 UPS 위험성 평가 실증 설비와 함께 전기안전 클러스터 구축

26) 대용량 · 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장치)실 화재 시 ‘카카오 대란’과 같은 상존 위험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안전인증, 시설기준과 검사대상 제외 등 안전 규정이 미흡함
-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원 장애 상황에서 장비나 시설의 작동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고장인 경우에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음
- UPS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함
-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이 필요함
- 최근의 데이터 플랫폼 시장에 맞춰 UPS 안전인증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 · 경제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년)
- 사 업 비 : 30,000백만 원(국비 20,000, 도비 2,000, 군비 2,000, 민자 6,000)

다) 사업내용

- LiB 기반 1MVA급 안전강화형 대용량, 고출력 UP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 LiB 기반 UPS 모의 사고 위험성 분석 및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술 개발
 - 성능검증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시험설비 개발과 포괄적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실증
- Lib-UPS 사고유형별 모의 실증 기반 데이터 연계 운영 프로그램 및 표준 개발
 - 사고유형별 모의 실증 데이터 기반 Lib-UPS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표준모델 및 분석·진단 프로그램 개발, Lib-UPS 표준 개발
- UPS 사고 유형별 화재 초동 대응 및 매뉴얼 개발

라) 기대효과

- 배터리산업 육성 및 UPS 관련 제조사(배터리, UPS, 전력변환장치 등) 유치

2. 정주환경 조성

가. 여건 및 잠재력

- 농생명 관련 교육 및 체험 자원 보유
 -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농생명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입지
 -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지원할 자원 보유
 -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인 기지제는 순환 산책데크와 수변공원으로 조성됨
 - 기지제 주변으로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이고, 가족친화 및 체육공간이 조성 중임
 - 혁신도시 내 하천을 연결하면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을 가로지르면서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
-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가능한 이전공공기관 기술 보유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출판 정보 및 출판물을 통한주민들의 지식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디지털 공간정보 기술을 가진 한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안전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혁신도시와 익산역 간 이동수요
 - 이전공공기관 업무 및 주민들의 수도권 등 이동을 위한 익산역으로 교통 수요 많음
 -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 및 지역 간의 이동불편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
- 전주완주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59.4점으로 전국 평균인 60.5점보다 낮은 상황으로 교통환경 개선이 요구됨
 - (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개선
 - (철도) 철도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 (주차장) 주차장 확보를 통한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혁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력을 보유함
 - (도로) 전북혁신도시의 교통량 분산을 할 수 있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구축중이며, 전주시 현안사업인 황방산 터널 연결 시 71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 가능
 - (철도) 혁신도시 내부에는 철도역이 없으나 익산역, 전주역, 김제역에서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철도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을 통한 철도서비스 개선 가능

- (주차장) 정비되지 않은 공간 활용 및 민간 및 공공기관 부지의 협의 및 개선을 통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 가능
- (대중교통) 전북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수요(광역, 지역)에 맞춘 인프라 및 시스템 도입 등으로 개선이 가능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세부분야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 의료, 문화, 여가, 교통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과제 해결
 -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거주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
 - 혁신도시 주민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독려
 - 혁신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및 휴식 공간 조성
- 혁신도시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기존도로 승격을 통한 도로 확장사업 추진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이동성 개선
 - 터널, 교차로 연결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셔틀열차사업, Super-BRT,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등 도입

2) 전략

■ 혁신도시 주민의 계층 특성 반영

-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층의 거주비율에 따른 어린이 높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야간 긴급한 치료 수요에 대응한 야간 병원 운영
-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 부재에 따른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높은 수준의 지적 호기심과 문화적 수요에 대응

■ 혁신도시의 인적 및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풍부한 활동여건 마련

-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동 여건 마련 및 지원
- 혁신도시 내 보유한 양호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여가, 휴식, 운동, 체험 등 힐링 공간 조성

■ 문화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

- 기성시가지와 이격되어 신도시로 개발된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조성
-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전북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연계도로망 구축

- 혁신도시 주변의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여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통행수준 및 서비스 향상
- 혁신도시 접근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IC 및 교차로 연결로 신설

■ 혁신도시 주차장 이용 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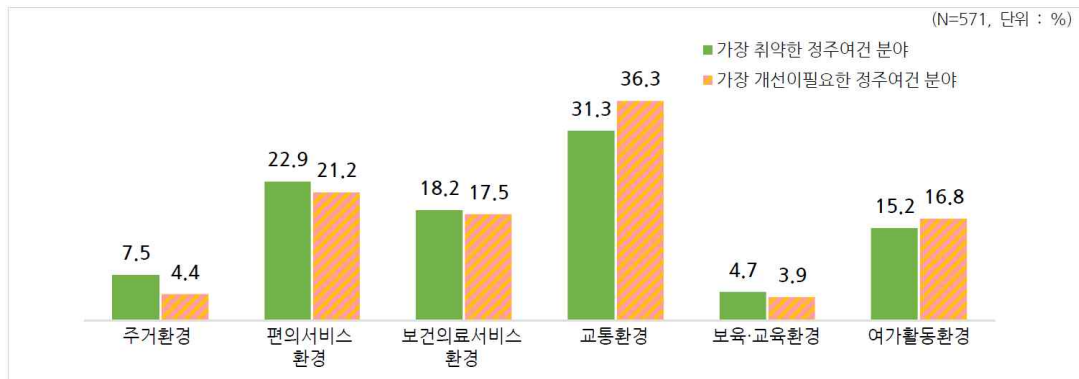
-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한 고속철도 익산역까지 편리한 교통수단 공급

-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셔틀열차를 도입하고, 거점 간 이동수요에 부합하는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공급

3) 정주환경 개선 분야

- 가장 취약한 정주환경 분야는 ‘교통환경’(31.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의서비스 환경’(22.9%), ‘보건의료서비스 환경’(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역시 ‘교통환경’(36.3%)이 가장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편의서비스 환경’(21.2%), ‘보건의료서비스 환경’(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 정주여건 중 가장 취약 혹은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 차원별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집중개선영역은 ‘교통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인 것으로 파악되며, 점진개선영역은 ‘의료서비스 환경’으로 나타남



[그림 5-4] 차원별 포트폴리오 분석

다. 사업계획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지원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전북혁신도시 내 병원·약국의 수는 인구 만명 당 15.7개로 타 혁신도시 대비 평균이 상이지만,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향후 건립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이송 및 진료 어려움 존재
- 특히, 영유아 및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능력이나 면역력 등이 약하여 잦은 질환이 발생하고, 발열이나 복통 등의 영유아 또는 아동에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가 되어져야 하는 수요가 많음
- 또한, 영유아 및 아동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료와 치료가 되어야 하고, 더욱이 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야간 응급 소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2년 단위로 지정 가능)
- 사업비 : 325백만 원(국비 25, 지방비 300)

다) 사업내용

- 소아(18세 미만)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를 경감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 달빛어린이병원은 각 시·군·구별 1개소씩의 지정 원칙이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 가능하며, 혁신도시는 종합병원의 부재로 응급실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병원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북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라) 기대효과

-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의 진료를 제공하여 혁신도시 내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해소 기대

2) 119안전센터 연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는 배후인구 부족으로 대형병원의 입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 강원, 전북에만 종합의료시설이 부재하고, 시가지에 조성된 부산혁신도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강원혁신도시를 포함하여 전북혁신도시만 종합의료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 주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의료서비스 환경(62.1점)은 교통환경(57.7점) 다음으로 여가활동 환경(61.6점)과 거의 유사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의 입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 시 신속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전체
- 사업기간 : 2023~2027년(5년간)
- 사업비 : 1,390백만 원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및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 전라북도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
 - 전라북도 내 교통, 소방, 의료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 통합 및 교류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된 전주시와 완주군의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과 연계
 - 전주시와 완주군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 또한, 전주시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되어 있어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간 연계 가능
 - 전라북도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연결하여 지역에 무관하게 정보취득, 정보제공,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한 응급대응이 가능한 체계 구축

라) 기대효과

- 대형병원이 없이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여건 조성
- 의료서비스 외에도 타분야 정보와 통합하여 다양한 연계 서비스 가능

3)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역내 도서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대표 기관 필요
- 전라북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제공처로서 전북학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및 제공하고 관련 자료의 공동 보존서고로서의 기능 공간 필요
- 지역단위의 도서관 정책의 허브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도민에게 전라북도 도서관 서비스의 종합적이고 균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주시 장동 1090번지, 11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5년
- 사업비 : 37,788백만 원(도비 37,788)

다) 사업내용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 주요시설 :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



<위치도>

<조감도>

라) 기대효과

- 전북학 관련 자료의 집대성으로 전북한 연구 기반 조성
- 전라북도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보존서고로서 중요 자료의 보존
- 전라북도 대표 문화시설로서 이용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

4) 전라북도 K-문화지원센터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의 풍부한 유·무형 지역자원과 첨단 콘텐츠기술(R&D) 접목한 주기별(제작→상용) 기업지원으로 지역 신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자원으로는 무형문화재(102개) 광역단체 1위, 전통음악공연(판소리, 대사습, 농악 등) 개최 1위, 한옥마을 관광객 1천만 명, 유네스코 유산 8개 등임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콘텐츠 교육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여가문화시설 제공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나) 사업개요

- 위치 :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70 (클러스터 7부지)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개년)
- 사업비 : 48,000백만 원(국비 24,000, 지방비 24,000)

다) 사업내용

- 전라북도 K-문화지원센터 건립
- 유·무형 원천 콘텐츠 첨단 R&D 센터
 - 생성형AI, 3D스캐닝, 모션캡처, 볼류메트릭 등 첨단 콘텐츠 기술 연구개발
- 전북형 디지털헤리티지 구축
 - 문화유산을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자산으로 제작
- 강소·유니콘기업 대상 기업지원센터
 - 강소기업으로의 scale-up을 위한 입주시설 및 사업지원
- 디지털 복합 무역관
 - 제작된 디지털자산(IP)을 상용-유통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디지털헤리티지를 적용한 공연·전시 및 가상현실 체험
 - 디지털 콘텐츠 컨벤션 조성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 기여
- 디지털 금융(펀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 평생교육관

5)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가)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 주민들의 여가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여가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활동과 이전공공기관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공연 기반시설 필요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북도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문공연을 위한 대규모 아트센터(콘서트홀) 건립으로 호남권 지역 대표 거점 공연 기반 시설 확충 필요
-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와 연계한 공연, 전시와 함께 예술 창작, 연습과 교육, 자발적 행사 등 예술활동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아트센터(전주)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6-1(혁신도시 클러스터 12부지)
 - 혁신도시 문화복지센터(완주) :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9-1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년간)
- 사업비 : 110,000백만 원(국비 55,000, 지방비 55,000)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아트센터 조성(전주)
 - 위치 : 혁신도시 클러스터12 부지
 - 규모 :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2,000㎡
 - 대규모 공연장 (1,000석 이상, 가변형), 전시실 등
- 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조성(완주)
 - 위치 : 지사울공원 문화시설 부지
 - 규모 : 지상 5층(종합사회복지관과 복합시설로 조성)
 -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 여성쉼터, 여성취업지원시설, 여성문화여가시설, 육아정보제공(동아리) 등
 - (문화예술센터) 주민들의 문화여가를 위한 소공연장과 주민들 스스로 공연을 창작하고 연습하고 즐기는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6) “혁신 아아 모임” 지원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혁신인재들로 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한 혁신의 일상화 전략 필요
- 혁신도시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 받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안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지원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혁신도시 일대(아무때나, 어느장소에서도 상관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60백만 원(지방비 60)

다) 사업내용

- 3명 이상이 모여서 혁신도시 관련 정책 아이디어 논의를 위한 모임개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증 “혁신 아아 모임” 플랫폼 구축
 - 혁신 아아 모임 개설 신청, 모임개최 인증 및 모임비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지역주민들이 “아무 때나” 모임을 갖고 “아무것”이라도 제안을 하면 모임에 필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음료비를 지원
 - 3명 이상이 모여서 혁신도시 관련 정책 아이디어 논의를 위한 모임개최
 - 모임의 결과를 플랫폼에 제출
 - 모임에 들어간 필요경비 최대 5만원 지원

라) 기대효과

- 전북혁신도시 종사자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혁신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의 일상화
- 혁신도시 종사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등에 혁신도시에 머물면서 전북혁신도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

7) 기지제 수변공원 힐링명소화 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양호한 수변공간인 기지제를 중심으로 수변데크를 설치하여 순환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풋살장과 함께 양호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또한, 가족 및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생태체험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기지제 생태공원으로 성됨
- 기지제 수변공간과 함께 여가·문화공간으로서 전북대표도서관이 건립이 추진 중임
- 혁신도시 조망 및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 여가와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힐링명소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기지제 일원
- 사업기간 : 2023~2026년(4년)
- 사업비 : 11,700백만 원(지방비 11,700)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및 전북도 전체 수변공원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가공간 조성
 - 스카이워크 전망대 : 혁신도시 및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레스토랑 및 카페 등 상업시설 포함)와 기지제 수면 위를 걸을 수 있는 스카이워크 조성
 - 수생 동식물 관찰 습지 : 혁신도시 아이들이 관찰 및 학습 공간으로서 기지제에 서식하는 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을 볼 수 있는 습지 조성
 - 수목원 : 계절별 개화하는 꽃을 즐기면서 산책하고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음악분수 : 수변에서 정적인 휴식 외에도 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분수 설치

라) 기대효과

- 혁신도시 및 전북도 주민들의 수변공간을 통한 여가 및 휴식 공간 확대
- 혁신도시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위한 체험 공간 제공

8) 물길 산책로 조성

가) 필요성 및 목적

-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이지만, 이는 농진청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험포 등 넓은 면적의 농지 및 녹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혁신도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넓은 공간이 주민들과 단절되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전북혁신도시에는 내부를 가로지르면서 서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하천은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자연자원이면서 이전공공기관과의 물리적 접점이 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임
- 혁신도시 내 하천을 농업기술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산책로로 개방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시설개방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내 하천 물길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
- 규모 : 혁신도시 내 하천 및 연결산책로 약 10km
- 사업비 : 16,100백만 원(국비 8,050, 지방비 8,050)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내부를 가로지르는 물길(조촌천, 원천)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책을 겸한 운동공간과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의 시험포에서 생육되고 있는 농작물의 조망 및 관찰 공간 조성
- 물길(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 농업 및 축산 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산책로 주변 울타리 설치
- 하천변 사계절 초화류 식재
- 산책로 쉼터 설치

라) 기대효과

- 혁신도시를 크게 순환하는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운동을 겸한 산책공간 제공
- 이전공공기관의 연구활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주민들과 이전공공기관의 교류 기회 확대

9) 혁신도시 악취저감 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는 신도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모든 것을 갖춘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해 교통여건과 여가 및 문화 여건을 갖추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로 조성됨
- 그러나, 혁신도시 주변에 다수의 축산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축산분뇨 등의 악취가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악취문제를 해결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만족도와 삶의 질은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혁신도시 주변(김제 용지 일대)
- 사업기간 : 2023~2027년(5년)
- 사업비 : 39,830백만 원(국비 36,300, 지방비 3,490, 공공기관 40)

다) 사업내용

- 배출저감사업 :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미생물제 생산, 냄새 저감제 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사매입사업
- 모니터링 강화 : 무인 악취 포집기 운영, 실태확인 조사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악취 모니터단 운영, 지역 민관 협의체 운영
- 사업평가 분석 : 축산시설 수시점검, 가축분뇨 냄새 저감 협업체 운영

라) 기대효과

-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축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축산악취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주민 민원인 악취문제 해결로 삶의 질 제고

10) 스마트 주차 플랫폼 구축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가 능한 비어 있는 주차면이 있지만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확인이 어려워 주차 불편
- 주·야간, 시간대별 및 지역별 주차장 이용시간이 차이로 발생하는 주차장 수급 미스매칭(주차공간 부족하다는 인식과 주차가능한 주차공간 존재) 발생
- 민간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여유가 있음에도 도로변 주차 성향에 따라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도로변 주차된 자동차로 인한 교통에 방해된다는 인식을 갖게 됨
- 기 설치된 민간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이용을 꺼리게 되는 인식을 전환하고 이용을 유도가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
- 사업기간 : 2023~2027(5년)
- 사업비 : 2,600백만 원(국비 1,290, 지방비 1,310)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스마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및 주차관리 시설 설치
 -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및 이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플랫폼과 통신네트워크 구축
 - 공공주차장, 이전공공기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에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차량감지 센서, 차번 인식 센서, 주차료 자동결제 시스템 등) 설치
 -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민간에 인센티브(재산세 감면 등) 제공 등으로 참여 유도
- 상업시설 이용 시 상가건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 실시
 - 주차는 무료가 아닌 주차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지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됨
 - 지하주차장 진입이 번거롭더라도 정식 주차장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홍보

라) 기대효과

- 주민들이 주차가능 공간을 쉽게 확인하고, 주차단속 등에 대해 안심하고 주차
- 교통수요가 많은 상업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 제공

11) 전북혁신도시 연계도로망 구축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인접한 만성지구는 법원 및 검찰청 등이 입주하여 법조타운이 형성됨
- 부안-김제-전주-익산-군산의 중심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지방도 716호선, 국도1호선을 주로 이용하여 외부에서 접근하는 도로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전주시내로 진입하기 위한 가로여건이 온고을로, 콩쥐팍쥐로의 2곳의 동서축 도로망을 이용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진출입 도로망의 연결점을 새로이 확보하고 대체노선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중심지인 혁신도시 인근의 연계도로망 체계를 보급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내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변일대
- 사업기간 : 2023 ~ 2032년(10년)
- 투자규모 : 179,700백만 원(국비 119,500, 지방비 60,200)

다) 사업내용

- 국도1호선 및 국도21호선의 중용구간을 폐지하고 국도29호선 신설
- 새만금~김제~전주를 연결하는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내 전주~김제를 연결하는 지방도 716호선상 하이패스IC 개설
- 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국도1호선상 갈산지구 주변 연결로 추가 개설
-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서곡지구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황방산터널 개설

라) 기대효과

- 지방도의 국도 승격시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 가능
- 도로시설 미흡과 노후화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새만금 및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처 가능
- 갈산지구내 국도1호선 연결로 개통시 콩쥐팍쥐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전북혁신도시로의 유입 교통량의 대체노선 확보가 가능하고 황방산터널 개통시 전북혁신도시를 이용하던 온고을로-콩쥐팍쥐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출퇴근혼잡시간대에 통행시간 절감가능

12) 전주-익산-군산 셔틀열차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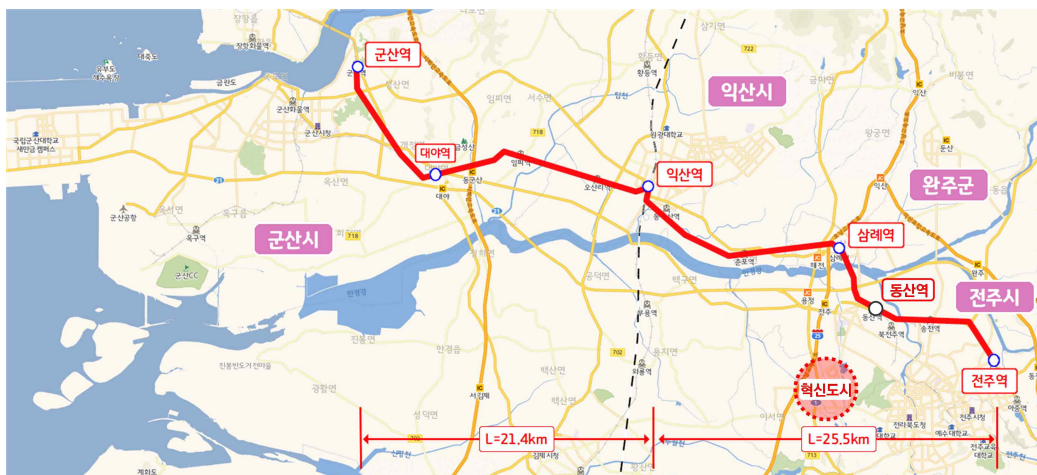
- 전라북도 고속철도 이용은 익산에서 KTX, SRT를 이용한 노선이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익산역은 국가의 거점역으로서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으로서 확대할 연계교통체계 마련이 필요
-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북 내 주요도시권 간 접근성을 제고하여 셔틀·통학·관광 등에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으로 전북지역 성장 잠재력 확대
- 전주-익산-군산 간 이동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셔틀버스 운행을 통

나) 사업개요

- 위치 : 셔틀열차 : 전주~익산~군산 및 혁신도시 주변 일대
- 사업규모 : 전주역 ~ (삼례역) ~ 익산역 ~ (대야역) ~ 군산역 (L=46.9km), 1일 왕복 20회
- 사업기간 : : 2023년 이후(예정)
- 사업비 : 17,000백만 원(연간 3,400백만 원, 지자체 부담)

다) 사업내용

- 위치(운행구간) : 전주역 ~ 동산역 ~ (삼례역) ~ 익산역 ~ (대야역) ~ 군산역 (L=46.9km)
- 코레일과 협약하여 기존 철도노선에 셔틀열차(3량 1편성) 운행



[그림 5-5] 전주-익산-군산 셔틀열차사업 노선

라) 기대효과

- 익산역 주차장 혼잡 완화 및 대야, 삼례 등 활용을 통한 통과역 활성화

13) 수요응답형 셔틀버스(광역 DRT)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익산역을 이용하여 전북혁신도시로 통행하는 대부분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기존의 시외버스는 고속철도 연계배차 및 배차간격의 문제로 이용자의 선호가 낮은 편임. 이에 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한 광역 DRT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DRT는 행정구역상 읍·면의 경계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수요응답형 셔틀버스는 익산역을 시·종점부로 하여 전라북도 내 주요거점을 이동하려는 이용객의 수요에 대응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내버스 및 자동차이용 교통량을 가장 큰 폭으로 전환할 수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익산역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
- 사업비 : 250백만 원 (국비 125, 지방비 125)

다) 사업내용

- 익산역↔혁신도시 지역간 이동수요에 부합하는 셔틀버스를 공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지역의 고속철도 이용편의성을 제고
- 혁신도시의 익산역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하여 익산역으로의 직접 연결하는 Door-to-Door 서비스 공급

라) 기대효과

- 승용차 중심의 혁신도시와 익산역간의 이동수단을 대중교통 성격에 가까운 DRT를 공급함으로써 고속철도 이용의 편리함과 전주-익산간 특별교통수단 공급이 가능
- 혁신도시와 고속철도라는 광역교통수단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서비스체계 마련

14) Super-BRT 구축사업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시내버스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린대로 상에 버스통행량을 전환시키기 위해 BRT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전주시와 인접지자체인 익산시를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전북혁신도시까지 연결할 수 있는 SUPER-BRT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익산-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정시성이 확보된 BRT체계 마련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기린대로(호남제일문 교차로~한벽교 교차로)와 익산시(26번국도~익산대로), 전북혁신도시(지방도713호선)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
- 투자규모 : 136,600백만 원(국비 91,300, 지방비 45,300)

다) 사업내용

- 전주시 1구간(10km), 익산시(17km), 전북혁신도시(5km)를 연결하는 SUPER-BRT노선
- 전주시 1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교차로) 계획내용을 반영
- BRT노선 계획구간의 시점부와 중간지점을 전북혁신도시와 연결
- 전주시 BRT노선 시점부를 기존 교통량에 저해요인이 비교적 적은 국도26호선을 이용하여 익산역과 연결하여 정시성이 확보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

라) 기대효과

- 전주~익산~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익산역의 고속철도 이용시 지역간 원활한 이동성 제고 가능

3. 지역인재 양성

가. 여건 및 잠재력

■ 현장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오픈캠퍼스)

-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토정보공사, 한국기안전공사국,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의 경우 지역대학육성사업단과 함께 산학협력과정으로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음
- 오픈캠퍼스는 이전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전기관 인턴지원 시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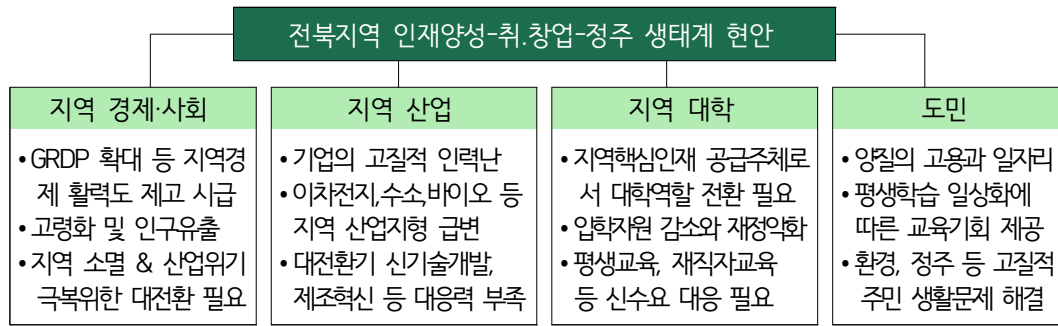
중점 교육분야	직업기초능력	종합직무지식	연금제도운영	자산운용	복지서비스
모듈	연금의 이해	행정, 회계, 사회복지	연금제도 운영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비중	15%	25%	20%	20%	20%
교육방법	교과과정, 사례연구	교과과정, 현장체험	비교과과정 인턴십, 해외연수	교과과정, 팀티칭, 인턴십	현장체험, 멘티십
강의진행자	전공교수, 전문가	전공교수, 전문가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출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전북컨소시엄 홈페이지(<https://jbcluster.jbnu.ac.kr/web/page.php?pcode=BD01>)

[그림 5-6]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연금분야 지역인재육성 교육과정

■ 전라북도 자산학(지역-산업-대학) 연계·협력 확대로 지역인재양성 확대

- 전라북도는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됨
- 이 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학, 지역의 기관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지역 핵심 산업 분야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혁신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지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임



출처 : 전북도청 내부자료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지역산업-지역인재 선순환 구조화
 - 지역 내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산업 육성의 단계를 넘어 대학과 더불어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협력의 주력 공간으로 조성
 - 지역-대학-산업-혁신도시 간 유기적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창출 선순환 구조 창출
- 지역혁신 인재의 안정적 확보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진행에 따른 맞춤형 우수인재 확보 및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 지역 혁신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지역 우수인재의 도외 유출방지담 역할 강화

2) 전략

■ 지역특화 청년·인재육성 협력거점 조성

-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지원
 - 기존 혁신기관의 지역내 이식 기능을 넘어 새로운 역할 확대 필요
 -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대학의 우수 인력·기술을 지역 기업에 연계하여 혁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 공간 조성 지원

■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체계 마련

○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나노학위과정(마이크로디그리) 운영

- 이전기관별 오픈캠퍼스 운영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사업 외 지역혁신 인재육성의 시너지효과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혁신도시를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의 역할을 위한 지역 대학-이전기관 간 협력 확대

○ 계약학과 운영

-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따른 맞춤형 우수인재 확보 필요
- 한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 등 전공영역이 특화된 기관의 경우 우수 인재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채용 로드맵 마련

다. 사업계획

1) 혁신교육 청소년 스쿨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에게 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여왔음
- 그러나 대부분은 사업들이 바자회, 음악회, 축제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일반적 역할이나 지역주민 지원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음
- 따라서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이전기관들이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매년 4개 기관 스쿨 운영
- 사업비 : 60백만 원(지방비 60)
- 추진주체 : 전라북도, 이전공공기관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이전기관 조기교육 활성화사업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도내 초중고교 간 업무협약 체결로 교육지원사업 추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 미래 가입자인 학생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 한국기안전공사 : 에디슨 안전스쿨
 - 전기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취학연령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교육 시행
- 한국토정보공사 : 고산 김정호 스쿨
 - 국토정보 현장 측량 및 디지털 측량, 드론 시연 등을 통해 국토공간 측량 체험으로 국토에 대한 이해와 진로체험 제공
- 농촌진흥청 : 우장춘 탐구스쿨
 - 우리지역의 농업농촌 현황과 식량자급에 있어서 농업농촌과 혁신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체험 제공

2) 국립농생명직업체험관 건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대한민국 농업은 청장년 농가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반면, 고령 농가 비중은 증가하고 평균연령 또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에 직면
 - 농가인구는 '10년 306만명에서 '22년 223만명으로 27.1%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10년 34.8%에서 '22년 46.8%로 증가
-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로 농가당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미래 주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과 발전잠재력 등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 필요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학생의 희망직업에 농업 관련 직업은 전무하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10년 뒤 인기 직업에 IT·로봇 엔지니어(25.5%), 빅데이터 전문가(12.2%) 등의 분야가 관심이 높게 나타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간)
- 사업비 : 30,000백만 원(국비 20,000, 지방비 10,000)

다) 사업내용

- 국립 농생명직업체험관 건립
 - 농업 직업정보관, 농업 진로 탐색관, 농업 직업체험관, 직업 설계관, 부대시설
- 주요 직업체험 프로그램
 - 혁신농업 존, 사회적농업 존, 미래농업 존, 플래너 존, 국가 전문기술자격 존

라) 기대효과

-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필요성 및 미래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생명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기여

3) 전북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및 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정보, 기술, 교육 및 훈련, 네트워킹 등 산학연 협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 공간조성 필요
- 지역혁신의 거점인 협력단지 조성으로 농생명융복합분야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나) 사업개요

-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 규모
 - 대지면적 : 11,370㎡
 - 연면적 : 9,486㎡(캠퍼스 4,432㎡, 기업연구관 3,486㎡, 기숙사 1,568㎡)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35,500백만 원(국비 11,900, 지방비15,200, 대학 7,900(현물), 기업 500(현물))

다) 사업내용

■ 전북 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조성

- 공간 구성
 - 캠퍼스관 : 농생명융복합분야 관련학과 및 대학원 학생 이전
 - 기업관 : 관련 기업연구소 입주 및 산학공동 R&D 등 수행
 - 스타트업 창업공간(사무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
 - 커뮤니티 시설(강당, 상담실 등)
 - 사무행정 시설공간
- 산학융합촉진 프로그램 운영

라) 기대효과

-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및 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정보, 기술, 교육 및 훈련, 네트워킹 등 산학연 협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 공간조성
- 지역혁신의 거점인 협력단지 조성으로 농생명융복합분야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4)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
-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도내 대학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임
-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도내 농생명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여 농생명 특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클러스터 3-2부지
- 사업기간 : 2023~2026년(4년간)
- 사업비 : 3,155백만 원(국비 1,578, 지방비 1,578)
- 사업규모 : 대지부지 5,692.5㎡, 건축면적 2,975㎡

다) 사업내용

- 혁신융합캠퍼스(전주기전대학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구축
- 강의·실습실 (기전대학 일부학과 이전 및 신설)
 - 이전 : 치유농업과, 허브조경과,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동물보건과, 응급구조과 등 농생명·동식물 학과
 - 신설 : 전기분야 관련 학과

라) 기대효과

- 농생명 관련 학과를 집적하고 학습 및 연구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
-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농생명 관련 전공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산학 협업체계 구축
-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갖춘 전문 인력의 배출로 지역경제 기여

5) 마이크로디그리²⁴⁾ 운영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및 기업, 지역 대학 간 혁신인재 육성사업의 효율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필요
- 기존 사업의 통합 및 연계협력, 리모델링 필요
- 지역특화 혁신인재 육성 및 지역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동학위 운영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570백만 원(지방비 100%)

다) 사업내용

■ 마이크로디그리 설치·운영

- 운영방식 : 지역대학(이론교육), 이전기관(현장교육)
- 개설학과 : 농생명분야, 전기안전분야, 공간정보분야, 연기금운영분야, 출판문화 등

라) 기대효과

-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및 기업, 지역 대학 간 혁신인재 육성사업의 효율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24) 지역혁신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 실무형 단기교육과정으로 학점 이수를 통해 산업체 및 진로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전체험을 통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실전참여형 교육과정

6) 이전기관-지역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이전기관의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한 이슈임
- 이전기관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필요
-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간 자율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계약학과 설치 또는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600백만 원(도비 500, 대학 50, 이전기관 50)

다) 사업내용

- 계약학과 운영
 - 지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지자체-이전기관 간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
- 운영방식
 - 채용조건형 :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
예시) 한국토정보공사-도내 대학간 '디지털 SOC 계약학과' 설치
 - 재교육형 :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이전기관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

라) 기대효과

- 이전기관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필요

7) 농생명분야 학연협동 연합대학원과정 운영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전라북도는 산업구조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나 현장은 여전히 저기술위주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다만 전라북도가 농생명식품수도를 비전으로 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농생명식품 관련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내 농생명식품혁신기관, 민간육종단지, 스마트팜단지 등 농생명 분야에서는 혁신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내 고급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설치함으로써 농생명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주임무로 하는 지역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과 인력양성을 주임무로 하는 지역 대학이 협동하여 기존의 석·박사과정과 차별화된 연구중심의 새로운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총사업비 미정

다) 사업내용

■ 농생명식품 학연협동 연합대학원 설립운영

- 지역내 농생명식품혁신기관-지역대학 간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대학별 차별화된 과정 운영
- 운영방식
 - 단독형 : 대학(1)-혁신기관(1)
 - 컨소시엄형 : 대학(1)-혁신기관(2개기관 이상), 대학(2개 대학 이상)-혁신기관 단독, 대학(2개 이상)-혁신기관(2개 이상)

라) 기대효과

- 이전기관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필요

8) 금융 평생교육 캠퍼스 운영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금융산업은 시설, 전문 장비가 아닌 고급 인적 자원의 경험 및 노하우, 네트워크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 금융인력 양성 및 확보는 금융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자산 운용 과정에서 투자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주문 단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각 업무 단계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연금에 대한 이해와 금융 지식을 전라북도 일반인에게 전파하여 올바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혁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투자규모 : 10,000백만 원(국비 5,000, 도 2,500, 대학 2,500(현물))

다) 사업내용

- 금융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금융투자협회 뿐만 아니라 전북 소재 금융 관련 학과와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금융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특화 산업 및 대체투자과 관련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화를 통한 금융 전문 인력 양성
- 일반인 대상 연금 교육 오픈 캠퍼스 운영
- 일반인 대상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구학적 구분(연령, 근속기간, 성별, 소득, 교육 등), 직업(업종, 지역), 금융지식(기본적인 금융지식,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 투자 상식), 교육스타일(자습 vs. 강사교육, 집단교육 vs. 개인교육, 오프라인 vs. 온라인)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로 진출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전문 금융인력 확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전북 유치의 방해요인을 제거
- 지역 대학생의 지역 내 금융기관 취업 기회 확대와 20~30대 젊은 인력 외부 유출 방지

9) 청년친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 지역대학, 지역혁신기관, 지역기업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구축
- 혁신자원과 연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기업과 청년의 유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인프라 조성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전주시 혁신동 일원
- 규모 : 대지면적 3,500㎡, 연면적 6,000㎡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사업비 : 30,000백만 원(국비 14,500, 지방비 15,500)

다) 사업내용

- 그린스타트업 타운 건립
 - 주요내용 : 농생명,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과 성장지원
 - 보육공간(사무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투자상담공간(AC·VC 등), 실증공간, 네트워킹 공간, 교육공간, 상업시설 등

라) 기대효과

-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지역대학, 지역혁신기관, 지역기업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구축

10) 전라북도 공공기관 공동 채용박람회 추진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도내외 다양한 채용박람회가 있지만 공공기관 중심의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 제고 필요
- 도내외 취업준비생이 전북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기관 및 이전기관에 대한 홍보와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필요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도내외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7(5년간)
- 사업비 : 2,500백만 원(도비 250, 시군비 1,000, 이전기관 1,250)

다) 사업내용

-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채용 관련 행사를 도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홍보 및 채용절차 추진
 - 참여기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전라북도 공공기관(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출자출연기관), 협력기업 등
 - 프로그램 : 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취업성공사례발표,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취업성공전략 특강, 공공기관 모의토론 면접, 공공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

라) 기대효과

- 공공기관 중심의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 제고
- 지역의 혁신기관 및 이전기관에 대한 홍보와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4. 주변지역 상생발전

가. 여건 및 잠재력

1) 지역 여건

가) 식품산업 육성 기반

- 전북은 2012년부터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을 대상으로 식품과 관광 중심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 운영 중
 -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2년부터 ‘20년까지는 시군 당 50억원, ‘21년부터는 시군 당 60억을 지원해 시군별 특화된 식품산업 육성·추진 중
 - 남원시는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진안군은 홍삼한방클러스터, 무주군은 천마클러스터, 장수군은 장수식품클러스터, 임실군은 치즈식품클러스터, 순창군은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추진 중

나) 지방자치 업무 증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필요성 증대
-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 대상 전담연수기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산하에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22.8월)
- 지방의원(시도 및 시군구)수는 ‘09년 3,727명에서 ‘19년 3756명으로 증가하고, 조례 정비(제정·개폐처리) 건수는 ‘10년 51,001건에서 ‘18년 76,285건으로 증가하여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

다) 지역 자체적인 도서 통한 인문학 확산

- 고창에서는 책마을해리에서는 책을 통한 독서와 출판, 미디어, 인문학 등을 배우고 즐기는 공간이 운영 중임
 - 활자꾸미기와 글·그림만들기, 편집하기, 전통방식으로 제본하기 같이 책(기획부터 제작까지)을 둘러싼 다양한 캠프가 진행 중이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와 농업활동과 지역생활사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즐기고 취재하고 책으로 만드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책마을해리 <https://harrybook.kr>)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 지원과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고, 고창뿐만

아니라 무주, 순창, 정읍에서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 추진 계획임

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기여 여건

-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관련 사업은 246개(131,004백만 원)로 지역산업 육성 관련 사업은 63개(25.6%), 사업비는 117,823백만 원(89.9%)에 달함
- 지역산업 육성 관련 사업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기능을 지니는 농촌진흥청(25.4%), 한국국토정보공사(23.8%), 한국전기안전공사(15.9%) 순서로 많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자율주행, 드론, 메타버스, IT, 공간정보 산업), 일자리 공간 조성 등이 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 전기안전 관련 산업 육성, 중소기업 및 농가 육성 및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창업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
 - 농촌진흥청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 농생명 산업 육성, 농업기술 고도화, 농가기술 고도화, 농촌 가치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 중
 -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지역 금융산업 육성, 전산장비 관련 기업 육성,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측면의 지역 기여 사업을 추진 중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 내 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 독서대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 내 식품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기술개발 성과 확산, 식품 기능성 등의 분석 지원, 장비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역산업 육성 측면에서 농업인 및 농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투자 지원, 스마트팜 지원, 창업, 유전자 분석, 종자 생산 등의 사업 추진
-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농생명(농업기술, 기능성 식품, 스마트팜), 미래수송(자율주행, 드론), 정보통신융합(공간정보, 메타버스), 금융/정보보안, 출판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상생발전의 시너지 창출 가능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공간적 확대 : 이전공공기관에서 상생발전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 전역으로 확대 추진 필요
- 일자리 질 제고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및 육

성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은 75건으로 가장 많으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확대 필요

2) 전략

■ 혁신도시 발전 컨트롤타워 설치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기업유치 및 창업, 정주여건 개선, 인재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도적 조직 필요
-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이를 지역 전역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단일화된 협력 통로 역할 수행
- 혁신도시 육성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성과의 모니터링을 담당

■ 공간적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동부권특별회계 사업 지원
 - 전북은 2012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식품과 관광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시군 당 50~60억 지원 중
 -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산하기관 포함)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동부권 특별회계 내 식품산업 지원 필요

■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도내 인문학 가치 저변 확대
 - 국가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낮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공동체 해체 위기 대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관련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콘텐츠 발굴 확산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의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의 다발성 재난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상황발생에 대한 전파와 상황통제를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
 - 다수의 주민의 안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가지 중심부를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

다. 사업계획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혁신도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부여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지역 특화발전, 지역인재 육성 등에 대한 지원
-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지속적인 혁신도시 운영 및 관리 주체 역할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혁신도시 전북테크비즈센터 내
- 사업기간 : 2025~2027년(3년)
- 사업비 : 900백만 원(국비 450, 지방비 450)

다) 사업내용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설립)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3 제2항)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기대효과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지원 기능의 컨트롤타워로서 종합적인 역할

2)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 지원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동부권 식품 분야의 경우 약 10년간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일부 시군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시군 내 식품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환류 체계에 이르는 인적역량이 부족한 상황
- 동부권 식품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과 연계한 사업 기획,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이 동부권까지 확장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사업기간 : 2023 ~ 2027(5년간)
- 사업비 : 비예산 사업

다) 사업내용

-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 동부권 6개 시군 식품사업 담당부서, 이전공공기관 중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발전협의체(가칭) 구성
- 사업기획 및 컨설팅단 운영
 -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23년 사업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자문 또는 컨설팅 실시
 - '24년 추진할 사업부터는 초기 사업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자문 또는 컨설팅 실시

라) 기대효과

- 전북 내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성장 도모

3) 인문학 도시 조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인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인문학 관점의 대응과 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학적 사유 확산과 인문분야의 대중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문학 가치 저변화 필요
- 정부는 '16년 인문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년 인문·문화 가치 확산을 강조하고 있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인문학 생태계 조성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지역공헌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도내 시군의 인문자원을 연계한 인문학 도시 조성

나) 사업개요

- 위치 : 도내 시군 일원(희망 시군 수요 조사 후 추진)
- 사업기간 : 2025 ~ 2027(3년간)
- 사업비 : 6,000백만 원(국비 3,000, 지방비 3,000)

다) 사업내용

- 희망 시군 인문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인문학도시 조례 제정
 - 인문학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문학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문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기억으로 피어나는 인문학 이야기3 : 마을 어르신들의 기억 기록(마을사람과 마을의 이야기를 인문학과 결합한 개념), 마을자원 DB 구축, 인문학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 인문학 도시 조성 및 활성화
 - (HuW) 대학 동아리와 연계한 마을 인문학 활동 지원, 마을 인문학자 발굴 및 지원, 미래세대 인문 교육
 - (SW) 인문주간 운영(교육부), 인문학 강좌 학대(문화부, 교육부), 인문학 공정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문체부), 인문도시 홍보
 - (HW) 인문학 마을 만들기, 인문학 거리 조성, 인문학 사색의 숲 조성 등

라) 기대효과

- 인문학 마을 및 도시 조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4)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중점, 기타 연수는 비공식기구 위탁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미흡 및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한계
- 지방의회 대상별 의정활동에 요구되는 업무수요가 다양함에도 대상별 교과목이 유사하고,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연수로 맞춤형 교육 및 전문성 확보 한계
- 지방의원, 전문위원, 실무자 등 대상별 기능과 역할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지방의정연수원을 건립하여 전국 지방의회가 방문하는 거점으로 도약시켜 생활인구 확충

나) 사업개요

- 위치 : 자치인재발원 인근
- 사업기간 : 2026 ~ 2027(2년간)
- 사업비 : 40,000백만 원(국비 40,000)

다) 사업내용

-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 교육연수시설 : 강의동, 생활관, 도서관, 후생시설, 대강당, 체력증진센터 등
 - 부대시설 : 업무시설, 관리시설, 식당, 실내체육관,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등
-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인원 : 약 9,100여명(지방의회 의원 3,600여명, 지방의회 소속 직원 약 5,50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지방의회 의원 연수 : 기본과정 + 전문과정(소속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 지방의회 직원 연수 : 기본과정 + 심화과정(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라) 기대효과

- 지방의회 대상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전문적 교육으로 지방의회 정책역량 제고

5) 디지털트윈 기반 시가지 하천 안전관리 서비스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각종 기구가 갖춰진 운동시설에서 체력단련 및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을 하는 한편, 거주지 주변의 양호한 녹지나 수변공간을 이용한 야외운동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음
-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하천의 양쪽 둔치를 시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홍수나 수변공간 이용 중의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됨
-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 문제해결을 도입하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전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한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트윈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전북 도내 각 시군의 시가지 하천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재난재해 예측시스템을 구성하여 위험상황으로부터 시민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서비스 마련이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도내 시군 시가지 내 하천
- 사업기간 : 2024~2027
- 사업비 : 3,300백만 원(국비 1,650, 지방비 1,650))

다) 사업내용

- 디지털트윈 기반 14개 시군 시가지 하천변 시설 및 환경 데이터 구축
 - 하천, 제방, 둔치 등 하천 및 주변의 지형과 자연환경 디지털트윈 구축
- 시가지 주변 하천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가상세계와 연계된 위험상황 및 재난재해 예측 및 안내 시스템 구축
 - 위험상황 및 재난재해 예측에 따른 경보 정보 송출
 - 위험상황 및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대피 안내정보 제공

라)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주민안전 대비
- 하천변 주차된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비로 재산피해 최소화

6)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청동기·철기문화가 발달한 문화 선진지역이자 삼국 시대 백제, 가야, 신라의 물질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임
- 전북지역 고대문화의 성립과 발전 양상 규명, 지역 고대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전북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고대 문화의 성립과 실체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심화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중세·근대 시대 문화 연구가 필요함
-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는 건축 문화재 전통기술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전북 전통건축 대목수 기술연구와 사라져가는 전통 건축 기술의 진정성 있는 보존을 위해 생존하고 목수를 대상으로 생애, 도구, 치목 및 조립 기술 등을 기록화가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혁신도시 클러스터6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비 : 25,296백만 원(국비 25,296)

다) 사업내용

-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 유물 수장고, 보존처리실, 분석실, 연구자료실, 전시관, 열린도서관, 세미나실, 회의실 등

라) 기대효과

- 전북지역 고대 유적 학술 발굴조사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전북지역 역사·문화 특성 규명 및 정체성 확립
- 전라북도 중·근대 문화 연구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유산 미래가치 확산

5. 스마트시티 구축

가. 여건 및 잠재력

1) 기초여건

가) 스마트시티 관련기관 보유

-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기관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주축을 형성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적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 중
 -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의 추진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내 도시 전기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해 운영 중

나) 스마트시티 관련 지역 네트워크 작동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이 전기관을 주축으로 각 기관의 빅데이터 기술 등을 교류하기 위한 협약 추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이 전기관과 전북개발공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북 지역 공공기관, 전북대학교 및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민·관·학 14개 기관이 참여
- 빅데이터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공간정보 민간사업체 소재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전국 비중은 4.7%로 전북 경제 규모 등에 비해 높은 편에 해당
- 전북은 20~49인 종사자 규모의 사업체 비중이 전국 6.1%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인 이상은 2.4%로 낮아 현재 공간정보사업체의 성장을 통한 50인 이상 비중 증대가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수행여부, 전담조직, 시설 등을 통해 연구소 전담부서가 있는

사업체의 비중을 높여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 필요

라)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을 개발, 실증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비됨
 -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내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 확인 등 가능
 -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전기안전 등 다양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보유기술을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규제샌드박스 가능

2) 이전공공기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도, 7대 지하시설물 등 지하 공간정보 등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드론 사업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선두주자
 -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AI빅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AI 빅데이터 분석 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추진 중
 - 현재까지 추진된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으로는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환경영향평가 오픈플랫폼,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스마트 도시성장 프로젝트, 해안도로 침하 예측, 관광단지 대상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등으로 분야를 초월한 디지털트윈 사업을 추진
-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이외의 별도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이며, 디지털트윈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개발
 -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데이터의 가시화, 측정, 공간분석, 모듈 관리, 데이터 변환 등 기능을 통해 도시 내 인프라 관리, 안전 및 재해 시뮬레이션, 드론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
- 국토교통부가 '22년 10월 발족한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의 간사기관으로서, 산·학·연 전문가, 기업인 등 전문인력 연결체계의 중심축 담당
- 국가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관련 국가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LX드론맵 구축사업과 UAM(Urban Air Mobility), UTM(UAS Traffic Management) 등을 추진 중

- 드론활용 인프라 확대의 일환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하여 소방, 경찰, 해경, 국토조사분야의 드론인력을 육성하여 공공분야를 선두로 한 국내 드론산업을 견인
 - 향후 전라북도 남원시 내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여 드론 이론 및 실기 교육, 드론 운영관계, 영상 전송·처리·관리 기술개발 등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 지원 예정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구축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지역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 중
- 전남 곡성군과 함께 G-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적인 공유관리 체계 지원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국가 주요 산업시설의 정전, 전기설비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기술개발을 추진 중
 - 상시안전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연구를 추진해 전기설비의 디지털 트윈화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안전 재해 대응 시뮬레이션 체계를 마련
- 주택용 전기설비 원격 모니터링 장치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용 전기사고 요인을 실시간 감시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체계의 자동화 기반 마련 중

다)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정밀 기후에 기반해 농장(필지) 단위의 기상재해 및 대응 방안을 알리는 체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형특성, 지역 관측 기상정보를 반영해 기상정보를 생산하며 예측 정확도가 높은 시스템
 - 현재 전북 14개 시군을 포함한 60개 시군의 19,077 필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예정

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책 체험버스 운영, 책 문화센터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도서관이 없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출판산업과 독서문화산업 발전을 도모
 - 책문화센터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출판 창업을 육성하고, 지역 창작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등의 네트워킹 행사를 제공
- 전라북도 내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출판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디지털 출판산업 혁신 역량을 제공

- 업무시설 및 혁신 지원공간과 디지털 출판 전환 연구공간 구축 등 디지털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차세대 출판산업 특화 전략 시설을 조성

나.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혁신도시와 주변도시의 통합적 스마트시티 구현 강화
 - 전주, 완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관리 및 주민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는 통합 운영 시스템 확보
 - 행정 분야는 전북혁신도시 내 주민이 스마트시티 서비스 2위 분야로 주민 수요에 부합
 - 스마트시티 특성 상 특정 지구에 시스템을 국한하기 보다는 기초지자체 전반적 스마트 시티와 연계하여 특화된 전북혁신도시 내 서비스 구현
 -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경험을 전주와 완주의 구도심, 인근 주변도시 등으로 확산

[표 5-11]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협력기관 선호도

응답 내용	비율(%)
스마트 안전	42.3
스마트 행정	40.0
스마트 환경	36.5

- 디지털트윈, 전기안전 등 이전기관 특화기술과 D.N.A 첨단기술 융합 서비스 발굴
 -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강점을 지닌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전기안전 등 혁신역량 지역 내 공유 및 주민 체감도 향상 (LX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전담기관 등)
 - 첨단기술 및 데이터 개방으로 혁신도시 내 신기술 비즈니스 환경 제공

[표 5-12] 전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협력기관 선호도

응답 내용	비율(%)
한국국토정보공사	57.0
한국전기안전공사	26.7
농촌진흥청	15.3

- 전북혁신도시 스마트화 촉진과 전북지역 ICT 산업과 기업의 조화로운 경쟁력 향상
 - 지역 내 기업 참여 기회 부여로 지역 산업과 기업의 성장 기회 부여
 -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재 기업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접촉, 협력 기회 부여 및 관련 창업 기업 육성

2) 전략

■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혁신역량 융합으로 융합 서비스 강화

- 데이터 기반의 혁신사업 발굴·추진
 - 전북이 추진하는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시 혁신도시 참여로 지역 데이터산업 촉진 지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저장, 기 구성된 빅데이터 교류회 등을 통해 데이터 공유 등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지역 참여 기회로 지역 산업 발전 도모
 - 전북내 올포랜드, 스페셜티, 비트리, 액티부키 등 공간정보 관련 기업이 다수 소재하는 가운데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 시 전북기업 참여 기회 부여
 - 공간정보기반 산업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인프라, 앵커기업유치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미니 클러스터 조성

■ 특화기술 기반 혁신도시-주변도시 연계 주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제공

-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역량 확산
 - 스마트 안전,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구독경제, AI 모빌리티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구현
 - 전주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등 근거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보유한 기술을 연계하여 구도심 등 도시재생 사업과 협력 할 수 있는 3D 버추얼 전주 구축
 -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노하우(완주 혁신도시 주차장 디지털 트윈 등)를 기반으로 전주·완주 통합적 디지털 트윈 구축 확대
 -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차장, 화재대응 등 서비스 확대 구현 및 혁신도시 내 전주·완주 통합 서비스 구현
- 전기안전, 출판문화 등 혁신도시 특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보유한 전기안전 원격점검 기술과 디지털 출판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발굴·추진

다. 사업계획

1) 전북형 디지털트윈 사업 확대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 혁신도시 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14개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 전북지역 14개 기초지자체 인문학적, 지리학적, 인구 구조적 다양한 지역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환경 등 기초지자체 수요 맞춤형 디지털 트윈 구축 필요
 - 혁신도시 내 전주, 완주(주차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트윈 구축 완료 및 일부 확대 필요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전역
- 사업기간 : 2024 ~ 2028(5년간)
- 사업비: 10,000백만 원(지방비 10,000)

다) 사업내용

- 기초지자체 수요 대응 데이터 구축
 - 전주천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서비스 등 같이 14개 시군별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융합 등 데이터 구축
 - 공공데이터 활용, 3D 가시화 모델 데이터 구축 등
- 디지털트윈 플랫폼 탑재 및 활용
 - 지자체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모델 구축
 - 디지털트윈 지속 활용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탑재, 테스트 및 적용 지원
- 장기적 새만금 개발 연계 새만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재생에너지,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자율주행, 스마트 환경 및 안전 등 분야별 새만금 디지털 트윈 구축
 - 새만금 특성을 고려한 K-배터리 중심 및 K-탄소중립 중심 스마트 시티 기획 및 조성

라) 기대효과

- 전북 전체 시군의 지역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의 공공행정 서비스 고도화

2) 전북 클라우드 데이터 구축·활용사업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은 행정·공공·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거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내 각종 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필요
- 전통적 산업에 편중된 전북 산업구조를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전북은 ICT/SW 관련 기반이 약한 가운데 데이터 사업체 수는 75개(2021년 기준)임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도내 일원(미정)
- 사업기간 : 2023 ~ 2027(5년간)
- 사업비 : 비예산 사업(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은 도 자체 사업 추진)

다) 사업내용

- 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관 데이터 구축
 - 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조성
 - 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내 혁신기관 데이터 구축
- 전북 클라우드 연계 스마트 데이터 활용 서비스 추진
 - 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 지역 내 공동활용 사업발굴
 - 공동활용 시범사업 추진 등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개발 등
 - 공간정보 사업체 활용 지역 디지털 데이터 구축 및 공유 사업 등

라) 기대효과

- 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으로 데이터 집적화 기대
- 전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내 도내 혁신기관 데이터 이전 및 활용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틀 조성 기대

3) 전기안전 스마트 원격점검장비 보급사업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북혁신도시 한국기안전공사국은 전기안전 원격점검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관 소재지인 전북에 최우선 도입, 확신 필요
- 전라북도 제1차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등에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라북도-한국기안전공사국 협업사업으로 추진 필요
 - 2022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전재해조사²⁵⁾에 따르면, 전북은 감전사고는 14명으로 전국 사고 대비 3.9%로 다소 높은 편에 해당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북 도내 전역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사업비 : 500백만 원(국비 350백만 원, 지방비 150백만 원)

다) 사업내용

- 취약계층 대상 전기안전 모니터링 설치
 - 전북지역 취약계층 대상 선정
 - 선정 가구 대상 과전류, 과전압, 저전압 등 전기안전 모니터링 설치
 - 전기안전 검출기구, 데이터 통신기구, 데이터 처리/연산 기능 등 설치
 - 데이터 유출, 삭제, 위조 등 보안관리 장치 설치
- 취약계층 데이터 분석(이상신호 등)
 - 가구별 누설전류 측정
 - 전기안전을 위한 적정 데이터 상태 모니터링

라) 기대효과

- 전북 지역 스마트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보급사업으로 지역 내 전기안전 위해요소 저감

25) 출처 : 감전재해조사 통계정보보고서(2022.3. 한국전기안전공사)

4) 공간정보 데이터 컨설팅 및 품질관리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14개 시군 및 산하 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공간정보 및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서, 사전에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컨설팅 진단이 필요
- 도내 시군, 출연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가 공간정보로 구현하기 위한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
 - 2022년 충남 아산시는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부재,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토정정보공사 공모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

나)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북도 전역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사업비: 비예산 사업(LX 지역본부 자체 사업)

다) 사업내용

- 공간정보 품질관리 지원
 - 전라북도청, 14개 시군, 산하 출연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 개선
 - 데이터 샘플 평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가능성 여부 판단 지원
- 공간정보 품질향상 컨설팅 지원
 - 데이터 위치 정보, 모양 정보, 속성정보 등의 누락, 중복성 등 컨설팅
 -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및 디지털트윈 구축 필요성 등 컨설팅 등
 - 공간정보의 생산, 보유, 관리 등 전반적 수정, 개선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 제공

라) 기대효과

- 전북 지역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원 데이터의 품질 향상 제고 기대
- 데이터 기반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 기대



협력적·효과적 계획 추진 방안

1.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2. 계획추진 체계
3. 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4. 성과관리 계획

VI. 협력적·효과적 계획추진 방안

1.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가. 사업추진 계획

- 본 계획은 2023~2027년까지 5년을 계획단위로 하고, 계획기간 중 각 사업들은 사업추진 여건이 갖춰지는 상황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단위 시작 시점인 2023년에 시작하여 종료 시점인 2027년에 끝마치는 일정으로 계획됨
-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단기간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5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빠르게 끝나게 됨
- 일부 사업은 계획단위의 종료시점인 2027년 후에도 지속되는 사업이 있음

[표 6-1] 사업추진 로드맵

전략	사업명	'23	'24	'25	'26	'27	비고
지역 경제 활성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복합거점 구축						
	곡류분말가공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특화작목 산업화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간척지 농업 연구 기반 확대 지원						
	K-푸드테크 산업기반 조성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핵심사업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핵심사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핵심사업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						핵심사업
	마을자치연금 연수원 설립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핵심사업
	전북 투자 전용 금융기관 설립 및 유치						
	전북금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금융데이터 활용 핀테크 창업 지원						
	공공기관 기술이전 통합지원 센터 설치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디지털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2023~2027)

전략	사업명	'23	'24	'25	'26	'27	비고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선도모델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핵심사업
	대용량·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						핵심사업
정주 환경 조성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지원사업						
	119안전센터 연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핵심사업
	전라북도 K-문화지원센터 조성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핵심사업
	“혁신 아아 모임” 지원						
	기지제 수변공원 힐링명소화 사업						
	물길 산책로 조성						
	혁신도시 악취저감 사업						핵심사업
	스마트 주차 플랫폼 구축사업						
	전북혁신도시 연계도로망 구축						
	전주-익산-군산 셔틀열차사업						
	수요응답형 셔틀버스(광역 DRT)사업						장기검토
	Super-BRT 구축사업						
지역 인재 양성	혁신교육 청소년스쿨						
	국립농생명직업체험관 건립						
	전북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핵심사업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이전기관-지역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핵심사업
	농생명분야 학연협동 연합대학원과정 운영						
	금융 평생교육 캠퍼스 운영						
	청년친화 스타트업타운 조성						
	전라북도 공공기관 공동 채용박람회 추진						핵심사업
지역 상생 발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인문학 도시 조성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장기검토
	디지털트윈 기반 시가지 하천 안전관리 서비스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 지원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핵심사업
스마트 시티 구축	전북형 디지털트윈 사업 확대						
	전북 클라우드 데이터 구축·활용사업						핵심사업
	전기안전 스마트 원격점검장비 보급사업						
	공간정보 데이터 컨설팅 및 품질관리						

나. 재원조달계획

- 계획기간인 2023~2027년의 5년간 총 사업비 2,050,205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
- 총 사업비 중 국비는 1,221,618백만 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59.6%이고, 지방비는 655,738백만 원(32.0%),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자본 사업비는 172,810백만 원(8.4%)임

[표 6-1]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전략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지역 경제 활성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2023~2027	115,200	95,300	17,900	2,000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023~2027	62,157	46,000	16,157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복합거점 구축	2024~2027	19,000	19,000		
	곡류분말가공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24~2027	60,000	48,000	12,000	
	특화작목 산업화 클러스터	2023~2027	3,000	1,500	1,500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2023~2026	109,200	73,200	36,000	
	간척지 농업 연구 기반 확대 지원	2023~2025	15,093	15,093		
	K-푸드테크 산업기반 조성	2024~2027	240,000	168,000	72,000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023~2027	69,300	40,100	29,200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2023~2027	800		800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023~2025	21,871	21,871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2023~2026	8,220	3,940	4,28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	2023~2027	10,000		10,000	
	마을자치연금 연수원 설립	2023~2027	440		400	40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2023~2026	82,000			82,000
	전북 투자 전용 금융기관 설립 및 유치	2024~2027	150,000	60,000	40,000	50,000
	전북금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2025~2027	40,000		40,000	
	금융데이터 활용 핀테크 창업 지원	2025~2027	45,000	25,000	10,000	10,000
	공공기관 기술이전 통합지원 센터 설치	2025~2027	비예산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2023~2024	34,600	34,600		
	디지털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2024~2027	26,500	26,500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2024~2026	12,000	6,000	6,000	
	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2024~2026	40,000	25,000	15,000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단지 스마트관리 선도모델 구축	2024~2026	12,000	6,000	6,000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2023~2025	47,100	26,600	10,000	10,500
	대용량·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	2024~2027	30,000	20,000	4,000	6,000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지원사업	2023~2027	325	25	300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2023~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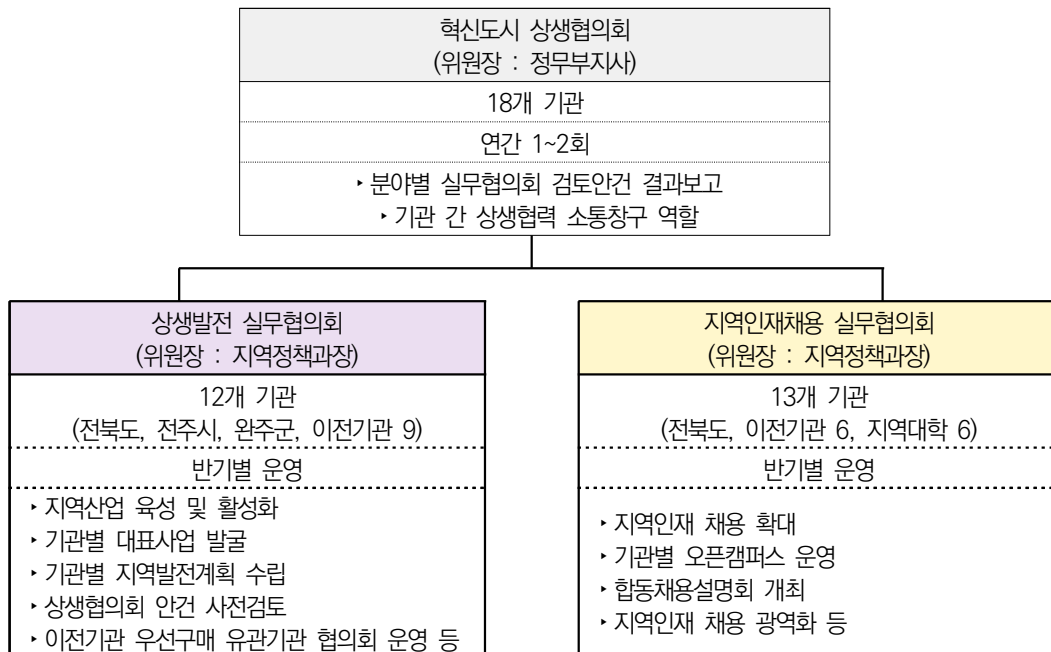
전략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정주 환경 조성	119안전센터 연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2023~2027	1,390	600	790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2023~2024	34,788		34,788	
	전라북도 K-문화지원센터 조성	2024~2027	48,000	24,000	24,000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2024~2027	110,000	55,000	55,000	
	“혁신 아아 모임” 지원	2024~2027	60		60	
	기지제 수변공원 힐링명소화 사업	2023~2026	11,700		11,700	
	물길 산책로 조성	2024~2026	16,100	8,050	8,050	
	혁신도시 악취저감 사업	2023~2027	39,830	36,300	3,530	
	스마트 주차 플랫폼 구축사업	2023~2027	2,600	1,290	1,310	
	전북혁신도시 연계도로망 구축	2023~2027	179,700	119,500	60,200	
	전주-익산-군산 셔틀열차사업	2023~2027	17,000		17,000	
	수요응답형 셔틀버스(광역 DRT)사업	2023~2027	250	125	125	
	Super-BRT 구축사업	2023~2027	136,600	91,300	45,300	
지역 인재 양성	혁신교육 청소년스쿨	2024~2027	60		40	20
	국립농생명직업체험관 건립	2024~2026	30,000	20,000	10,000	
	전북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조성	2025~2027	35,500	11,900	15,200	8,400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2023~2026	3,155	1,578	1,578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2024~2027	570		570	
	이전기관-지역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2024~2027	600		500	100
	농생명분야 학원협동 연합대학원과정 운영	2024~2027	비예산			
	금융 평생교육 캠퍼스 운영	2024~2027	10,000	5,000	2,500	2,500
	청년친화 스타트업타운 조성	2024~2027	30,000	14,500	15,500	
지역 상생 발전	전라북도 공공기관 공동 채용박람회 추진	2023~2027	2,500		1,250	1,250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2025~2027	900	450	450	
	인문학 도시 조성	2024~2027	6,000	3,000	3,000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2025~2026	40,000	40,000		
	디지털원 기반 시가지 하천 안전관리 서비스	2023~2027	3,300	1,650	1,650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 지원	2024~2027	비예산			
스마트 시티 구축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2023~2025	25,296	25,296		
	전북형 디지털트윈 사업 확대	2024~2028	1,0000		10,000	
	전북 클라우드 데이터 구축·활용사업	2023~2027	비예산			
	전기안전 스마트 원격점검장비 보급사업	2024~2027	500	350	150	
공간정보 데이터 컨설팅 및 품질관리			2024~2027	비예산		
계			2,050,205	1,221,618	655,778	172,810

2. 계획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 구축

1) 기존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중심 기능 강화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전북도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그리고 관계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기존의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출처 : 전북도청 내부자료

[그림 6-1] 혁신도시 상생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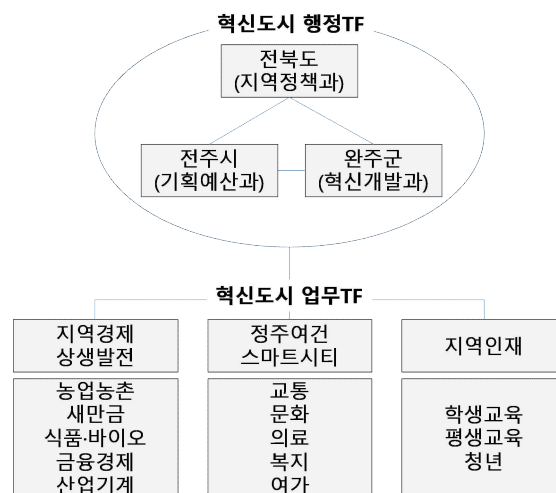
- 현안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시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시기를 조절함
 - 현재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는 오픈캠퍼스 운영이나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와 같이 장기 단위 운영이 필요하므로 기존처럼 반기별로 운영하되,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는 협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빠른 대응을 위해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함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협약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재는 기관별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주로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다수의 기관이 협업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여 보다 큰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및 안건에 대한 논의구조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추진 담당자 협의체 구성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특화발전을 지원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관계 부서 담당자 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협의체를 구성함
 -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담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건 조성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는 경우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도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및 그밖의 관계기관 담당부서 실무진 간 협의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성하도록 함

3) 행정TF 설치 · 운영

- 전북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확산을 위해 관할 지자체 협력을 위한 행정TF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전북혁신도시는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에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입지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혁신기관 역시 전주시와 완주군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전북도와 함께 행정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내용이 많음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경제, 정주여건, 지역인재, 상생발전,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 행정부서가 상호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특화분야인 크게는 농생명과 금융으로 구분되고, 작게는 농업농촌, 새만금, 식품산업, 금융경제, 바이오산업, 산업기계 등 다수 부서가 연계되어 있음
 -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교통, 문화, 의료, 복지, 그리고 지역인재와 관련하여 교육, 청년 등 많은 부서와 관련되고, 또 부서간 협력 역시 중요함



[그림 6-2] 혁신도시 행정TF 구성

나.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분담

1) 지자체 역할

가)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의 수립 주체이자 혁신도시 및 전북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담긴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관리함
 - 혁신도시 상생협의를체를 운영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탐색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전 수행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혁신도시 발전계획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함
 - 각 사업과 관련된 국가공모가 진행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에 참여함
 - 기존의 정부부처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 정부부처의 예산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전북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주시 및 완주군

-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 기성시가지와 연계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혁신도시 주민은 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이므로 이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데 관한 기초지자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함
 -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혁신기관이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이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함
-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정주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민들에게 부족한 정주환경과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공공정책 주체로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고, 혁신도시 내에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기존 시가지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특히, 도시서비스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행정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협력과 통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의 동력이 되는 사업비를 확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 역시 어려운 문제이므로 기존의 유휴부지, 빈집, 빈점포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정비사업, 농촌정비사업 등을 통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2) 이전공공기관

가) 기술지원

- 혁신도시에 연구연량을 가진 이전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지역의 민간에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역의 민간영역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에 역할을 하여야 함
- 이전공공기관의 기술은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역량이나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역량 자체도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연구수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기술 및 능력의 이전과 전수를 수행하는 역할이 요구됨

나) 인력지원

- 이전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적 및 연구적 전문기술을 지역의 인재양성에 참여하도록 함
 - 오픈캠퍼스 등 교육을 통한 이론적 지식의 전달과 함께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연구시설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기관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이론에 대해 지적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를 해소해 주는 멘티와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평생학습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미래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이론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이를 주도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해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전수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다) 공간지원

- 이전공공기관의 부지 내에 조성된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은 이미 주차장,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홍보관 또는 전시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함

3) 유관 기관

가) 대학

- 농생명, 금융, 전기, 국토정보, 출판 및 문헌정보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적 교육이 가능한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참여함
 - 오픈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전문적 이론적 및 실무적 학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학생들의 참여 지원
 -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을 위한 관련 학과의 교육 공간의 이전 및 조성 협력
-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최소 단위 실무형 단기교육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와 채용조건 및 재직자 직무 재교육 과정인 맞춤형 교육(계약학과 등)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 인력과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킴

나) 전북교육청

- 혁신도시에 조성되는 교육·체험 공간을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 학습과 연계하여 현장학습 공간으로 활용함
 - 농생명 교육·체험 공간을 활용하여 전북혁신도시에 특화된 농생명 관련 현장 체험학습 교육 공간으로 이용함

다) 전북지방경찰청

- 혁신도시 주차 및 안전 등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함
- 혁신도시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주차를 단속과 함께 건전한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통하여 혁신도시 내 원활한 교통소통 조건을 제공하고 필요시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기회 확대에 노력함

3. 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1) 상생발전기금 조성 현황

- 조례 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애초 2020.12.31.로 하고 매년 약 9억 원을 적립함
- 조성재원은 혁신도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5%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시군세 5%임
- 조례 제정 당시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으로 하였으나 기금의 총 규모가 35억 원에 그쳐 효율적인 시군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고, 45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80억 원의 기금 규모를 조성하고 있음
-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53.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도 전입금 46억 원, 시군 부담금 6억 원, 이자수입 1.5억 원으로 적립됨

[표 6-2]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조성 계획 및 실적
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1단계('17~'20)				2단계('21~'25)					비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8,000	900	900	900	800	800	900	900	900	1,000	
도비	7,100	800	800	800	700	700	800	800	800	900	도비 89%
전주시	54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시군비 11%
완주군	36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전주 : 60% 완주 : 40%

자료 : 전북도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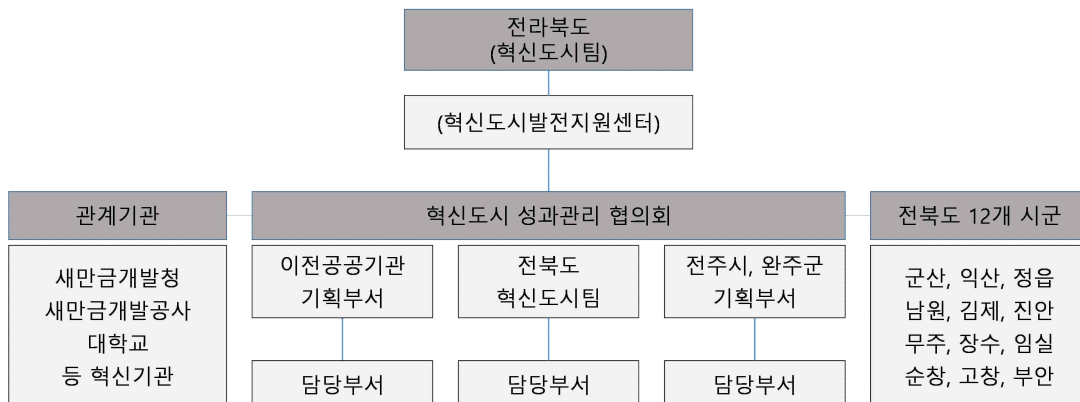
2) 기금 운영 계획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2025년까지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 후에 성과공유를 위한 시군 시책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규모로는 52억 원이고, 연간이자가 4천만 원에 불과하여 전북도내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음
- 따라서, 기금조성이 완료된 후에 기금을 사용할 것이고,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연계한 사업과 시군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활용하게 됨
- 또한,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해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계획임

4. 성과관리 계획

1) 관리체계 구축

- 전북도청 혁신도시 부서(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혁신도시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 전라북도 혁신도시팀이 성과관리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되, 향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실무적인 성과관리 업무를 맡게 됨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전공공기관, 전북도, 전주시·완주군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성과관리 협의회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관리함
 - 협의회에서는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취합함
- 협의회와 별도로 사업에 관계되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각 대학교, 각 연구기관 등 혁신기관과 상생발전사업으로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입지하는 시군 지자체가 추진실적과 성과관리에 참여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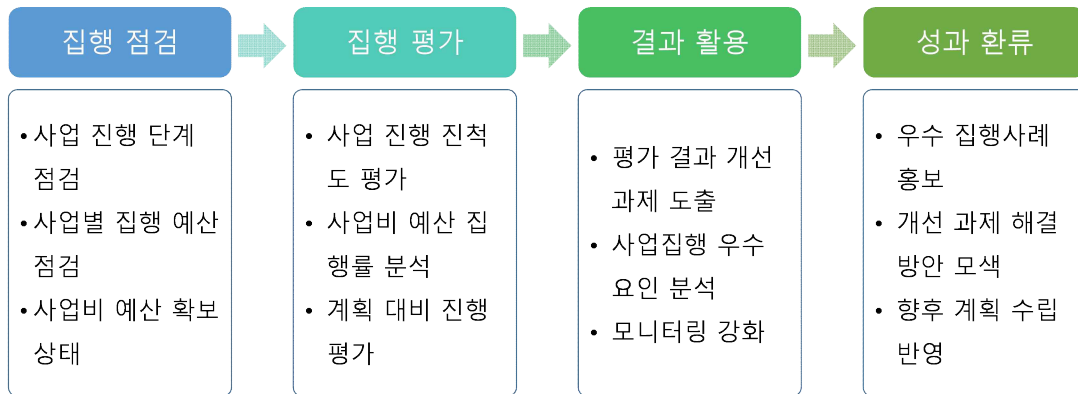
[그림 6-3] 혁신도시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성과관리 계획

가) 단계별 성과관리

- 계획의 집행 정도를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사업의 진행 단계, 사업별로 예산의 집행액, 사업비 예산 확보 상태 등을 점검함
- 집행 상태의 평가단계에서는 집행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진행정도를 평가하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분석하여 계획 대비 진행 실적을 평가함
- 사업 집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집행의 우수요인을 분석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함

- 성과 환류 단계에서는 우수 진행 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성과관리 점검 결과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사업진행이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탐색하여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함



[그림 6-4] 성과관리 단계

나) 사업 모니터링

-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기록하고 관리함
 - 사업추진 단계를 기록하고 단계별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기록함
 - 사업별 계획 내용 대비 실제 집행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항과 함께 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진행된 내용을 작성함
 - 연도별 계획 대비 집행 사업비를 기록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과정을 모니터링함
 - 사업의 추진 단계 및 달성도, 사업비 투입 비율, 사업 진행 상 애로사항 등 점검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 기록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 기관 간 협력 관계 점검